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외교학과 석사학위 논문

1946년 몽골의 대소 종속 원인 연구

2018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 전공
몽 후 절 명

1946년 몽골의 대소 종속 원인 연구

지도교수 전재성

이 논문을 외교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 전공

몽 후 절 명

몽후절명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2월

위 원 장 _____ 신옥희 (인)

부 위 원 장 _____ 신범식 (인)

위 원 _____ 전재성 (인)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몽골이 독립운동을 시작한 1911년부터 당시 지도자였던 초이발상의 정책 전략 때문에 소련의 위성국이 된 1946년까지의 몽골의 독립 진행과 몽골의 정치적 변화의 이유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몽골은 오늘날까지 소련과 중국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지정학 위치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고 있다.

1911년 당시 인구 800,000명의 작은 국가였던 몽골은 독립 국가가 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두 강대국 사이에 한 나라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으며 당시 몽골의 지도자였던 초이발상은 소련 편으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초이발상의 선택에 의해 몽골은 소련과 관련된 모든 전쟁에 참전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1991년 소련붕괴까지의 몽골역사를 보면 국제무대에서 독립국가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 위성국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1946년에 많은 눈물, 땀과 피를 흘린 끝에 독립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1946년은 몽골이 독립을 얻은 해로서 가지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몽골이 소련과 중국의 경쟁 사이에서 소련을 선택한 사건은 초이발상의 영도 하에 몽골 자체의 역동적인 독립 운동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 몽골의 전략, 다시 말해서 초이발상의 전략은, 강대국 사이에 처한 운명을 가진 몽골이 힘겹게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그 시기 외교 정책 목표의 최우선은 무엇보다 국가 안보의 문제인 생존, 즉 독립의 유지였다. 만약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만한 국력이 없는 상태에서 중립 정책을 고수하였다면 독립을 쟁취할 수도 없었을 것이며, 독립이 되었다 하더라도 양측의 경쟁 속에서 독립을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초이발상이 중국보다 소련을 선택한 것은 상당한

부작용이 있긴 하였지만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의 정책이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주요어 : 1946년의 몽골, 몽골독립, 몽골-소련, 초이발상-스탈린

학 번 : 2009-23821

목 차

| | |
|-----------------------------------|----|
| I. 서론 | 1 |
| 1. 문제제기 | 1 |
| 2. 연구 배경 | 5 |
| 3. 선행연구 검토 | 6 |
| 4. 연구시기 및 사례검토 | 15 |
| 5. 연구방법 | 16 |
| II. 1911년부터1946년까지의 몽골의 외교정책 | 18 |
| 1. 몽골 독립, 지도자들 전략 | 18 |
| 2. 몽골-소련 관계 | 40 |
| 3. 몽골-중국 관계 | 47 |
| III. 1946년 초이발상의 몽골 독립 전략 | 52 |
| 1. 초이발상 및 몽골의 정치 세력들 | 52 |
| 2. 몽골독립의 대한 소련의 입장 | 62 |
| 3. 몽골독립의 대한 중국의 입장 | 65 |
| IV. 1946년 세계의 상황 | 68 |
| 1. 몽골에 미치는 영향 | 68 |
| 2. 소련의 상황 | 72 |
| 3. 중국의 상황 | 76 |
| V. 결론 | 78 |
| 참고문헌 | 83 |
| Abstract | 89 |

그 립 목 차

| | |
|---|----|
| [그림 2-1] 벡드칸이 왕이 되는 날 | 19 |
| [그림 2-2] 1910년까지의 몽골의 모습 | 20 |
| [그림 2-3] 독립에 대한 편지 | 22 |
| [그림 2-4] 일곱 명의 지도자들 | 25 |
| [그림 2-5] 수흐바타르 레닌 | 26 |
| [그림 2-6] 협정에 성명한 이후 | 38 |
| [그림 3-1] 1921년, 수흐바타르 초이발상 | 56 |
| [그림 3-2] 11북서국경군대와 몽골대표단 | 57 |
| [그림 4-1] 1932년 2월, 첫 화력발전소 | 68 |
| [그림 4-2] 1938년, 울란바타르 철도 | 69 |
| [그림 4-3] 1926년, 독일 및 프랑스로 유학한 학생들 | 70 |

Abstract

A study on the causes of Mongolian subordination to the USSR in 1946

Munkhtsolmon Enkhbold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Major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y research will attempt to analyse the period of time from the first Mongolian independence movement in 1911 until 1946, when the roots for becoming a satellite state of the USSR started due to the political tactics of Choibalsan, the leader at the time. This time period consists of the Mongolian independence process and the reasons for domestic political changes.

Due to it's landlocked location, wedged between two great powers, Mongolia was destined to endlessly endure, even now.

In 1911, Mongolia's only desire was to be independent but this was very difficult because of the country's weakness with a population of only 800,000 and the tumultuous global political climate. Mongolia needed to survive in that situation but could only choose to align itself with one of two countries, China or the USSR. Eventually, Mongolia chose the USSR, a choice that was made by the leader, Choibalsan.

It was a decision that couldn't be reversed and in needing to secure national safety, he closed his eyes and aimed to achieve his goal. Instead of that, Mongolians were forced to attend every war of Stalin's USSR and as we know there is no success without sacrifice and risk. After a lot of blood, sweat and tears Mongolia gained independence in 1946.

It's fair to say that until 1991 Mongolia was one of USSR's satellite states because of non-recognition globally even though it was an independent country. However, in 1946, after the fourth attempt Mongolia became an independent country. Therefore through to 1946 we can see how Mongolia tried so hard to be independent from others. That is why this timing is so meaningful and important.

To conclude, Mongolia, under the initiative of Choibalsan, chose the Soviet Union as the strategy of choice while the competition between the Chinese and the USSR was playing out. Also that period of time was a dynamic process, not merely a single event. The strategy of Mongolia at this time was Choibalsan's strategies and guiding policies. This was a struggle for gaining independence despite it's destiny being intertwined with the two great powers. There were no neutral powers that could help. Therefore the first priority of their foreign policy was the survival of the nation's security, that is, maintaining it's independence. If it were to maintain it's neutrality without the strength to do so, then it would not have become independent. Even if it became independent, it would have been almost impossible to maintain it in the competing interests of the great powers. Therefore, the policy of selecting the Soviet Union

rather than China had considerable side effects, but it could be regarded as the best policy under the given circumstances.

Key words : 1946 Mongolia, Mongolian independence, MNPR-USSR, Choibalsan-Stalin

Student Number : 2009-23821

I. 서론

1. 문제제기

몽골은 1691년부터¹⁾ 220년 동안 청나라의 지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관계에 처한 상황 중에²⁾ 중국에서 일어난 신해혁명으로 야기된 청나라의 몰락³⁾을 계기로 1911년 12월 29일 제8대 쥘춘담바호탁트(Jebtsundamba Khutuktu)인 벡드칸(Bogd Khaan)⁴⁾을 국가수반으로 하는 새로이 탄생한 몽골은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게 된다. 중화민국의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복귀요구로 인해 1914년 9월 8일에서 1915년 6월 7일까지 9개월 동안 이어졌던 몽-중-소 삼국의 ‘카흐트조약’⁵⁾의 규정에 따라 몽골은 결국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더욱이 1917년 10월에 일어난 소련의 10월 혁명으로⁶⁾ 인하여 몽골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던 소련의 균형이 깨지게 되자 1919년

-
- 1) John K. Fairbank,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10, Late Ch'ing 1800-1911, Part1), 1978, p.49. 17세기 이후로 몽골 황제 권력은 매우 약하였다. 마지막 임금 립덴(Ligden Khutugt Khan: 1588-1634, 제40대 몽골 제국 대칸: 1604-1634)은 차하르(Tsahar)를 정복하고 기타 몽골 부족들과 연합하여 발전을 이루었지만 1612년 동부 몽골 부족들이 만주족의 후금과 동맹 관계를 맺으면서 몽골의 단합은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1632년 차하르의 백성 10만 명을 거느리고 칭하이로 피신하여 재기를 노렸고 1634년에 티베트로 객륙파로 겨냥한 원정을 떠나던 도중에 사망하였다. 그 후 1636년에 청나라가 현재의 내몽골지역을 점령하였고 1691년에 몽골은 결국 청나라에 병합되었다.
 - 2) Ч.Буянбадрах, "Монгол орны лавлах", УБ, 2012, х.292-294. 바다라흐, "몽골에 대한 안내", (울란바타르, 2012), pp.292-294. 지배 이후 몽골인들을 억제하기 위하여 분할통치를 실행함과 동시에 일정한 행정구역 설정하였으며 또한 1840년 제1차 아편전쟁 이후 청나라의 경제 상황이 더욱 나빠져 힘든 삶을 개선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저항하였다.
 - 3) Синьхайская революция 1911-1913гг./Сборник документов и материалов. (М.1968г). 1911-1913년 신해혁명/문서 및 자료 모음, (모스크바, 1968).
 - 4) O.Batsaikhan, "Bogdo Jebtsundamba Khutukhtu, the last king of Mongolia", (Ulaanbaatar, 2009), pp.24-36.
 - 5) B.Sanjmyatav, "Historical truth about Mongolia-China-Russia tripartite Kyakht Treaty", (Ulaanbaatar, 1991), pp.11-37.
 - 6) 김성환, 『러시아 10월 혁명의 그날』, (사계절, 2010), pp.257-260. 세계 최초의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 정권을 수립된 혁명. 러시아국민들과 백군과 백군을 후원하는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의 제국주의 국가들과의 전쟁.

으로부터 1921년까지 중화민국은 몽골 왕족들을 협박하여 몽골의 자치권마저 자발적으로 반납하도록 강요하게 된다.⁷⁾ 이러한 상황 가운데 1918년 제정 러시아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콜차크(Aleksandr Vasiliyevich Kolchak)가 주도한 백군 정부가 옴스크에서 설립되었으며, 1920년 1월 콜차크 정부가 무너지고⁸⁾ 그곳에 흩어져 있었던 군사 지도자 중 한 명인 바룬 운게른 남작(Baron Ungern Sternberg liutenant)은 1920년 9월 몽골의 반중 감정을 이용하여 1921년 수도 후레(현재의 울란바타르 시) 지역의 중국군을 러시아 국경지대인 카흐트로 몰아내고 라마교의 활불(달라이 라마)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를 세움으로 하여 몽골에서의 일시적인 독재자가 되었다.⁹⁾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라를 되찾아야겠다는 신념으로 몽골은 러시아 혁명군의 원조를 받아 중국군 및 활불 정부군과 맞서 열심히 투쟁하였고 결국 1921년 11월 5일에 몽골과 소비에트 양측은 모스크바에서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으며 상호승인과 우호 관계 관한 ‘몽골-소비에트 협정’을 조인하였다.¹⁰⁾ 해방군에 의해 성립된 몽골 정부는 다시 백드칸을 국가수반으로 하게 되고, 정부 내각을 성립하게 되지만 1924년 5월 20일에 그가 사망한 후¹¹⁾ 사회주의의 영향으로 1924년 11월 26일에는 공화제로 전환하여 국호를 ‘몽골인민공화국’으로 책정하고, 봉건-식권 잔재(殘在)의 일소(一掃), 재산 사유권 금지 등을 규정한 최초의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구소련에 이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되는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다.¹²⁾

7) Ewing, Thomas E, "Between the Hammer and Anvil: Chinese and Russian Policies in Outer Mongolia: 1911-1921", *Research Institute for Inner Asian Studies*, (Indiana University, 1980), p.145.

8) Rex Wade, "The Bolshevik Revolution and Russia Civil War", (Greenwood Press, 2001), p.13.

9) James Palmer, "The Bloody white Baron", (London, 2008), pp.6-8.

10) Bruce Elleman, "Diplomacy and Deception: The Secret History of Sino-Soviet Diplomatic Relations: 1917-1927", (New York, 1997), p.88.

11) O.Batsaikhan, (Ulaanbaatar, 2009), p.198.

12) S.Luzyanin, "Mongolia: between China and Russia 1920-1924", (Moscow, 1995), p.82.

따라서 몽골은 1911년에서 1924년 사이에 총 세 번의 독립운동을 전개했지만 결국 소련과 정치, 경제, 문화 이념적으로 밀접한 유대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공식적인 국가로는 인정받지 못하였다.

이어서 1924년부터 아시아의 유일한 위성국이 된 몽골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허를러깅 초이발상(Khorloogiin Choibalsan)은 1929년 1월 24일부터 1930년 4월 27일까지 몽골의 지도자로 지냈고, 또한 1930년부터 1952년까지 몽골인민공화국의 수상을 역임한 ‘몽골의 스탈린’으로 알려진 집권자였다.¹³⁾ 그는 대숙청(Great Purge)의 정치적 탄압(repression)에 따라 몽골에서 1937년 9월 10일부터 1939년까지 혁명의 반대자 또는 일본 정부 기관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당시 몽골인구 3%나 되는 엄청난 시민들을 살해하였다.¹⁴⁾ 1939년 5월 8일에서 9월 16일까지 할하 강 전투(Battles of Khalkh river)를 통해 몽골-소련 연합군이 일본 관동군과 노몬한(Nomonhan incident) 부근에서 국경선이 확실치 않다는 이유로 잦은 분쟁을 일으켰고¹⁵⁾, 2차 세계대전 기간에는 몽골은 상호원조 및 협조의 의무에 따라¹⁶⁾ 소련 인민에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소련의 승리를 지원하는 조직적인 운동을 사회 전반에 걸쳐 전개하였다.

1945년 승리를 앞둔 연합군이 얄타회담(Yalta conference)을 개최하였는데 소련, 영국, 미국 지도자들은 몽골의 독립 상태를 유지(status quo)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며,¹⁷⁾ 국내의 내전과 분열에 정신이 없었던 중국의 장제스(Chang Kaishi) 정부는 결국 1946년 1월 5일에 몽골의 독립을 승인하여 1946년 2월 5일에는 양국 간의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수립되었다.¹⁸⁾ 또한, 소련이 몽골과 1946년 2월 27일에 ‘우호관계와 상호원조’ 및 ‘경제-문화 협력에 관한 협정’을 각각 체결하였다.¹⁹⁾ 이리하여 소련 및 중국 두 나라의 승인을 받은 후 국제적 이념

13) B.Baabar, "Khorloogiin Choibalsan", Vol.I, (Ulaanbaatar, 2015), pp.20-24.

14) Christopher Kaplonski, "Thirty thousand bullets: remembering political repression in Mongolia", (London, 2002), p.156.

15) V.Kondartiev, ""Battle of Khalkhiin gol", (Moscow, 2002), pp.61-63.

16) Friters Gerard, "Outer Mongolia and its International Position", (Baltimore, 1949), p.205.

17) O.Batsaikhan, "Mongolia: becoming a nation-state: 1911-1952", (Ulaanbaatar, 2013), pp.257-268.

18) B.Baabar, "Twentieth Century of Mongolia", (Ulaanbaatar, 1996), p.511.

체제의 새로운 상황 속에서 몽골인민공화국의 외교적 입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를 유엔(UN)이라고 생각하여 몽골 정부는 1946년 6월 21일에 첫 유엔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성사되지 못하였다.²⁰⁾

정리하자면, 몽골은 1924년부터 1946년까지는 소련의 약속과 도움을 받아 '허털러깅 초이발상의 정책'에 기초하여 그 성공의 결과로 독립된 나라가 되었지만 1946년 이후에는 세 가지 선택지가 주어졌으며, 이 모든 것들은 몽골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던 새로운 기회의 시기였다. 첫째로, 앞으로 어느 나라의 영향 아래에도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독립의 의미 그대로 독립 국가가 되는 것이 최상 선택이었고, 두 번째로는 소련의 영향 아래에서 스탈린의 의사에 따라 힘들게 얻은 '독립'을 확실하게 보장받는 중간의 길이었으며, 세 번째로는 몽골이 독립 국가로 댔음에도 불구하고 줄곧 중국의 한 부분이라는 역사적인 위험 의식을 가진 중국의 영향 아래에 언제든지 첫 번째 경우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인 것이다. 이렇게 두 강대국 사이에서 명목상의 독립을 이루어 낸 국가였으나 최상과 최악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두 번째 중간의 길을 선택해 결국 소련의 '지방정부'와 같은 지위를 영위했다. 냉전기 몽골은 국제 관계에 있어서 교류의 대상을 사회주의 국가들에 한정했고, 외교 정책의 가장 큰 중심을 소련과의 관계에 두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1946년 몽골 독립을 확립하기 위한 두 번째 길을 선택한 '허털러깅 초이발상의 정책'의 결정 요인과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왜 몽골은 독립했지만 1946년에 소련 영향권 하에 종속되는가?”라는 질문의 답을 내부 및 외부의 환경 특히 지리적 정책 문제와 결부하여 몽골 정책결정자들의 의도와 소련 및 중국에 대한 외교전략 선택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아울러 구조적이고도 역사적 관점으로부터 접근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원인의 영향이 1946년에 초이발상의 선택이 결정적이었는지 판단하려고 한다.

19) Ts.Batbayar, "Open Mongolia and Mongol-Russian relations", (Ulaanbaatar, 1998), p.38.

20) Alan.J.K.Sanders, "UN: relations with Mongolia", *III-th Edit*, (London, 2010), p.735.

2. 연구 배경

몽골은 두 강대국 사이에서 독립 국가로 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가한 끝에 수십 년 동안의 소원이었던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 첫 실질적인 기회는 바로 1946년이었다. 그 기회를 잡아 네 번째로 독립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무대에서는 독립을 얻지 못하였다. 그 이유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존재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특별한 지리적 위치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련과 중국은 몽골의 외교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서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몽골의 안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외부로부터의 도움을 받은 것이었다.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국제체제를 따라 몽골은 소련과 중국 두 나라 중에서 어느 한쪽으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면 독립을 위한 자신의 자주성을 어느 정도로 확대 또는 양보해야 할 것이냐를 계산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몽골의 목표를 소련의 이익과 맞추어 풀어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몽골은 외교 정책에 있어 어느 정도 소련의 간섭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몽골의 외교 정책은 소련과 비교하여 볼 때, 체계변수(systematic variable) 즉, 외부환경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행위, 환경으로부터 오는 도전, 타국의 외교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냉전 시대에는 국제 관계를 강대국 중심으로 연구하고, 약소국의 역할을 중요하게 보지 않았지만, 냉전이 종식되면서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사라지고, 약소국들의 정치적 역할을 제한했던 군사 정치적 동맹들이 철회되자 국제무대에서의 약소국들의 역할이 증대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몽골이 1946년에 지속적으로 국가의 안보 및 외교정책에서 핵심적이고도 결정적인 변화가 나타남으로 하여 독립 국가로서의 국가 안보를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개선된 대외정책 환경이 조성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소련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한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70년 동안 소련이 해체되기까지 실질적인 독립을 성취하지 못했던 이유

에 관한 설명을 강대국보다 훨씬 자세히 알릴 수 있다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또는 본 연구는 냉전 초기 약소국이 강대국에 대한 외교적 전략의 설명 중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본다.

3. 선행연구 검토

몽골 독립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시기별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소련의 강한 사회주의 제도 아래에 영향을 받은 ‘소련이 써준 몽골 독립의 역사’와 1989년 이후 민주주의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여 소련과의 종속 관계에서 벗어나 상당히 다른 상황과 연구가 들어가 있는 ‘몽골의 입장에서부터 연구한 1900년대 이후의 역사’라는 두 가지 논의로 볼 수 있다.

몽골은 1921년에 혁명에 승리하여 11월 22일에 2000권이 넘는 책을 모아 첫 기록 보관소를 설립했다.²¹⁾ 1924년에 첫 역사적 서류를 모아 둔 보관소가 생겼고 1927년 12월 5일에 문서연구소를 만들었다.²²⁾

1927년에 막사르잡²³⁾은 1910년부터 1924년 사이에 발생한 현황을 8장으로 나누어 개인의 생각으로 아주 자세하게 노트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1930년으로 들어와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념을 발전시킨 정보형성 책 중에서 가장 명확한 사례는 초이발상, 리설과 데민들이 쓴²⁴⁾ 몽골 인민민족혁명이 어떻게 시작되고 진화되었는지에 관한 서술을 운문으로

21) 몽골국립기록보관소 (www.archives.gov.mn).

22) Textbook archival institute (www.mongoltoli.mn/history/h/694).

23) N.Magsarjav, *Mongol ulsyn shine tuukh*, "New History of the Mongol State", (Ulaanbaatar, 1994). Magsarjav (also known: Magsar hurts, (1869-1935), minister of justice, teacher of Bogd Khaan).

24) The revolutionary leaders Kh.Choibalsan and D.Losol, G.Demid published "Mongol aradyn undesny khubisgal anh uusgen baiguulagdsan товч туух", "A brief history of the Mongolian People's National Revolution establishment", (Ulaanbaatar, 1930).

쓰여 있는 산문적인 서술이다.

1934년에 쓴 텐뎡(1895-1956)의 책²⁵⁾은 1911년부터 1920년까지 사이에 일어난 사례들을 실질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몽골의 독립운동 분쟁관리와 행동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그 당시의 독립운동에 참여한 약 40명의 사진과 자기 동료들과 촬영한 20장의 사진이 수록된 앨범이 들어가 있다.

1930년에서 1940년 사이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던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젊은이들을 재교육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영웅들의 실력을 자랑한’ 내용이 많이 나왔으며 대표적으로는 초이발상²⁶⁾, 재대잡²⁷⁾, 나방남질²⁸⁾, 나작덜지²⁹⁾ 등이 쓴 책들이었다.

1947년에는 몽골국립대학교에서 역사학과가 생기게 되고 전문적인 역사가 태어난 뿌리로 시작했으므로 1954년 처음으로 몽골과 소련의 역사학자들이 협력하여 몽골인민공화국에 대한 역사책을 편찬했다.³⁰⁾

1955년에 터머르-어치르³¹⁾ 몽골인민당의 특성(characteristic), 비밀그룹의 기원(secret group's origin), 서양의 정책(western policy)을 연구한 책을 썼지만 안타깝게도 피소되어 1967년에는 국가의 압력을 받아 책을 편집하였다.

1950-1990년 사이에는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외교 관계 등등 넓은 주제들을 대표로 하여 국민의 자유를 위한 싸움, 정치가들의 역할과 그들의 발견을 지칭하는 작품들을 폰착너립³²⁾, 시렝뎡³³⁾, 산자³⁴⁾, 삼야³⁵⁾, 따시³⁶⁾, 이칭너립³⁷⁾, 로.발-어치르³⁸⁾, 르함수렝³⁹⁾, 막사르잡⁴⁰⁾,

25) L.Dendev, "Mongolyn tovch tuukh", "Brief history of Mongolia", (Ulaanbaatar, 1934).

26) Kh.Choibalsan, "Ardyn hatanbaatar Magsarjav", "People's hero Magsarjav", (Ulaanbaatar, 1942).

27) Ts.Tsedenjav, "Partizan Khasbaatar", (Ulaanbaatar, 1942).

28) G.Navaannamjil, "Choibalsangyn baganas", "Choibalsan's childhood", (Ulaanbaatar, 1942).

29) Sh.Natsagdorj, "Sukhbaatarын namtar", "Sukhbaatar's biography", (Ulaanbaatar, 1943).

30) History of the Mongolian People's Republic, *Edited twice:1966,1983*, (Ulaanbaatar, 1954).

31) D.Tumur-Ochir, "MAXN-iin tovch tuukh", "A brief history of Mongolian People's Revolution Party", *re-edition 1967*. (Ulaanbaatar, 1955).

32) Ts.Puntsagnorov, "Mongoliin avtonomit ueiin tuukh", "Mongolian history of autonomous period", (Ulaanbaatar, 1955).

33) B.Shirendev, "Narodnaya revolyutsiya v Mongolii I obrazovanie MNR", "The People's Revolution in Mongolia and the formation of the MPR", (Moscow, 1956).

34) L.Sanjaа. "MAHN-iin programmudiin tuhai", "About MPRP's programmes", (Ulaanbaatar, 1967).

35) B.Sumya, "V.I.Lenin-Mongol ard tumnii ih bagsh, dotnii nuhur", "V.I.Lenin-

푸렙⁴¹⁾ 르.발-어치르⁴²⁾ 등이 출판하였다.

물론 또 다른 몽골의 역사학자들도 여러 나라의 연구자들과 협력하여 연구한 작품들도 많지만 모든 것을 언급하기엔 거의 똑같은 내용을 다시 쓰고 있는 느낌과 별다름이 없기에 간략하여 결론적으로 말해본다면 마르크시즘의 이론과 방법이 흡수된 설득자(persuader)들과 같았다. 다른 말로는 다음과 같은 정의들이 명확히 보이게 된다. 첫째로는, 물질적인 것들만이 해결의 가치가 있다고 해서 지적능력의 가능성에 관심이 없었다. 둘째로는, 사유재산이 잘못된 것이라고 정의하여 경제발전을 멈추게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역사발전은 정당들(political parties) 간의 경쟁이라고 믿어 협력이나 다른 길을 찾아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또는 왜 그 당시 사회에서 인민들이 세뇌(brainwashed)를 당해 자유롭게 생각하지 못하였고 새로운 길을 찾지 못하여 모방적인(imitative), 정형화된(formulaic), 사전에 포장된(pre-packed) 것을 그대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들 수 있으며, 창의력이 부족한 생각과 삶으로 밀린 자료들로 보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1990-2000년에 와서는 공산주의가 무너진 이유로 새로운 문이 열려 몽골의 역사연구자들은 사고방식을 바꾸어 서부적인 역사연구방법을 고찰하기 시작하였다. 이론적인 부족 점을 고치고 몽골의 독립 역사를 기타 나라 입장에서만 연구했다는 기본적인 비판을 바탕으로

Mongolian People's great teacher, close friend", (Ulaanbaatar, 1970).

36) D.Dash, "Ardiin huv'sgaliin manlai huchin", "Leader power of the People's Revolution", (Ulaanbaatar, 1972).

37) S.Ichinnorov, "Mongol Ardiin Nam gedeg huv'sgalt baiguullaga", "The Revolution Organization which is called Mongolian People's Party", (Ulaanbaatar, 1973).

38) Lu. Bat-Ochir, "Mongol orond ard angiin huv'sgalt nam uusen baiguulagdsan asuudal", "Issues in the establishment of the Revolution People's Party", (Ulaanbaatar, 1977).

39) G.Lhamsuren, "Ardiin huv'sgaliin ue deh MAHN-iin strategi, taktikiin zarim asuudal", "Some issues pertaining to the strategies and tactics of the MPRP's during the People's Revolution", (Ulaanbaatar, 1977).

40) Kh.Magsarjav, "MAHN olon tumniig hamran urguujij behjsen n': 1921-1924", "MPRP's expansion and strengthening during 1921-1924", (Ulaanbaatar, 1979).

41) O.Purev, "D.Sukhbaatar-iin uil am'drald holbogdoh nutgaar", "Lands where D.Sukhbaatar was living and active", (Ulaanbaatar, 1979).

42) L.Bat-Ochir, "MAHN fashizm, militarizmiin esreg tentsel ard tumnee zohion baiguulsan n': 1941-1945", "MPRP organized people for the fight against fascism and militarism during 1941-1945", (Ulaanbaatar, 1985).

몽골의 역사연구자들은 역사의 새로운 열매들을 심기에 집중한 자료들을 만든 느낌이 든다. 그들 중에서도 바트덕터흐⁴³⁾, 잠스랑⁴⁴⁾ 강가남⁴⁵⁾, 남보⁴⁶⁾, 르.바트-어치르⁴⁷⁾, 로.발-어치르 및 어트경자르갈⁴⁸⁾, 시렌렙⁴⁹⁾, 바트사이항⁵⁰⁾, 오랑고아⁵¹⁾, 바트바야르⁵²⁾, 르함수렙⁵³⁾, 나.수흐바토르⁵⁴⁾, 잠발수렙⁵⁵⁾ 등을 예로 들어 볼 수 있다.

또는 정당의 지도자 혹은 외교관들의 기억을 옮긴 책들을 출판하여 역사에 맞는 당시의 현황에 대한 회복에 기여될 수 있는 자료로서 남기거나; 정치적인 이유로 외국으로 망명하여 난민 된 디랍 성하 잠스랑잡⁵⁶⁾, 자기만 의견을 용감하게 털어낸 보고자 또는 정치인 바브르⁵⁷⁾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쓴 당시 몽골이 어떠한 시험을 당하였고, 어떠한 경험을 얻었으며,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 유형과

-
- 43) S.Battogtokh, “*Nuuts huivaldaanaas nugalaа zavhrald*”, “Secret collusion's hidden immorality”, (Ulaanbaatar, 1991).
- 44) L.Jamsaran, “*Mongoliin sergen mandaltiin ehen: 1911-1913*”, “The beginnig of the renewal: 1911-1913”, (Ulaanbaatar, 1992).
- 45) S.Gangaanyam, “*Mongolchuud tusgaar togtoloo hamgaalj temtsen n': 1911-1921*”, “Mongolian fight to defend independence: 1911-1921”, (Ulaanbaatar, 1993).
- 46) Kh.Nyambuu, “*Olnoo orgogdson Mongol ulsiin toriin yos, yoslol*”, “Widely proclaimed Mongolian state morale, ceremony”, (Ulaanbaatar, 1993).
- 47) L.Bat-Ochir, “*Tuukhiin unenii ereld, /sudalgaani oguulel tuuver/*”, “Search for historical truth /research of articles & collections/”, (Ulaanbaatar, 1996).
- 48) Lu.Bat-Ochir, S.Otgonjargal, “*20-r zuunii Mongol dah' uls toriin uil yawts*”, “The political process in Mongolia in the 20th century”, (Ulaanbaatar, 1996).
- 49) B.Shirendev, “*Mongol ulsiin toriin tusgaar togtol sergen mandsan n'*”, “Revival of Mongolian independence”, (Ulaanbaatar, 1996).
- 50) O.Batsaikhan, “*Mongol ulsiin khugjiin zamд uchirsan eedree*”, “The complexity of Mongolia's development path”, (Ulaanbaatar, 1997).
- 51) J.Urangoo, “*20-r zuunii ehen uiin Ar-Mongol dah' shinetgel*”, “Innovation in the early 20th century of Outer-Mongolia”, (Ulaanbaatar, 1997).
- 52) Ts.Batbayar, “*Mongol ba Yapon 20-r zuunii ehen hagast*”, “Mongolia and Japan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Ulaanbaatar, 1998).
- 53) B.Lkhamsuren, “*Mongoliin gadaad orchin, turiin tusgaar togtol*”, “Mongolia's external environment, state independence”, (Ulaanbaatar, 1998).
- 54) Na.Sukhbaatar, “*Baruun hyazgaariin niigem-uls toriin khogjiin tuuhen toim /20-r zuunii ehees 1930-aad on/*”, “Historical overview of the socio-political development of the West/early 20th century to 1930s/”, (Ulaanbaatar, 2000).
- 55) N.Jambalsuren, “*Yu.Tsedenbal-aas P.Ochirbat hurtel*”, “from Yu.Tsedenbal to P.Ochirbat”, (Ulaanbaatar, 2000).
- 56) Dilav holiness Jamsranjav, “*Ar Mongolin uls turiin durtagal*”, “Outer Mongolian's political remembrance”, (Ulaanbaatar, 1991).
- 57) B.Baabar, “*Nuudel-suudal, garz-olz*”, “Movement-stability, losses-profits”, (Ulaanbaatar, 1996).

단계를 냉전기 전에 있었던 세 번의 독립 사례에 결부시켜 몽골이 어떠한 전략을 구사하였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는 바바르의 “몽골의 발전에 만난 혼란(1921-1932)”과 “Nuudel suudal”이라는 책을 보면 스탈린주의적 개념을 통해 초이발상의 몽골의 독립 기회를 얻은 전략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 자르갈사이항⁵⁸⁾ 대사의 노트, 발하잡⁵⁹⁾의 추억 및 담바다르자⁶⁰⁾님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외국의 역사연구자 중에서는 제일 먼저 커트비치⁶¹⁾를 언급해야 한다. 그는 칼리니킵⁶²⁾, 치비킵⁶³⁾ 하고 마이스크⁶⁴⁾들의 마르크시즘을 중심으로 쓴 책들보다 보다 넓고 정확성이 높으며 또한 결론이 존재하는 등 내용상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기타 연구들을 분석해 보면, 소련의 덕분에 경제, 농업, 공업에서 생긴 변화 및 발전을 연구한 러스신⁶⁵⁾, 마태이바 와 스타리츠나⁶⁶⁾, 또는 몽골의 문화, 목축에 관한 가정용인 교육문제를 연구한 미하이랍⁶⁷⁾, 발다에브⁶⁸⁾ 그리고 소련과 몽골 간의 평화와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을 연구한 어시퍼브⁶⁹⁾, 카피차 와 이바네키⁷⁰⁾, 가타오리나⁷¹⁾ 등의 작품

58) B.Jargalsaikhan, “Olon jiliin huuch”, “Narrative of the long term”, (Ulaanbaatar, 1997).

59) Ts.Balhaajav, “Nas dagsan hurug dursamj”, “An old portrait & memory”, (Ulaanbaatar, 1997).

60) S.Dambadarjaa, “Britanii aral deer Mongoliin gal golomt assan n’”, “Mongolian fire of independence is burning in the British Isles”, (Ulaanbaatar, 1999).

61) Записки об учёных трудах В.Л.Котвича, Известия Российской Академии наук, 6серия, 7том, (Москва, 1923), “Notes on scholarly works of V.L.Kotvich”, Reports of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s, 6series, 7th, (Moscow, 1923).

62) А.Каллиников, “Революционная Монголия”, (Москва, 1925), A.Kallinikov, “Revolutionary Mongolia”, (Moscow, 1925).

63) B.D.Tsibikov, “Ungernchuudiig but tsohison n’”, “The story of Ungerns defeat”, (Ulan-Ude, 1947).

64) И.М Майск, “Монголия накануне революции”, (Москва, 1959), I.M.Maisk, “Mongolia on the eve of the revolution”, (Moscow, 1959).

65) С.К.Росцин,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й уклад в экономике”, (Москва, 1998), S.K.Roshin, “Socialist structure in the economy”, (Moscow, 1998).

66) Г.С. Матеева, С.Старицына, “Народная демократия 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оциализма в МНР”, (Москва, 1965), G.S.Matieva, S.Staritsina, “People's democracy and the construction of socialism in the MPR”, (Moscow, 1965).

67) Г.И. Михайлов, “Культурно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в МНР”, исторические очерки, (Москва, 1957), G.I.Mihailov, “Cultural construction in the MNR”, historical essays, (Moscow, 1957).

68) Р.Л. Балдаев, “Народ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в МНР”, (Москва, 1971), R.L.Baldeiv, “National educations in the MNR”, (Moscow, 1971).

69) А.А.Осипов,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Монголь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들을 예로 들 수 있다.

소련이 해체된 후 몽골에 관한 연구는 야스키나(마트배이바)⁷²⁾ 1990년대의 몽골 정책, 경제, 갱신의 결과 연구, 그라이브리넵스키⁷³⁾ 80,90년대의 시골의 인구, 사회문제 대해, 다랩스카야⁷⁴⁾의 벅드칸 시대에 살았던 커진(S.A.Kozin), 바르냐킵(F.A.Parnyakov), 커러너킵(I.I.Koronokov)등이 있고, 러신⁷⁵⁾은 1921-1940년 사이에 몽골이 코민테른으로부터 어떠한 긍정적이거나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는지 대해서 썼다.

올름지엵⁷⁶⁾은 몽골에 대한 연구자들이 상트페테르부르크(St.Petersburg) 대학교를 살펴볼 때 20세기 일찍이 몽골 역사를 연구한 러시아의 연구자들에 의한 공헌을 종합하여 결론을 내렸다. 걸만⁷⁷⁾은 1950-1990년대의 유럽과 미국학자들에 의한 몽골에 대한 연구발전을 서술하였다.

미국의 연구자들로는, 라티머르⁷⁸⁾가 21세기 혁명에서 일어난 내부 상황을 실질적으로 해석했고, 역사의 이익,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교육을 보여주었으며 또는 소련의 위성국이라는 개념을 바꾸어서 쓴 것

(Москва, 1963), A.A.Osipov, "Foreign policy of the MNP", (Moscow, 1963).

70) М.С. Капица, М.С. Иваненко, "Дружба, завоеванная в борьбе /советско-монгольские отношения/, (Москва, 1965), M.S.Kapitsa, M.S.Ivanenko, "Friendship, won from struggles /Soviet-Mongolian relations/", (Moscow, 1965).

71) Л.М. Гатауллиная, "Монгольская Народная Республика в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м содружестве", (Москва, 1969), L.M.Gatallina, "Mongolian National Republic in the socialist commonwealth", (Moscow, 1969).

72) Г.С.Яскина, "Монголия: смена модели развития политические и экономические реформы", (Москва, 1994), G.S.Yaskina, "Mongolia: a change in the development model political and economic reforms", (Moscow, 1994).

73) В.В. Грайворонский, Современное аратство Монголии: проблемы социального развитие (1980-1995гг), (Москва, 1996), V.V.Graivoronskii, "Modern Christians of Mongolia: problems of social development during 1980-1995", (Moscow, 1996).

74) Е.М. Даревская, "Три портрета-три судьбы /исторические очерки/", (Москва, 1997), I.M.Darevskaya, "Three portraits-three fates /historical essays/", (Moscow, 1997).

75) С.К.Рощин. "Политическая история Монголии: 1921-1940", (Москва, 1998), S.K.Roshin, "Political history of Mongolia during 1921-1940", (Moscow, 1998).

76) D.B.Ulimjiev, "Orosin Mongol sudlal, 19-r zuuni 2-r hagas 20-r zuuni ehen ue", Mongolch erdemdtin Peterburgin ded surguuli, "Russian 'Mongol studies', the second half of the 19th century and the early 20th century", Mongolian scientists St.Petersburgs Univ, (Moscow, 1998).

77) M.I.Gol'man, "Mongol sudlal urnudud", "Mongolian studies in the West", (Moscow, 1999).

78) O.Lattimore, "Nomads and Commissars: Mongolia", (New York, 1962).

은 그가 그 당시에 처한 몽골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로웬⁷⁹⁾은 1900-1978년 사이의 시기에 관하여 서술할 때 1921년의 혁명이 몽골인의 생활의 거의 모든 면을 보여주려고 시도한 아주 재미있는 내용을 담은 책이다. 또는 두 번째 작품에서는 사회주의에서의 새로운 사람으로 성장할 목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면에 관해서도 서술하였다.

절지 멜비⁸⁰⁾가 1940년부터 스탈린(Stalin)이 사망하는 마지막 날까지 몽골에 대해 어떠한 정책을 다루었고 어떠한 의존 관계가 있었는지 대해 두 부의 작품을 집필하였다.

몽골의 새로운 시대 대한 역사 연구들 중에서 미국 프리스턴 대학교(Prestone University, US)에서 출판⁸¹⁾했던 몽골, 미국, 영국, 일본, 러시아, 대만 연구자들의 쓴 내용이 들어가 있는 몽골에 대한 연구 발전의 결론과 몽골 독립을 위한 투쟁, 발전 등을 국제적이고도 지정학적인 입장에서 관찰하였다.

영국 연구자들 중에서 바오텐⁸²⁾은 몽골의 이익과 성공을 인정하고 내부생활은 소련의 모델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알란 산텔스⁸³⁾가 20세기 몽골의 정책, 경제 및 사회발전에 대해 실질적인 분석을 하였다.

프랑스의 연구자들 중에서 스테류핀⁸⁴⁾은 몽골의 운명이 소련과의 관계에서 시작한 이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서술했고 랙란드⁸⁵⁾는 몽골의 선택한 길을 봉건제도부터 사회주의까지 일어난 상황으로 설명했

79) R.Rupen, "Mongols of the Twentieth century", *Bloomington*, (New York, 1964).
R.Rupen, "How Mongolia is really ruled. A political history of the MPR 1900-1978", (California, 1979).

80) G.Murphy, "The economy development of outer Mongolian economy in resent times", *Ann Arbor, Michigan University Microfilms*, (New York, 1957), G.Murphy, "Soviet Mongolia", *A study of the oldest political satellite*, (Berkeley LA, 1966).

81) *Mongolia in the Twentieth Century. Landlocked Cosmopolitan. Edited by Stephan Kotkin and Bruce A.Elliman, Armonk.* (New York, London, 1999).

82) Ch.Bawden, "Modern history of Mongolia", (London, 1968).

83) Alan.J.K.Sanders, "Mongolia: Politics, Economics and Society", (London, 1987).

84) A.Stolupine, "La Mongolie entre Moscou et Pekin", (Paris, 1971), *L.Bat-Ochir; 2000년에 몽골어 번역.*

85) J.Legrand, "Le Choix Mongol de la Fegdalife en Socialisme", (Paris, 1975),
(*Collection of articles published between 1973 and 2011. French, English, Russian, www.inalco.academia.edu/JacquesLegrand*).

다.

중국의 연구자들도 외몽골에 관한 연구를 하였지만 몽골연구자들은 중국 측이 백퍼센트 중국의 입장에만 입각하여 썼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아 출판을 금지했던 시버쥬벤⁸⁶⁾의 연구를 언급할 수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몽골학 역사학자 이평래⁸⁷⁾가 있는데 그는 1911년의 민족의 자유를 위한 혁명 상황을 다시금 되 살펴보고 민족통합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하이산(Khaisan)의 생애와 행적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그의 연구에서는 또한 서방 및 동방 학자들의 연구를 간략하고도 정확하게 언급하기도 했다.

이처럼 몽골의 독립역사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본다면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다.

1911년부터 1946년까지의 내용은 주로 소련과 몽골의 관계에 관한 내용 혹은 두 나라의 정책, 경제 및 문화교육에 등 분야에 대한 발전을 서술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소련이 마르크스-레닌주의적 방법론을 이용한 결과로 몽골이 겪은 문제와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정착한 후에 진행된 연구들은 몽골의 독립과 몽골인 민중화국 시대에 관한 연구를 기타 나라의 입장에서만 살펴본 이유로 비판을 받아 몽골의 입장에서부터 출발하여 역사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독립운동이 일어난 원인과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실질적으로 경험한 몽골인의 입장에서 기록한 자료들을 1990년 후 되찾아 옛 문자(위구르)에서 키릴문자로 옮겨 독립운동의 형태와 방식, 빈도 등을 포함한 분쟁 전반에 관한 연구들이 출판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동시에 상대적으로 행위자의 측면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존재한다. 몽골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이나 가치를 설명하는 것을 역사를 경험해 본 지도자들에 관한 논의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당시의 인식이나 이해방식이 소련의 영향을 받아 한쪽 시각에서만 쓰여져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압도당한 느낌이 드는 책들을 볼 수 있다.

86) Wai Menggu du li nei mu/ Shi Bo zhu bian, Beijing: Ren min Zhongguo chubanshe, 1993, (外蒙古独立内幕 / 师博主编, 北京: 人民中国出版社, 1993), *Recent History of Outer Mongolia*, (Taipei, 1965),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www.catalogue.nla.gov.au/Record/6491294 Asian Collection Reading Room).

87) 이평래, 『1911년 몽골 독립과 하이산』,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1년 9월.

이처럼 일반적인 유형과 단계를 밝히고자 하는 초이발상의 몽골 독립 운동에 있어서 어떠한 메커니즘과 방식으로 작동하였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우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몽골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지 또한, 몽골과 소련의 외교 정책 단계에서 보이는 몽골의 다양한 형태와 시위 및 소련에 대한 외교정책 양상의 원인에 대하여 명료한 설명을 하자지 못하였음을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몽골 독립선언 이후, 냉전기에 국제 정세의 변화로 인해 중국 및 소련의 협력전략을 분석해 몽골 안보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 연구들이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본다면 기존 연구가 개별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는 몽골의 독립운동의 일반적인 속성을 밝혀내고 있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존연구의 틀만으로는 실제 개별 사례에서 나타나는 몽골 독립에 대한 편차를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이하의 논의에서는 기존 연구들 속에서 나타나는 몽골 독립을 1946년 특성으로 종합하여 실제 사례에 결부시켜 봄으로써 몽골 독립에 대한 소련의 인식이 몽골 측에게는 어떠한 영향으로 존재하고 있었는지를 밝혀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몽골 독립 이후 생성된 소련과의 종속 관계의 원인을 1946년에 가져다준 영향을 밝히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더불어 몽골 독립에 관한 사례들 통해 양국 간에 발생한 몽골의 안보, 정치, 경제 및 사회 상황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밝히면서 양국의 외교 정책의 입장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시사할 것이며, 더욱이는 그 당시 지도자인 초이발상과 스탈린의 몽골에 대한 정책 목적을 서술하고 1946년에 생성된 소련에 대한 몽골의 종속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4. 연구 시기 및 사례

몽골의 독립을 이해하려면 1911년 12월 28일부터 살펴보는 것은 필수이며 민족통합운동의 뿌리와 새로운 국가를 건설한 벡드칸 정부의 내부 권력투쟁, 강대국의 힘겨루기에 좌우된 몽골의 국제적 지위, 민족 독립의 꿈을 안고 외몽골이 보았던 내몽골의 운명 등 이는 20세기 전후 몽골 민족주의의 부상과 좌절 그리고 몽골을 둘러싼 국제 관계의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는 1915년의 카흐타조약과 1921년에 11만 명의 라마 승려가 700여개의 수도원에서 살게 되어 군사세력과 교육이 약해진 사례들을 통하여 그러한 국가 발전을 멈추게 한 국내적 문제해결을 1924년 11월에 들어와 구소련의 전면적인 지원에 힘입어 가능해지게 하고 인민혁명당으로 이름을 바꾸어 완전한 독립을 선포함으로써 세계에서 두 번째로 되는 사회주의 국가로 된 상황들이 있기에 꼭 포함해야 할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946년에 몽골이 독립 국가로써 소련을 선택한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위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차례로 일어난 20여 년 동안에 모든 역사를 시기별로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몽골의 독립운동이 시작하고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1911년부터 논의를 시작하겠다. 1924년까지 보는 이유는 소련이 몽골의 주변국으로서 많은 분야에 걸쳐 직접적인 역할을 했으며, 그 시기에 발생한 영향의 결과로서의 구체화 된 모습이 바로 1946년에 최종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몽골의 독립을 지도한 초이발상과 스탈린의 관계를 사례에 기초한 서술을 중심으로 관찰하여 소련에 종속하게 된 원인을 1946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5. 연구방법

20세기 첫 50년 동안의 몽골 외교 정책의 선택원인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층적이고도 구조적인 원인과 몽골의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 의도, 그리고 위 두 가지 요점을 매개로한 초이발상의 지도자로서의 인식과 가치가 어떠한 상호작용을 이루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몽골에서의 외교 정책이란 ‘독립을 얻기 위한 정책 결정과정의 기본개념’이었으며, 국가이익의 최선을 이루어 내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했다. 소련과의 외교 관계 수립은 몽골의 방향성을 명확히 나타내었고,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 냈으며, 그 파급효과는 대내외적으로 막강하였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서 결과의 객관적인 실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외교 정책의 분석수준은 국가가 어떤 전략적 이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렸는지를 단계별로 나타내줄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다.

분석수준(level of analysis)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로는, 개인변수(individual level)이다. 집단의 최고 정책결정자인 초이발상의 심리적 상태와 삶 속에서의 경험으로 인하여 형성된 여러 가지 요소, 정치적 성향 및 세계관 등을 종합하여 외교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미시적 접근법이다. 두 번째로는, 집단변수(group level)이다. 한 개인에 의해 정책의 노선이 좌우되는 경우는 드물며 오히려 다수의 책임자들에(Revolutionary Seven: Soli Danzan, Dogsom Bodoo, Darijav Losol, Damdin Sukhbaatar, Damba Chagdarjav, Dansraibilig Dogsom and Khorloogiin Choibalsan) 의하여 이해관계와 정책의 역량을 종합하여 결정하게 된다. 이 전제를 바탕으로, 집단의 구성을 파악하고 내부에 존재하는 문화 및 제도와 같은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분석하게 된다. 세 번째로는, 구조변수(system level)이다. 외교 정책에서의 정책의 결정 과정이 개인과 집단의 영향보다는 국제사회에 존재하는 국제 정치적 구조(특히 몽골의 지리적 위치 특성을 놓고 볼 때는 당연히 소련 및 중국)에

의해 더욱 좌우된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한다. 국가가 내릴 수 있는 결정 역시 표면상으로는 제약이 없어 보이나 그 배경에는 국제 환경적 요인과 그에 따른 이해관계로 인한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석수준을 통합하여 설명할 수 있는 사례를 들어 그 가능성과 조건을 설명해보려고 한다. 연구의 과정은 역사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모든 것을 가능한 사실 위주로만 서술하되, 또한 1946년과 연관되는 가능한 모든 정보를 밝히고 이로써 모여진 문헌의 내용을 통하여 세 가지 분석수준이 한 몸의 지체처럼 모두 요구되는지에 착안점을 집중하겠다.

1946년 혹은 초이발상과 스탈린의 몽골에 대한 정책들과 관련된 자료집은 국내외 도서관 및 정부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문헌을 모아 둔 몽골 외교문서 자료들을 분석할 것이다. 당시 몽골 지도자들의 회기록(memoir), 일기, 편지 및 계약서 등 몽골 독립에 관련된 역사적 문헌들을 훑어볼 것이다. 이로써 본 연구를 몽골이 소련에 관한 연구에서 포착되는 국내 특징을 세밀하게 보여 줄 수 있는 계기로 기대하는 바이다.

몽골의 1946년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당시 국민과 국민들이 사회에 기대, 독립을 유지하려는 결심, 소련과의 관계에서 존재하는 특성 및 그 영향력과 국내적 지도자들 간 갈등의 존재 양상과 여부에 따라 초이발상의 문제해결, 변화, 경험 및 결정들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정리하고자 한다. 몽골독립역사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추가 자료로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문헌연구를 가능하면 몽골어와 러시아어 원문으로 된 자료들을 번역해 오늘날의 몽골 사회의 모습과 인식 그리고 러시아의 역사적 맥락에서의 외교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본다면 본 역사 시기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우선 1946년 이전에 형성된 몽골 독립운동의 양상을 1911년부터 1946년까지 살펴보고, 몽골의 전략과 소련 및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독립을 이루게 되는 과정을 서술하려고 한다. 3장에서는 1946년을 중심으로 당시 몽골 지도자들과

초이발상의 정책전략과 그에 상응한 소련 및 중국이 표출한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4장에서는 그 당시 세계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것들은 몽골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결론 부분에서는 몽골 독립의 결정요인과 배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연구가 갖는 이론적 및 정책적 함의에 대해 평가하려고 한다.

II. 1911년부터 1946년까지 몽골의 외교 정책

1. 몽골의 독립 그리고 지도자들의 전략

1911년 당시 몽골의 경제 상황은 거의 바닥이 드러난 상태였고 대다수의 몽골인은 중국 상인들에게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었다. 중국에서 신해혁명이 발발하여 청나라가 무너지게 된 기회를 맞이하여 몽골은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⁸⁸⁾ 몽골 지도자들과 당시 고위층이었던 라마들을 비롯한 모든 사회 계층의 독립에 대한 욕구가 일시에 분출되었기에 독립운동이 성공하였던 것이었다.

몽골의 불교 지도자 역할을 하던 벡드칸이 지도자적 지위에 있으면서, 동시에 관료이기도 했던 그는 자브장담바 호탁트(Jebtsundamba Khutagta)라는 칭호를 누리며 몽골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로써 그는 몽골의 독립을 주도하는 지도자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⁸⁹⁾ 벡드칸은 민족주의적 성향을 보였고, 분열된 몽골 집권층의 힘을 모음으로 하여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이끌어 갈 수 있었다. 몽골 국민들에 대한 그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벡드칸이 펼치는 독립 외교 및 몽골의 민족 정체성 강화 운동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에는 충분하였다. 그를 비롯한 정부 지도자들이 국가의 존폐 문제에 대해 목

88) O.Batsaikhan, (Ulaanbaatar, 2009), p.145.

89) Alan.J.K.Sanders, (London, 2010), p.646.

숨을 건 강력한 행동들을 보였기 때문에 중화민국 신정부는 몽골에 대한 점령 정책을 포기하게 되었다.

1911년 12월 29일 몽골이 독립을 선언하게 되었고, 국가 이름을 벽드칸의 몽골(Bogd Khaant Mongol Uls)이라고 칭하고, 몽골의 수도를 후레(Khuree, 현재 수도인 올란바타르)로 정하였다. 국가의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외교부, 내무부, 재무부, 법무부, 국방부 등의 부서로 구성된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었고, 각각 40-50명의 직원을 고용하였다.⁹⁰⁾ 이때부터 몽골은 외교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갈 수 있게 되었고, 독자적인 외교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즉, 1911년은 몽골 역사상 최초의 독립 정부를 수립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가 큰 것이다.

<그림 2-1> 벽드칸이 왕이 되는 날⁹¹⁾



독립선언 후 벽드칸 정부가 수행해야 했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독립 이전부터 존재했었던 몽골의 바르가(Barga), 허흐노르

90) S.Damdinsuren, (Ulaanbaatar, 2010), pp.60-66.

91) 1911년 12월 29일, 아침 11시40분의 모습을 화가 바트자르갈 체엔척절 (Batjargal Tseyentsogzol) 2015년 5월 5일에 그렸다. 당시 그의 주변에는 약 2,500개의 수도원과 200,000명 정도 라마 수도승들이 있었으며 몽골인들은 그를 지지하고 성원하였다.

(KhokhLake), 알라사이(Alsai), 다리강가(Darigang), 오리양하이(Urianhai)등 지역을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고, 중국 및 기타 외국으로부터 독립국 지위를 승인받는 것이었다.⁹²⁾ 1911년 독립선언 후 다수의 내몽골 왕족들이 후레에 와서 신정부의 요직에 기용되었는데, 이들은 외몽골과 내몽골 통합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다.⁹³⁾

몽골의 첫 독립선언은 비록 전체 몽골을 포괄하지 못한 할하 지역에 한정된 불완전한 독립이었지만, 몽골의 자력에 의해 실현된 최초의 독립 국가 건설이라는 점에서 몽골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역사적 사건이었다.

몽골은 외세를 몰아냄으로써 오랫동안 청국의 통치에 억압되었던 민족의 역량을 힘껏 발휘하여 몽골 자체의 발전의 길을 걸으며 몽골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게 되었고, 대외적으로도 청국에 의하여 강요된 고립 및 폐쇄 상태를 벗어나 외부 세계와 접촉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발전의 길, 즉 낙후한 국가를 근대화시켜 진정한 민족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길이 열게 된 것이다.

<그림 2-2> 1910년까지의 몽골의 모습-만조의지도



92) O.Batsaikhan, (Ulaanbaatar, 2009), pp.160-167.

93) Thomas Ewing, "Revolution on the Chinese Frontier: Outer Mongolia in 1911", *Journal of Asian history*, Vol.12, (Bloomington, 1978), p.104.

현재 몽골인 학자들이 1911년 독립선언을 ‘1911년 민족 혁명’ 또는 ‘몽골족 부흥의 시작’이라고 평가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몽골은 외부와 협정을 맺기 위해 총리 한드도르지(Khanddorj)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2개월 정도 머무르면서 총 9개 국가 대사관을 찾아다니며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때 영국과 프랑스는 “대사가 병환 중”이라고 접견을 회피하고, 네덜란드는 “몽골의 독립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들은 바 없음”이라는 이유로 몽골과의 우호협정 체결을 거절하였다. 일본은 “영·불 대사가 회견한다면 만나겠다.”라고 회답하며 회담조차도 회피했다. 또한 독일, 미국, 벨기에,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의 대사관은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⁹⁴⁾ 몽골의 독립을 인정해 준 유일한 나라는 티베트(Tibet)만이였다.⁹⁵⁾

이를 통해, 몽골은 인접국들뿐만 아니라 세계상의 여러 나라들과의 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적극적으로 외교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에 노력을 가하였다. 그러나 주변 국가들의 침략 의도 및 위협은 몽골 신정부에 독립 유지에 대한 불안감을 심어주었고, 자주적 외교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되게 하였다.

그러한 상황을 파악한 몽골에 있어서는 균형(balance)이라는 정치체제적 개념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의존하고 있던 강대국이 약해지기 시작할 경우 몽골의 독립과 안보가 위협에 처하게 될 수 있기에 동맹이 필요하였다.

몽골은 심지어 자신과 이웃한 두 나라의 전략에 관하여서도 1913년 중국과 소련 간에 체결된 비밀 협의를 몽골은 불과 3일 전에야 해당 사실을 처음으로 통보받았다. 당연히, 몽골은 이에 대응해 자신의 참여 없이는 결국 독립이 무산되고 자치국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하였다.

94) Mongolian National Central Archive, F1, No1, Ind, No74, “National Resource Fellowship:1989-1990”, p.64.

95) Mongolian Central Archive, “National Resource Fellowship:1989-1990”, p.67.

<그림 2-3>: 독립에 대한 편지⁹⁶⁾



1915년 카흐타조약으로 삼국 간의 견해 차이가 뚜렷해졌다. 몽골 독립 문제를 둘러싼 조약 체결을 정리하면, 몽골의 입장은 ‘모든 몽골족의 통합과 몽골족의 독립 요구’, 중국의 입장은 ‘몽골 독립 취소-내몽골과 외몽골을 중국의 성으로 편입’, 러시아의 입장은 ‘형식상 외몽골에 대한 중국의 종주권을 인정하나, 정치적 및 경제적으로는 독립적 지위를 유지하게 하는 희망’이었다.

이 협정 결과에 대해 몽골의 정치인이자 학자인 바트바야르(B.Batbayar)는 “이긴(Win) 국가는 러시아, 실망한(Disappoint) 국가는 중국, 패한(Lost) 국가는 몽골이었다.”라고 주장하였다.⁹⁷⁾ 이에 대해 체덴-이시(B.Tseden-ish)는 “1913년 카흐타 협정은 침략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과거 몽골이 만주의 식민지였다면, 이 협정을 통해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의 식민지로 되었다”⁹⁸⁾라고 주장하였다.

96) 9개 국가 대사관에 전달한 ‘독립에 대한 편지’, (상트페테르부르크, 1912년).

97) B.Baabar, (Ulaanbaatar, 1996), p.104.

98) B.Tseden-ish, "History of Mongolian border formation", (Ulaanbaatar, 2011), p.118.

몽골 전 지역을 통일된 국가로 통합하고자 하였던 몽골 민족주의의 오랜 목표는 결국 실현되지 못하였다. 내몽골은 중국의 지배 아래 남았고, 외몽골은 자치국으로 인정받았다. 몽골은 통합을 이루지 못한 채, 내몽골은 조약에 의하여 외몽골에서 제외되었다.

몽골은 1917년 10월 혁명과 소비에트 정권의 탄생을 통하여 볼셰비키 당(Bolshevik party)에 관한 소식을 쉽게 얻을 수 있었다. 몽골에 속하였던 탄누-우랑하이(Tannu-Uriankhai) 지역에서 소련 공산당이 조종한 노동자 반란이 일어났다.⁹⁹⁾ 이때 반란에 동참한 사람들은 자주 몽골에 와서 10월 혁명에 관한 소식을 전파해 후레에 살고 있던 러시아 교민들의 공황과 분열을 초래하였다. 일부는 소비에트 정부로 기울어진 노동자와 하급관리였고, 다른 부류는 소비에트 정부를 반대하는 상인과 전직 관료들이었다. 러시아에서 발생한 혁명으로 야기된 국제사회의 세력 경쟁 양상은 몽골 인민의 정치적인 계몽과 민족의식의 자아 각성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자치국이었던 몽골이 다시 중국의 보호국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성명은 후레 정부에 대해 즉각적인 효과를 발생시키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몽골 민족주의자들에게 매우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외세로부터 해탈하여 국가의 해방을 쟁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목민 비밀 조직에게는 그야말로 일종의 청량제와 같은 기능을 했다. 성명의 내용에 대해 비밀 조직 내에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몽골 민족주의자들과 지식 계층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대체적으로 러시아 혁명은 몽골에서 몽골 민족주의자들의 환영을 받았다. 비밀 조직은 러시아가 몽골 문제를 국제화해 주기를 희망하였다. 동시에 소련은 몽골에 대한 제정 러시아의 모든 식민지주의 정책을 폐지하고 몽골 인민의 민족독립에의 염원을 존중한다고 표명했으며, 평등의 입장에서 새로운 외교 관계를 건립할 것을 희망하였다.

1918년 4월에 후레 정부는 제정 러시아 영사의 청원을 받아들여 마침 후레에서 집회를 열어 민주 자치 조직을 선출하고 있었던 노동자와 하급관리들을 쫓아냈다.¹⁰⁰⁾

99) L.Dendev, (Ulaanbaatar, 1934), p.24.

1919년 3월에 소련 정부는 몽골 자치정부 및 몽골 인민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특별 성명을 발표하였다. “몽골은 자유 국가로서 과거에 무력과 재력으로 몽골을 장악하여 몽골 인민을 착취하던 러시아의 고문, 제정 황제의 영사와 은행가들을 모두 쫓아내야 한다. 국내의 모든 권리와 사법권은 몽골 인민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어떠한 외국인도 몽골의 내정을 간섭할 권리가 없다. 러시아와 몽골 협정은 취소되었으며, 독립 국가로서의 몽골은 베이징, 혹은 어느 나라의 어떤 구속도 받지 않게 되었다. 몽골은 직접 다른 민족과 교섭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 이를 위해 소비에트 러시아 정부는 몽골 인민에게 즉시 러시아 인민과 외교 관계를 건립하고, 독립적인 몽골 인민 대표를 파견하여 홍군과 협상할 것을 건의하는 바이다.

한편, 일부 편협한 생각을 가진 몽골 왕족과 라마들은 자국에서 쫓겨 오갈 데 없는 운게른(Baron Ungern) 일당과 결탁해 평화롭게 지내던 유목민을 모집하여 운게른 부대에 가입시켰다. 하지만 운게른은 절대 몽골의 독립을 회복시키려 하지 않았으며, 우리 당은 이러한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 그리하여 인민군을 건립해 운게른 남작과 중국 군벌에 대항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힘을 다하여 몽골을 해방하고 인민정권을 건립할 것이다.”¹⁰¹⁾

결국, 1919년 8월 18일에 중국 북서부 국경 수비 사령관이자 북양 정부 참모총장이었던 쉬수정(Xu Shuzheng) 장군이 4,000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와서 10월부터 벡드 게겐(Bogd Gegeen)과 그의 행정부에 몽골의 자치를 취소하고 다시 중국이 몽골을 통치해 줄 것을 청원하는 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였다. 몽골 측의 많은 저항이 있었지만 결국 1919년 11월 17일에 몽골 자치정부가 공식적으로 취소되었다.¹⁰²⁾

이러한 상황을 대항하여 후일 몽골인민당의 기초가 된 두 혁명 그룹 ‘영사관 언덕 그룹’과 ‘동 후레 그룹’이 형성되기 시작했다.¹⁰³⁾

100) Sh.Sandag, (Ulaanbaatar, 1971), p.248.

101) Sh.Sandag, (Ulaanbaatar, 1971), p.252.

102) B.Lkhagvasuren, (Ulaanbaatar, 1995), p.41.

103) Ivan Sablin, “Governing Post- Imperial Siberia and Mongolia, 1911-1924: Buddhism, Socialism and nationalism in state and autonomy building”, (Moscow, 2016), p.120.

1919년 11월 22일에는 “1921년 혁명의 일곱 명의 지도자들” (The Frontier Seven of the People’s Revolution of 1921)이 ‘몽골혁명 세력의 역사’를 시작했다.

<그림 2-4> 일곱 명의 지도자들¹⁰⁴⁾



1920년 5월 코민테른 극동 서기국 몽골-티베트 방면의 전권 대표 보리소브(Borisov)가 후레를 방문하여 몽골 비밀 집단과 코민테른 간의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였다.¹⁰⁵⁾ 1920년 6월 25일 두 그룹이 정식 합병하여 연석회의를 소집해 대표를 파견하고 소비에트에 지원을 요청할 것을 결의했으며 초이발상과 단잔을 대표로 정하였다.¹⁰⁶⁾

104) 위 첫 사진 착다르잡(Damba Chagdarjav, 1880-1922년8월31일), 위 가운데 버더(Dogsom Bodoo, 1895년7월1일-1922년8월31일), 3번째 사진 초이발상(1895-1952년1월26일), 밑 첫 사진 러설(Darizav Losol, 1890년4월15일-1940년7월25일), 밑 가운데 단잔(1885-1924), 밑 6번째 사진 수흐바토르(1893년2월2일-1922년2월20일), 7번째 따로 있는 사진 덕섬(Dansranbileg Dogsom, 1884-1941년7월27일).

105) Bruce Elleman, (New York, 1997), p.92.

106) A short history of the Mongolian revolution, Vol4, (Ulaanbaatar, 2002), p.126.

그런데 1920년 초에 코민테른은 레닌의 제시에 따라 2단계에 걸친 “피압박민족 해방론”을 공식적인 노선으로 채택하였으므로 몽골에서도 제1단계로 “부르주아 민족주의 혁명”을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몽골의 독립을 되찾고자 했던 수흐바타르와 몽골의 모든 영역에 걸친 급진적 혁명을 추구한 초이발상 모두 지원할만한 대상이었다. 그래서 몽골의 혁명 조직들은 레닌 정부의 지원을 얻기 위해 1920년 겨울에 수흐바타르와 단잔이 비밀 집단의 위임을 받아들여 카흐타로 가서¹⁰⁷⁾ 러시아의 상황을 파악하고, 레닌을 만나 정치 조직을 건립해 소련 정부의 대표와 원조에 관한 문제를 상의했다.¹⁰⁸⁾

<그림 2-5> 수흐바타르가 레닌을 만나는 순간¹⁰⁹⁾



107) O.Batsaikhan, (Ulaanbaatar, 2013), p.204.

108) 역사가 푸레브(O. Purev)는 말했다: "1921 년 11 월 5 일, 레닌은 몽골 대표단을 만났다.“ 고 레닌의 비서 바티에바(L.A.Fatieva-Л.А.Фатиева)는 탁상 달력에 메모를 했다는 자료가 있다. 그 대표 팀 안에 단잔(Danzan)과 총 8명이 갔으며 계약 사인에 수흐바타르(Sukhbaatar)의 서명이 있었다. 모스크바에 있는 그들 8명의 사진을 영국인 사진작가가 찍었던 사진을 1970년대 영국에서 발견하였다. 2010년8월14일 공표 www.borolzoi.blogmn.net

109) 쟡게저히어(Adyagiin Sengetsohio, 1917-1986)가 1920년 11월 5일을 1967년에 그렸다.

신생한 레닌 정부는 중화민국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몽골의 독립에 대해 초기에는 호의적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일본이 아시아 대륙에서 지배권을 확장하려고 내몽골과 외몽골을 포함한 ‘범 몽골 국가’ 건설을 표방하며 러시아 붉은 군대에 쫓겨 시베리아와 만주로 후퇴해왔던 백계 러시아인들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일본은 그들 중 제정 러시아의 장군이며 왕정복고를 추구하였던 운게른과 손을 잡고 1920년 10월 1일에 후레에 진입하였다. 운게른은 “내몽골과 외몽골의 통일과 동·서몽골의 모든 부족들이 대몽골의 품속에 모이기 위한 운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¹¹⁰⁾ 라고 공언까지 하였다. 운게른의 지휘 하에 6,000명으로 구성된 백계 러시아군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중국의 북양 정부군과 러시아 붉은 군대를 물리치고 후레를 점령하여 벽드칸의 권위를 복원시키는 등 왕정복고를 성사시켰다. 그리하여 레닌 정부는 다시금 외몽골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¹¹¹⁾

몽골인민당의 수흐바타르는 1921년 3월 1일에 카흐타에서 인민당 제1차 대표 회의¹¹²⁾를 개최하여 몽골 최초의 정당을 탄생시켰다. 이 회의에서 수흐바타르는 몽골의 국제적 지위를 분석하고, 소비에트 러시아의 상황과 기타 각 나라에서 인민의 평화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진행되는 투쟁을 소개하였다. 또한, 계속하여 소비에트 러시아와 협력하여 백군 잔당 운게른과 몽골 내 봉건 세력과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 밖에도, 모든 유격대를 연합하여 지도 기구인 인민혁명 사령부를 건립하고, 수흐바타르가 인민군 총사령관직을 맡았다. 몽골인민당 제1차 대표 대회는 그 자체로 지대한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혁명 정당이 건립되었고, 인민당을 조직적인 무장봉기로 이끌었으며, 몽골 민족의 독립을 위해 제국주의 압박을 반대하는 해방 투

110) O.Batsaikhan, (Ulaanbaatar, 2013), p.208.

111) 극단적인 반혁명 공보정치로 많은 인명을 살해하여 “미친 남작” 혹은 “피의 남작”으로 불리었던 운게른은 후레에서 쫓겨나 1921년 8월 20일에 체포된 후 노보시비르스크에서 동년 9월에 처형되었다.

112) Gerard M. Fritters, “Outer Mongolia and it's International Position”, (London, 1949), p.148.

쟁을 전개하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몽골이 공산주의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첫걸음을 완성한 것이었다.

따라서 수흐바타르와 초이발상은 이르쿠츠크에서 자신들의 집단을 ‘몽골인민당’으로 명명하고 7명으로 구성된 임시정부를 1921년 3월 13일에 수립하여 10,000명 정도 되는 규모의 소련군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몽골 파견부대의 수장 되었다. 또한, 1921년 4월 28일에 몽골 변경에 주둔하며 출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던 러시아 붉은 군대는 몽골 영토로 진입하여 몽골 공산당 유격대와 회합하여 몽골 수도인 후레로 진격하기 시작하였다. 1921년 7월 6일에 선봉 부대가 후레에 도착했으며, 1921년 7월 8일에 임시 인민 정부와 당 중앙위원회가 주력 부대와 함께 후레에 입성하였다.

후레를 접수한 후 인민 임시정부 수반인 버더(Bodo), 몽골인민당 중앙위원회 의장 단잔(Danzan) 및 인민 의용군 장군 수흐바타르 등은 벡드칸 황제가 머물던 궁전으로 찾아가 그를 알현하고, 시대 변화에 맞추어 인민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득하고, 벡드칸을 황제로 삼아 몽골 라마 불교의 상징인 자나바자르(Zanabazar, Undur Gegeen)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고, 각 부처의 업무를 임시정부로 이양할 것을 요구하자 벡드칸 황제가 그대로 승인하였다. 그리하여 1921년 7월 10일에 정권이 양식을 거행하고 인민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수흐바타르는 인민 정부 수립 후 1921년 7월 10일에 국방부 장관에 취임했다. 그리고 1921년 7월 11일에 몽골혁명의 아버지라 불리는 수흐바타르는 공산주의 군대와 연합하여 중국군을 외몽골 지역에서 몰아냈다. 이러한 민족해방혁명을 통하여 몽골은 소련의 원조를 받아 독립 국가를 수립하였고 다시금 벡드칸을 몽골인민국의 대 칸으로(Great King) 추대하였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정에서 소련에서 훈련한 사람들을 활용하여 친소정부를 탄생시킨 과정에 대해 섯튼-왓슨(Setton-Wattson)이 제시한 화차정부론(Baggage Train Government)을 몽골에 적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즉, 민족주의자들과 “진정한 연합(Genuine Coalition)”을 형성하여 친소세력이 국내에서 정착 할 수

있도록 한 뒤에 민족주의자들과 제거하는 것이었다. 의문에 싸인 수흐 바타르의 사망(1922년2월22일 사망, 향년29세)과 복드칸의 별세(1924년5월20일 사망)를 바로 그 전형적인 예로 꼽을 수 있다.¹¹³⁾

복드칸(몽골의 마지막 왕)이 사망하자 더는 그 전생을 인정하지 않고 제3차 대회에서 ‘몽골인민혁명(MPRP)’으로 개칭하고, 1924년 11월 8일에서 26일까지 열린 대후랄(Ikh Khural-인민 최고 회의-*People's Great Meeting*)에서 **1924년 11월 26일에 공화제로 고쳐 국호를 ‘몽골인민공화국’으로 정하고**, 봉건-신권 잔재의 일소, 재산 사유권 금지 등을 규정한 최초의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구소련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다. 이를 싯튼-왓슨의 ‘화차정 부론’에 따르면 단일주체제가 수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1924년 소련의 강요로 사회주의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사회주의 국가인 몽골인민공화국을 설립하였다. 따라서 몽골은 봉건체제에서 소련식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되었다.

이때부터 몽골은 소련의 위성국가로서 새로운 형태의 식민 지배 하에 놓이게 되었으며,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소련식 공산주의 체제가 적용되는 공산당 일당독재가 강화되었고, 공산주의만이 유일한 국가 이데올로기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의 체제를 도입한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몽골에서는 소비에트 강화정책으로 인하여 대규모의 인권유린이 발생하였다.¹¹⁴⁾

1924-1928년에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담바도르지(Dambdorj)는 혁명적이며 선진적인 정책을 차례로 내놓았지만, 내몽골 인민혁명당을 원조한 점과 사회주의 정책을 고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코민테른과 소련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결국 좌파에 의해 해임되어 모스크바로 추방되었다.

113) O.Batsaikhan, (Ulaanbaatar, 2008), p.76.

114) B.Baabar, "History of Mongolia: From World Power to Soviet Satellite", (Cambridge: white horse press, 1999a), pp.309-317.

몽골의 혁명에 전력하면서 정부 고문과 몽골의 코민테른 대표까지 맡았던 부리야트 학자 치벤잠창노랍(Tseveen Jamtsannorov)은 민족주의자라는 이유로 바로 이 시기에 소련으로 소환되어 서형 당하였거나 혹은 옥사하였다.

우선 이 시기에 초이발상의 사회주의 정부는 소련의 공포정치를 그대로 답습하였다. 귀족계급과 불교 승려들의 반정부활동을 우려하여 이들을 학살하는 광범위한 탄압과 인권유린이 자행되었는데, 이때 학살된 이들은 몽골 전체 인구의 15%에 달하였다.¹¹⁵⁾ 이러한 인권유린 사건들은 1922년에 국무총리였던 버더를 비롯한 민족주의적 성향의 유력인사 15명이 총살됨으로써 시작되었고, 이후 1924년 민족주의적 성향의 군사령관 단잔의 총살로 이어졌다.¹¹⁶⁾ 혹독한 인권억압 사례로는 ‘버더 사건’(Bodoogiin khereg, 1922), ‘룸브 사건’(Lkhumbiin khereg, 1932-1933), ‘겐뎡(Peljidiin Genden)-데밋드(Gelegdorjiin Demid) 반공산주의 사건’ (1937), ‘아마르-롭상샤르브 사건’ (Amar Luvsansharav nariin khereg, 1939), ‘일본간첩단 사건’ (1939,1940,1941) 등이 있었다.¹¹⁷⁾ 그리고 ‘영정 함바 사건’ (Yonzon Hamba Luvsanhaimchig, 1937)도 당시 대다수의 라마 승려들을 근거 없는 죄목으로 학살한 사건 중 하나이다.

몽골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서기장 룸브가 연루된 사건은 1932년 12월 몽골의 내무부장 남스라이(D.Namsrai)와 소련의 고문 두브로프스키(Dubrovskii)가 소련을 방문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들은 소련에서 해

115) Tom Ginsburg, "Between Russia and China: Political Reform in Mongolia", *Asian Survey*, Vol.35, No.5, (1995), pp.459-471.

116) S.Tsedendamba, L.Lkhagwa, Sh.Soninbayar, E.Luwsanbaldan, R.Otgonbaatar, N.Amgalan (eds.) *"Mongolyn sum khiidiin towchoon"*, "Brief history of Mongolian Monasteries", (Ulaanbaatar, 2009), p.52.

117) С.Баатар, "Буриад зоныг залхаан цээрлүүлсэн нь", (Улаанбаатар, 2008), х.4. S.Baatar, "Buriatian's punishment", (Ulaanbaatar, 2008), p.4.

외정보 부서의 수장인 아르투조프(Artur Artuzov)를 비롯한 정보 분야의 사람들로부터 정치 사건들의 조작에 대한 조언을 받았다. 소련의 조언에 따라 그들은 롬브 사건을 조작하였는데, 몽골을 일본의 보호령으로 편입하려고 음모를 꾸민다는 혐의를 씌워 반혁명 단체의 주모자로 롬브를 기소하였다. 이와 같은 정치적 숙청으로 말미암아 이후에도 여러 차례의 큰 정치적 사건들이 발생하였다.¹¹⁸⁾ 또한, 1929년에 몽골에 파견된 코민테른(The Communist International)의 대표자 쿠추모프(Vladimir Kuchumov)가 시제(Zolbingiin Shijee), 바드라흐(Olziin Badrakh), 겹텡(Peljidiin Genden), 라아강(Losoliin Laagan) 등 몽골인 민혁명당 지도부에 비밀지시를 내렸으며, 이에 코민테른 몽골 지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숙청을 수행하였다.¹¹⁹⁾

코민테른이 내린 비밀지시에는 가축들의 국유화, 봉건세력들과 라마 승려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가장 공격적인 방법들을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¹²⁰⁾ 코민테른의 조사에 따르면, 몽골의 봉건 영주들은 전 인구의 4.1%에 달하였고, 가축의 45.1%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억압적인 조치의 결과로 봉건 영주들의 수는 1924년에 이르러 절반으로 줄었다. 코민테른에 의한 이러한 탄압 조치들은 1930년대 들어 더욱 심각하게 변하였다.¹²¹⁾ 코민테른의 지시에 따라 몽골인민혁명당은 1931년 중앙위원회 최고 간부회의 ‘제71호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에 기초하여 봉건 귀족, 부농과 라마 승려들의 재산을 압류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압류 조치는 전국적으로 여러 차례에

118) Цагаатгах ажлыг удирда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х улсын комиссын дэргэдэх улс төрийн талаар хэлмэгдэгсдийн судалгааны төв (희생자 명예회복을 조직하기 위한 국가위원회 소속 정치적 희생자 연구소),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эгсдийн намтрын товчоон(정치적 희생자들의 자서전), (Улаанбаатар, 2008), х.44, (Ulaanbaatar, 2008), p.44.

119) B.Baabar (1999a), pp.292-293.

120) 위의 책, p.293.

121) 위의 책, p.305.

걸쳐 취해졌으며, 이에 반대한 봉건 영주들과 라마 승려들은 코민테른의 엄격한 조치들을 막아내지 못하고 실패되었다.¹²²⁾

1929년부터 1932년까지는 몽골 정부는 극심한 종교 탄압과 사유 재산에 대한 몰수와 유목민에 대한 강제적인 집단화 등 급진적 사회주의 정책을 실행하면서 각지에서 반정부 폭동을 발발하게 하였다. 다른 말로는 스탈린식의 급격한 ‘봉건적 잔재’에 대한 청산과 계급투쟁 등으로 큰 혼란이 야기되었고, 대규모의 인권유린이 발생하였다.

당시 몽골의 불교는 이미 몽골 사회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몽골인들의 종교적 신념뿐만 아니라 몽골의 사회, 경제, 교육과 의료 등 분야에서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불교는 사회주의 정부의 등장을 거부하고 저항하였다. 하지만 라마 승려들의 저항운동은 결국 성공하지 못하였다.

1926년 후반에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는 최초의 특별법이 채택되어 라마 승려들이 국정에 개입하는 것은 더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수도승들의 가축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국가 재정의 새로운 주요 근원이 창출되었다. 이러한 가축에 대한 세금은 후에 라마 승려들의 저항을 불러 일으킨 하나의 큰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¹²³⁾

당시 몽골에서는 1928년 후반부터 1932년까지 라마 승려 문제뿐만 아니라 귀족의 문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었다. 몽골 정부는 봉건 귀족들의 가축을 포함하여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국가 재산으로 귀속시키기 시작하였다. 사회주의 몽골 정부의 반봉건적 정책의 결과로 자신의 재산을 넘겨준 봉건 귀족들과 가축들을 국가에 빼앗긴 수도원과 라마

122) 위의 책, pp.314-317.

123) Ц.Насанбалжир, “Улсын хөрөнгөтний биш хөгжлийн төлөө тэмцэл, баримт бичгүүд (1925-1940)”, Ts.Nasanbaljir, “The MPR's Struggle for Non-Capitalist Development, Documents: 1925-1940”, (Ulaanbaatar, 1956), pp.119-121.

승려들의 상황은 이후 더욱 악화되었다. 당시 봉건 귀족들의 상황에 관한 하나의 사례를 들면, 덜너드(Dornod) 지역의 자르갈랑트 쉼(Jargalant sum)의 시민 융덴부깅 경거르(Yundenbuugiin Gongor)란 사람이 운게른¹²⁴⁾을 몽골에서 추방하는 전투에 참전하고 7년 동안의 병역 의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고향에서 화부(火夫)로 근무하는 동안 경거르는 봉건 귀족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선서권을 박탈당하고 직장에서 해고당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거르는 군복무 중 상으로 받은 총으로 사냥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봉건 귀족의 후손이 사냥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총은 국가에 몰수되었으며, 이후 그는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도록 유배당하였다. 결국, 그는 사람들로부터 봉건 귀족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고,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검은 봉건’ (귀족)과 ‘노란 봉건’ (라마 승려)의 생존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은 매우 예사로운 상황이 되었다.

종교와 국가를 분리하는 법률을 새로 제정하여 공식적으로 반포함으로써 신분이 높은 라마 승려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억압을 가하여 그들로 하여금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신분이 낮은 라마 승려들에 대해서는 수도원을 떠나도록 하고 사회주의 사상을 주입하여 일반인화 하였다. 그리고 오랫동안 확립된 불교의 권위를 떨어뜨리고자 하였으며, 여러 종류의 세금 제도를 도입하여 불교를 억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라마 승려들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일반인들이 라마 승려들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게 만들었다. 몽골인민공화국 측에서도 라마 승려들의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그러나 1935년부터 일본군들이 내몽골지역과 몽골의 동쪽 경계

124) 바론 온게른(Baron Ungern Sternberg) 는 러시아 내전에서 반볼셰비키(anti-bolshevik) 운동을 전개하여 시베리아에서 백위군(the white russian army in Siberia)을 이끌었던 러시아의 중장이다.

를 급습하면서¹²⁵⁾ 몽골 정부의 라마 승려에 대한 억압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이때부터 라마 승려들과 일반인들도 일본의 간첩이라는 조작된 죄목으로 억압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0만 명 정도 되었던 라마 승려들의 수는 1930년에서 1940년대 후반까지 근 10년 사이에 1,000여 명 정도까지 감소하였다. 특히 1938년 가장 많은 라마 승려들의 희생이 발생하였다.¹²⁶⁾ 몽골에서는 1937년과 1938년의 시기를 ‘대숙청’(Great Purge)이라고 부른다. 이는 “잔인한 라마들과 잔인한 자본주의 대표자들을 우리가 더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그것은 우리에게 혜택이 될 것이다.”라는 레닌의 말에 따른 것이었다.¹²⁷⁾ 라마 승려들은 처음에는 ‘봉건주의자’, ‘반혁명주의자’ 혹은 ‘착취자’ 등으로 불렸다가 숙청 과정에 박멸해야 할 ‘해충’ 및 ‘기생충’ 등으로 불리게 되었다.¹²⁸⁾ 영정 함바 사건은 영정 함바가(Yonzon hamba) 담딩(B.Damdin) 함바, 티베트의 방칭 벡드(Banchin Bogd)¹²⁹⁾와 협력하여 일본의 간첩으로 몽골에서

125) Б.Баярсайхан, Б.Баттулга, Б.Лхагважав, М.Сүхбаатар,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тогтоомжийн хөгжлийн түүхэн товчоон: 1911-2008”, B.Bayarsaikhan, B.Battulga, B.Lhagvajav, M.Sukhbaatar, “A Brief historical account of the Development of Mongolia’s laws and regulations: 1911-2008”, (Ulaanbaatar 2008), pp.98-99.

126) B.Baabar, (1999a), pp.350-360.

127) 위의 책, pp.311.

128) Х.Чойбалсан, “Илтгэл ба өгүүлэл боть II: 1938-1940”, Цагаатгах ажлыг удирда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х улсын комиссын дэргэдэх улс төрийн талаар хэлмэгдэгсдийн судалгааны төв, (2008).

Kh.Choibalsan, “Reports and speeches, Vol 2: 1938-1940”, (Ulaanbaatar, 1951), pp.13-140. 영정 함바의 본명은 제렝깅 로브 상하임칙 (Tserengiin Luvsanhaichig)이다. 그는 티베트의 ‘우이젠’이란 지역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불교의 가르침을 받아 티베트의 가장 큰 수도원 중 하나인 다시 룸브(Dash lhumbe)에서 수도하였다. 영정 함바는 나중에 제8대 벡드칸의 자브토이 (Javtui-라마‘스승’과 같은 의미)라마승으로 몽골에 왔다. 가르침을 주는 과정에서 그는 ‘지혜로운, 재능이 있는 라마승 (nomch biligt tsorjiin yamba) 칭호를 받았다. 희생자 명예회복을 조직하기 위한 국가위원회 소속 정치적 희생자 연구소, (2008).

129) Цагаатгах ажлыг удирда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х улсын комиссын дэргэдэх улс төрийн талаар хэлмэгдэгсдийн судалгааны төв (2008), 빙칭 벡드는 티베트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두 명의 라마승 중의 한명이었다. 그는 달라이 라마 (Dalai lama)와 충돌하여 티베트에서 나와 내몽골로 갔다. 내몽골에 있는 동안 일본이 방칭 벡드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을 스탈린의 추종자들이 몽골의 내부 문제에 해결 하는데 이용하였다. (희생자 명예회복을 조직하기 위한 국가위원회 소속 정치적 희생자 연구소).

활동하였다는 누명으로 1937년 9월 6일에 내무성(Ministry of Internal Affairs)의 수용소에 구속된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 사건에서는 “영정 함바가 주도한 반공산주의의 반혁명주의자 간첩 구성원”이라는 죄목으로 20,000여 명의 라마 승려들이 체포되어 그중 17,000여 명이 총살되었다.¹³⁰⁾ 이처럼 몽골의 사회주의 정부가 오랫동안 해결하려고 했던 라마 승려들의 문제는 더는 세금, 법률 또는 선전과 같은 온건한 방법이 아닌, 급진적인 방법, 즉 불교 신자들의 ‘목을 베는 방법’으로 해결되었다. 그러나 다수를 차지하는 희생자들은 라마 승려들뿐만 아니라 부유한 목축인, 군 지도자, 과학자, 정치가들이어서 최고의 엘리트들과 억울하게 희생당하게 된 것은 몽골 역사에 만회할 수 없는 큰 손실을 가져왔으며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게 되었다. 탄압 시기에 희생된 몽골인의 수는 37,000여 명 정도였고 하지만 실제 수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몽골의 집단주의 개념은 1925년 초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때부터 협동조합들의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1929년 이히 타미르(Ikh tamir)에서 노동조합들이 설립되었다.¹³¹⁾ 이러한 조합들은 집단화의 뿌리가 되어 지방에서 여러 활동을 전개하였다. 몽골인민혁명당이 주도하여 소련식 집단주의를 몽골에 도입하고자 시작된 최초의 대규모 집단주의(mass collectivization)는 사회·경제적 발전에 대한 열망과 사회주의 혁명을 늦추거나 멈추고자 했던 ‘우익 일탈’(Right Deviation)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좌익 일탈’(Left Deviation) 시기에 반혁명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¹³²⁾

130) Цагаатгах ажлыг удирда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х улсын комиссын дэргэдэх улс төрийн талаар хэлмэгдэгсдийн судалгааны төв (2008), 희생자 명예회복을 조직하기 위한 국가위원회 소속 정치적 희생자연연구소, pp.320-330, 359.

131) 1930년대 후반에 들어서 62개의 집단과 25개의 조합이 형성되었다.

132) ‘좌익 일탈’은 1929년부터 1932년까지 인민혁명당 내에서 좌파 세력이 우파 세력을 반혁명·반국가적이라고 몰아 숙청했던 것을 말한다.

그러나 국가의 강압적인 집단화, 재산의 국유화와 라마 승려들에 대한 박해에 국민은 점차 저항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노동생산성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좌익 일탈’ 시기에 전국적으로 소와 말의 수는 18%가 감소하였고, 양의 수는 37%가 감소하였으며, 염소의 수는 24%가 감소하였다. 가축의 전체적인 손실은 육칠백만 마리에 달하였다. 이러한 손실은 강압적 몰수에 저항하기 위해서 가축의 관리를 등한시하고 소홀히 하거나 가축들을 도살하였기 때문이다.¹³³⁾

이러한 ‘좌익 일탈’의 시기에 영세 목축업자들(poor herders)보다도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중간 계층(middle strata)의 사람들이었다. 이 중간 계층의 사람들은 봉건 또는 자본주의 착취계급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소규모의 무역업자 또는 보통 규모의 가축을 치는 숙련된 목축업자들이었다. 이히 타미르에는 대규모의 목축업자들은 없었고, 중간과 영세 사이의 규모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중간 계층들은 소련의 경험으로 인해 부농(kulaks)을 다루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계급의 적’(class enemies)으로 간주 되어 징벌성 과세(taxed punitively)가 부과되었다.¹³⁴⁾

몽골에서 이전에 경험이 전혀 없었던 이러한 강제적인 집단화 및 재산 국유화 정책은 국민의 입장을 놓고 볼 때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되었고, 가축 사육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지 않고 소련식의 사회주의 체제를 몽골의 유목문화에 강제로 적용하는 데 집중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억압적 정책들은 진술한 바와 같이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왔다. 이처럼 1930년대 라마 승려들과 인민혁명당 사이의 갈등 과정에서는 집단화와 재산 국유화 정책이 더욱 강해졌으

133) Central Statistical Board of the Mongolian People's Republic, *50 Years of the MPRP*, (Ulaanbaatar: Central Statistical Board, 1971), p.71.

134) Daniel Rosenberg, "The Collectivization of Mongolia's Pastoral Production", *Newsletter of the Commission on Nomadic Peoples*, No.9, (1981), p.26.

며, 대규모의 심각한 인권유린, 억압 문제들이 야기되었다.

반면에 당시의 억압적 상황 때문에 많은 라마 승려들은 일반인이 됨으로써 강제적으로든 자발적으로든 여러 조합에 가입하여 사회활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1939년에 들어 조합의 회원 수가 늘어났으며, 집단화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몽골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는 조합과 집단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민의 관심을 조작하는 데 필요한 전략들을 추진하였다. 이에 정부는 조합이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물질 토대(material base)를 획득할 수 있도록 장기 저리의 대출을 제공하였으며, 농기계를 구매할 수 있게 하였다.¹³⁵⁾

할힌골 전투(Khalkhin-Gol, 1939년 5월 11일-9월 16일)는 몽골 측에서는 부르는 명칭이며, 일본은 만주 쪽 마을 이름을 따서 ‘노몬한 사건’으로 칭한다. 일본과 소련 간의 최초의 주요 국경분쟁은 1938년 7월의 하산 호 전투에서 시작되었다. 게오르기 주코프 장군(Georgy Konstantinovich Zhukov)은 상호원조 조약을 맺고 있었던 몽골과 소련을 연합하여 일본군과 격전을 벌였다. 당시 일본 관동군이 장악하고 있었던 만주는 몽골 접경 지역인 노몬한 부근의 지역에서 국경선이 분명하지 않아 잦은 분쟁을 일으켰다. 1939년 5월 11일 할힌골을 건너오던 몽골 기병 70여 명을 일본군이 공격하여 축출하면서 상호 보호 조약에 따라 몽골에 진주해 있던 소련군이 개입하여 2차례의 큰 전투로 발전하였다.

1차 전투에서 소련군 1,500여 명과 관동군 2,000여 명으로 시작한 양측은 공방전이 가열되면서 자존심 대결로 확대되고, 모스크바의

135) B.Baabar, (1999), pp.29-30. 몽골 경제는 전통적으로 유목경제가 주축을 이루었기 때문에 몽골에 사회주의체제가 도입된 이후 먼저 유목경제를 집단화했던 소련의 경험은 몽골에 준거(reference)가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몽골 정부는 소련 중앙아시아 지역 유목경제(pastoral economy)의 집단화를 배우도록 이히타미르(ikh tamir) 조합 회원들을 소련에 파견하기도 했다.

전폭적인 지원으로 소련군은 병력 5만여 명, 전차 500대, 항공기 500대, 장갑차 350대, 대포 550문으로 무장하게 되었고, 관동군의 병력을 집결시킨 일본군을 궤멸시키게 되었다. 소련은 17,000명 사상, 일본군은 45,000명이 전사하고 3,000명이 포로로 잡혔다 (연합군 발표).

이 사이에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운이 감돌고 있던 1939년 소련은 영국·프랑스 측과 독일 측으로부터 동시에 동맹 제의를 받고 있었다. 소련은 독일을 선택했다. 나치즘의 독일과 공산주의 소련의 협정,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가장 끝자락인 두 나라 간에 1939년 8월 23일에 독일과 소련 불가침 조약이 맺어진 것이다.¹³⁶⁾

<그림 2-6> 협정에 서명한 이후¹³⁷⁾



136) Запись беседы народного комисса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СССР В.М.Молотова с послом Германии в СССР Ф.Шупенбургом 15 Августа 1939г. Год к ризиса, с.319-322. David Wedgwood Benn, "Russian historians defend the Molotov-Ribbentrop pact", *Vol 87, Number3*, 2011, pp.319-322.

137) 1939년 8월 23일에 독일과 소련 불가침 조약, V.Molotov와 Ribbentrop.

그 후 오래 걸리지 않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소련과 관련된 모든 전쟁에 참전할 수밖에 없었던 몽골 측의 이유는 지리적 위치에 있었다. 독립 국가가 되기를 만 원했던 몽골이었지만, 당시 800.000명의 인구밖에 없었던 소국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상황과 어쩔 수 없이 어울려 활동하기 시작했던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1911년부터 1946년까지의 시기의 몽골이 소련과 연합한 이유를 깊게 생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는, 러시아 반혁명(운게른 남작) 세력이 피신해 온 것을 기회로 그들의 도움으로 1921년에 230년간 이어져 온 청나라의 지배로부터 독립을 선포하였다. 곧이어 반혁명 세력을 추격하여 제거한 러시아 혁명군은 몽골의 독립을 탐탁지 않게 보았지만 결국 독립을 인정해 준 측면이 있다.

둘째로는, 당시 일본은 만주사변을 일으켜 만주국에서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푸이를 내세워 괴뢰 정권을 세우고 중일전쟁을 일으켜 아시아 전역을 장악할 야욕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 바이칼 지역을 손에 넣고 시베리아 일대를 차지하려는 계획도 있었으며 인구와 군사력이 미미한 몽골을 복속시키는 것은 너무나 간단했던 것도 사실이며 여기서도 몽골이 또한 소련의 지원 없이는 사실상 독립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셋째로는, 위 두 가지 위험 요소로부터 몽골의 자주권을 지킬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소련의 보호 아래로 편입해 들어가는 것이었다. 비록 위성국가가 된다고 할지라도 중국이나 일본에 복속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이기 때문이다.

소련과 중국의 몽골에 대한 경쟁 사이에서 몽골이 소련에 대한 의존 정책을 통해 오랜 염원이었던 독립을 쟁취하였고 안보를 보장받았으며, 경제 지원을 받음으로써 기본적인 국가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몽골은 계속해서 독립을 위한 싸움을 진행하였다.

2. 몽골과 소련의 관계

벽드칸은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무역 협정을 체결, 그리고 교역 관계를 체결하기를 희망 한다”¹³⁸⁾는 목적으로 러시아와 우호 관계를 유지하기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몽골의 신생 정부에게 커다란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1911년 독립 직전 러시아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하여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다녀온 달람 체렌치메드(Dalam Tserenchimed)가 당시 러시아의 몽골 정책에 큰 영향을 행사하고 있던 코르비치(V.Korvich)라는 몽골 연구자에게 쓴 편지에 의하면, “현재 고륜(과거에 중국에서 울란바타르를 일컫던 이름)에서 러시아 영사가 나에게 한 말은 선생님이 가르쳐 준 말씀과 잘 맞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몽골은 러시아하고만 조약을 맺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몽골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모든 나라와 힘을 단합하여 조약을 맺어야 한다고 봅니다.”¹³⁹⁾라고 밝혔듯이 몽골 왕족들은 이미 독립 이전부터 러시아의 내전 간섭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고 있었다. 특히 그는 1912년 몽골과 러시아 사이에서 진행된 회의석상에서 내몽골과 외몽골의 통합에 반대하는 러시아 대표 코로스토비치(Korostovich)에게 “몽골은, 청나라의 지배에서 벗어나 러시아의 노예가 되고 러시아 신민이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¹⁴⁰⁾라는 의견을 밝히면서 몽골 왕족들의 행위를 비판했고, 곧 조국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서라면 러시아뿐만 아니라 누구와도 손을 잡겠다는 것으로 처음부터 러시아에 대한 생각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짐작하게 해 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1912년 러시아 당국은 국가 하원(Duma)의 결정에 따라 몽골 독립 문제에 대한 해결 사안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¹⁴¹⁾ 국가 자주성

138) Collection of documents 1900-1914, (Ulaanbaatar, 1982), pp.175-175.

139) Sh.Sandag, “Mongolia’s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Ulaanbaatar, 1971), p.80.

140) History of the Mongolian People’s Republic Vol.2, (Ulaanbaatar, 1968), p.523.

141) B.Baldoo, “Mongolian foreign relation”, (Ulaanbaatar, 2003), p.28.

을 회복한 상태에서 1912년 10월 21일에 몽골은 오히려 러시아와 러·몽 협정(Russo-Mongolian Agreement)을 체결하였다.¹⁴²⁾

당시 소련의 최종 목표는 몽골이 아니었으며, 몽골에서의 공산주의 성공을 통해 인접한 중국 혁명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반대파를 제거하고, 중국의 철도 소유하기 위해 중국과 합의하려 했던 목표가 무엇보다 상위에 있었던 것이었다.¹⁴³⁾

1913년 중·소 비밀 협정 이에 대해 러시아는 1912년 체결된 러·몽 협정의 몽골어 본에는 ‘자국 통치’라고 되어 있으나, 러시아어 본에서는 ‘자치’(autonomy)를 원한다고 표현되어 있으며, 자치의 국제적인 의미를 몽골이 잘못 이해했다고 설명하였다.¹⁴⁴⁾ 계속해서 몇 번 상호간에 외몽골 자치를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몽골 정부는 포기하지 않고 안보와 독립에 대해 다시 러시아와 논의하기로 하였다. 몽골은 강대국의 영향력 아래 놓이지 않기 위하여 1914년부터 열강들의 공관을 방문하려 했지만 거의 모두 거절당하였고, 여러 번의 시도 끝에 각 해외 공관 대표들에게 독립 선언서를 전달하는 것까지는 성공하였지만 몽골 측에 답신을 보낸 국가는 하나도 없었다.¹⁴⁵⁾

1914년 9월 8일부터 1915년 8월 7일까지 9개월 동안의 협의 끝에 카흐타 협정(Tripartite Treaty of Khiakhta)이 체결되었다.¹⁴⁶⁾ 러시아를 대표하여 영사 밀레(Miller), 대령 히트롭(Hitrow), 중국을 대표하는 만주 대장 장군 비구이판(Bi Gui Pan), 멕시코 영사 첸소(Chensu), 몽골 정부 대표인 내정 관리부 차관 달람 다시제베그(Da lam Dashzeveg)와 외교부 차관 체렌도르지(Tserendorj), 고문 역으로 내몽골 왕 오다이(Udai), 담딘수른(Damdinsuren) 등이 대표자로 참석하였다.¹⁴⁷⁾

142) Collection of Diplomatic Documents on the issue of Mongolia, (St.Peterburg, 1914), p.5.

143) O.Batsaikhan, “An Issue of Small State’s Independent”, (Ulaanbaatar, 2003), p.153.

144) Ts.Batbayar, “Mongolian-Russian relations in the past decades”, *Asian Survey*, Vol.43, No.6, (Ulaanbaatar, 1990), p.81.

145) G.Murphy, (Berkeley, 1966), p.249.

146)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Age of Imperialism, seriya 2, t20, Ch2, Documents from the Archives of the Tsarist and Provisional Governments: 1878-1917, p.227.

147) B.Sanjmyatav, (Ulaanbaatar, 1991), p.7.

제31차 회의에서는 1915년 2월 16일부터 각국 초안을 바탕으로 내몽골과 외몽골 사이의 경계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¹⁴⁸⁾

1915년 카흐타 협약은, 결국 러시아 측의 입장을 두 나라가 모두 수용하는 형태로 막을 내렸다.¹⁴⁹⁾ 카흐타 협약의 체결로 인해 러시아인이 몽골 변경에서 자유롭게 교역하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됨으로써 러시아에 몽골에 대한 침략의 단서를 제공하였다.¹⁵⁰⁾

비록 완전한 독립을 보장받지는 못하였지만, 몽골 측은 러시아의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회의를 중단시키면서까지 이미 획득한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러시아 대표 역시 차하르(Tsahar) 지배하에 있었던 것을 관리하기 위해 파견된 차하르 몽골인들이기 때문에 다리강가(Darigang)와 차하르의 관계는 특수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과 아울러, 현재 다리강가에 황실이 존재하지 않고 차하르인들도 떠났으며 그곳에 남아있는 거주민은 몽골인 뿐이라는 점을 들어 외몽골에 귀속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¹⁵¹⁾

자치 외몽골의 영역은 1913년 10월 23일 중·소 성명 부칙 제4조에¹⁵²⁾ 따라 이전 후레, 울리아스타이(Ulaistai), 호브드(Khovd) 소속 관할 지역으로 한정하였다. 그 범위는, 중국과의 경계는 동쪽으로 훌룬보이르(Khulenbuir), 남쪽으로는 내몽골, 서남쪽은 고비(Gobi), 서쪽은 알타이(Altai)의 각 몽골로 하고, 그 범위는 할하 지역 네 개 아이막(aimag)과 호브드(Khovd)로 하였다. 중국과 자치 외몽골의 관계는 별도로 중국과 러시아 및 자치 외몽골 대표의 회동을 통하여 처리하고, 아울러 본 협약 서명 후 2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러시아 대표는 자신의 절충안에 대하여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제안하고, 중국과 몽골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자 3월 8일에 제35차 회의¹⁵³⁾를 열기로 정하고 폐회하였다. 그리고 제35차 회의 시작과

148) B.Sanjmyatav, (Ulaanbaatar, 1991), p.11.

149) R.Rupen, (California, 1979), p.106.

150) B.Baabar, (Ulaanbaatar, 1999), p.34.

151) N.Naidan, "The Mongol's Mission in 1915", (Ulaanbaatar, 1999), p.94.

152) R.Robert, (California, 1979), p.244.

153) Gerard M. Fritters, (London, 1949), p.228.

더불어 러시아 대표는 제34차 회의에서 자국이 제출한 외몽골 경계에 관한 조문을 러시아어와 프랑스어로 낭독하였다.¹⁵⁴⁾

1918년 3월에 후레 정부는 모스크바로부터 “소련 정부는 제정 황제 정부와 임시정부의 대표를 추방하고 러시아 권익을 대표하는 그들의 모든 권리를 박탈함을 통보 한다.”¹⁵⁵⁾는 전문을 받았다.

몽골은 러시아 공산당 정부에게 군사적인 지원과 함께 경제적인 지원도 요청하였다. 러시아 혁명 정부는 몽골혁명의 대표들을 지지하며 도움과 협조를 약속함으로써 1921년 6월 말에 러시아 혁명 군사들이 몽골 영토로 진입하게 되었다.¹⁵⁶⁾ 1921년 7월 6일에 몽·소 군사들이 서로 협력하여 몽골 수도 후레에서 새로운 “혁명 정부”의 설립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였다.¹⁵⁷⁾ 1921년 11월 5일에 몽골과 소련 양측은 모스크바에서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으며 상호 승인과 우호 관계에 관한 “몽골-소비에트 협정”에 조인하였다.¹⁵⁸⁾ 양국은 이 협정을 통하여 정치와 경제 관계의 기본 원칙을 확정하였다. 이 협정은 몽골의 대외 환경을 강화한 최초의 보증과 같은 협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리하여 몽골은 1921년에 러시아 공산당과 붉은 군대의 지원을 받아 다시금 독립을 선포하였다. 1924년 초부터 소련과 코민테른의 전면적인 간섭 하에 몽골 내에서 조금씩 사회주의적 색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몽골은 여전히 중국군의 도발에 직면해 있었고 공식적으로 여전히 중국의 자치구였던 탓에 1924년 5월 31일 소련과 중국 간 협상이 재개되고 소련은 ‘몽골은 중국에서 분리될 수 없는 한 부분이다’라는 내용의 조약을 체결하였다.¹⁵⁹⁾ 그로써 당시의 몽골에서는 소련을 끌어들이는 방법 외에는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54) Gerard M. Fritters, (London, 1949), p.229.

155) Sh.Sandag, (Ulaanbaatar, 1971), p.244.

156) Thomas Ewing, (Bloomington, 1978), p.118.

157) 위의 책, p.134.

158) Ts.Puntsagnorov, “History of Mongolia in the autonomous period”, (Ulaanbaatar 1955), p.56.

159) Sh.Natsagdorj, Owen Lattimore, “Nationalism and Revolution in Mongolia”, *Brill Archive*, pp.171-180.

소련의 이중적 태도에 불신이 생긴 몽골 지도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졌다. 한 그룹은 소련을 옹호하고, 다른 한 그룹은 국가 독립을 위해 소련이 아닌 다른 국가에 의존하기를 희망하였다. 몽골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할 위험을 느낀 소련은 몽골의 인구보다 영토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소련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결정을 내렸으며,¹⁶⁰⁾ 그로써 강압적인 정책을 시작하였다. 또한, 볼셰비키 식의 세계 혁명이 유럽에서 쉽게 일어날 것 같지 않았고, 보편적 원칙의 선언도 평화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면서, 소련은 자연히 아시아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유럽 혁명의 전망은 불투명하므로 아시아에서 혁명을 일으켜 동맹을 맺고, 향후 서양 국가들과 저항할 힘으로 사용하는 가능성을 소련은 아시아에서 발견한 것이다.¹⁶¹⁾ 서구와 관련하여 아시아를 부차적의 존재로 간주하면서 아시아의 성공을 통해 유럽에서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고 유럽으로부터의 위협에 대비하려는 정책을 실행했다. 쉽게 말하면 세력 균형을 도모하려는 시도였다. 그런 아시아에 대한 정책 속에 몽골을 포함시켜 몽골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몽골과 소련간의 형제적 관계가¹⁶²⁾ 1924년 11월 26일에 공화제로 고치면서 국호를 ‘몽골인민공화국’으로 함과 동시에 시작된 것이다.

소련에 있어 몽골은 767,000명의 인구¹⁶³⁾ 밖에 없으나 영토는 156만 제곱킬로미터로 광물 자원이 풍부하고 석유와 천연가스도 보유하고 있는 세계 10대 자원 부국이었으므로,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다. 그러므로 이 과정 중에서는 러시아의 지지가 가장 중요하였다.

소련은 각종 권리를 획득하고, 라마교도들을 이용하여 몽골 인민의 민심을 사로잡으며 중국으로부터 이탈하도록 유도하였다. 몽골의 의존 정책은 “몽골을 신뢰할 수 있는 완충국으로 유지하겠다.”라는 스탈린의 전략과 일치하며, 몽골이 현상태를 유지하는 데 원동력이 되어 준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만 반대하면, 몽골이 다른 나라와 전략적

160) www.archives.gov.mn/duk/ (검색일: 2014년 5월 24일).

161) B.Baabar, Vol.II, (Ulaanbaatar, 2015), p.102.

162) www.historynet.com (검색일: 2015년 6월 9일). Mongolia-Stalin's Shrewd Opening Act.

163) www.populstat.info/Asia/mongolic.htm (population growth), (검색일: 2015년 5월 21일).

동맹 관계를 맺는 것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게 되었다.

1936년에 몽골 지도자들이 반-중국 활동에 대한 전술 의견을 나누러 왔을 때, 소련 지도자인 예조프(Nikolai Yezhov)¹⁶⁴⁾는 “아니다, 부자들을 죽이고 일반인들을 혁명을 위해 이용해라.”¹⁶⁵⁾라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었다.

소련은 몽골과의 관계 유지를 통해 영향력을 점차 행사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약속했다.¹⁶⁶⁾ 불교와 정치에 대해 몽골 정부는 ‘종교는 곧 인민의 아편’이라는 입장에서 반 라마교 정책을 취하였다. 스탈린은 “불교는 마약, 승려는 혁명의 적”이라고 선포했다.¹⁶⁷⁾

따라서, 스탈린의 약속과 규제에 따라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명분에 따라 라마교에 대한 가혹한 탄압이 이루어졌다.

초이발상을 통해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 내긴 하였지만 그 이면에는 혹독한 인권 탄압과 피 젖은 희생이 감추어져 있었다. 계속하여 몽골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독일 스파이(German spies), 일본 스파이(Japanese spies) 혹은 반공산주의 세력으로 몰아세우면서, 당시 몽골의 지도 계층 지식인들을(enemies of the people: Buyanchuluun, Shachzhi, Huhte, Banzarov Yu, Byambyn Rinchen, Idamsuren, Tsendiin Damdinsuren) 강제로 숙청해 나갔다.¹⁶⁸⁾

몽골에서는 약 150명의 소련 지질학자들이 연구하도록 허용했다.¹⁶⁹⁾ 몽골인민공화국은 소련에만 물품을 수출하고 소련을 통해서만 물품을 수입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울란바타르에 거주하던

164) Red Banner: badge of honorary security officer, a decree of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Soviet on January 24, 1941 deprived Yezhov of all state and special awards. Marc Jansen and Nikita Petrov, “Stalin’s Loyal Executioner: People’s Commissar Nikolai Ezhov, 1895-1940”, (Hoover Institution Press, 2002), p.210.

165) B.Baabar, Vol.II, (Ulaanbaatar, 2015), p.119.

166) Sh.Sandag, (Ulaanbaatar, 1971), p.91.

167) 위의 책, p.98.

168) Christopher Kaplonski, “Historical injustice and democratic transition”, (London, 2002), pp.155-168.

169) E.Maleev, “The Joint USSR-MPR Palentological Expedition of Sciences”, (Moskow, 1974), p.30.

4,000명의 외국인을 강제 출국시키고, 몽골 정부에서 초청한 독일, 스웨덴, 덴마크 전문가들을 본국으로 귀국시켰다.¹⁷⁰⁾

소련은 몽골이 중립을 지키거나 제3의 세력과 동맹을 맺으면 쉽게 소련에 대항하는 강대국의 침략을 위한 도약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싫어했다. 러시아는 경제적 측면에서 각종 천연자원과 농산물이 풍부한 몽골과의 관계 수립이 필요했었다. 궁극적으로, 소련은 역시 극동에서 중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몽골이라는 존재가 필요했었다.

1930년 9월부터 강대국 일본이 만주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1932년 만주국을 건국하자 소련 정부는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일본이 러시아의 혁명으로 약해진 틈을 타 극동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하려는 의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반-볼셰비키 세력들을 군사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신생 소비에트 체제를 위협하고 있었다.¹⁷¹⁾ 1935년에 몽골인민공화국 동부 국경지대에서 대규모 일본군 병력이 집결하고 몽골을 수시로 침범하자, 위협을 느낀 소련은 일본의 침략을 막는 몽골이 지역적으로 중국의 종주권 체제하에 있는 지역이 아니라 보다 독립적인 공산주의적인 국가가 되는 것을 필요로 했었다.

바브르는 “소련의 이러한 전쟁 결과 몽골은 여전히 소련으로 기울어지는 정책을 채택하고, 일본과 소련이라는 강대국 간의 전쟁터가 되었다. 소련은 첫째로, 극동지역에서의 정치적 및 경제적 세력을 유지하고, 둘째로는, 중국의 혁명가들을 지원할 기회를 증강하려고 했으며, 일본은 중국 북방에서 자국이 소유하고 있는 영토를 유지하기 위해 몽골이라는 완충국을 형성했다. 셋째로, 중국에 대한 소련의 간섭 차단을 목표로 하여 할хин골 지역에서 전투를 치른 결과, 소련군이 일본군을 완파하였다.”¹⁷²⁾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 다른 몽골 학자 바야르후(Bayarkhuu)는 소련·일본 간의 할хин골 전투에 대하여, “몽골의 인구가 적고, 사람이 살지 않는 초원이 많기 때문에 할хин골 지역 즉, 몽골 지역에서 일어난 전

170) B.Baabar, (Ulaanbaatar, 1996), p.52.

171) Alan Sander, (London, 2010), p.405.

172) B.Baabar, (Ulaanbaatar, 1996), pp.172-186.

쟁이 인구 밀도가 높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지만, 몽골 영토에서 진행된 전쟁이었으므로 몽골 안보를 크게 위협한 전쟁이었다.”¹⁷³⁾라고 논술했다.

당시 러시아 정부 내에서는 동아시아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일본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몽골의 독립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¹⁷⁴⁾는 의견도 존재하였었다. 결국, 러시아 정부는 몽골의 수도인 후레에 상주하고 있는 러시아 영사관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코삭(Cossack) 군인 200여 명을 포함하여 기관총 등 몽골에 대한 군사 원조를 결정하게 되었다.¹⁷⁵⁾

1946년에 몽골에서 스탈린은 공업 생산을 목표를 제시하며 이제 막 발전하고 있는 유목민의 생활 양상을 공업 국가로 변모시키고자 하였다.

몽골이 소련과의 긴밀한 위성국 관계에 있는 16번째 구성 공화국이었기 때문에 “Kuritsa ne ptitsa, Mongolia ne zagranitsa-Chicken is not a bird, and Mongolia is not across the border)¹⁷⁶⁾ 유머가 유행하기도 했었다.

3. 몽골과 중국의 관계

청나라의 정책에 따라 내몽골과 외몽골의 차별성이 강화된 측면이 있었지만, 두 곳은 어느 정도 몽골 고유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었다. 또한, 벡드칸 정부에 대한 복귀 권유에 대해서도 내몽골 왕족들이 가장 많이 호응해 왔고, 내부에서는 청나라(후에 중화민국)로부터의 분리 독립을 위한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그중 일부 왕족들은 벡드칸 정부를 향해 직접 군사 개입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173) D.Bayarkhuu, “International Relations & Geopolitical Interests”, (Deli, 2000), p.56.

174) *Novoe Vremya*, “New Time” news paper, (Moscow, 8 September 1912).

175) 박환영, “몽골의 유목문화와 민속”, (서울, 2005), p.40.

176) S.Odiga, J.Bat-Ireedui, “Russo-Mongol relations”, general reference guide, (Ulaanbaatar, 1998), p.47.

“1911년, 그해 중국에서 혁명이 발발한 후 몽골 라마교 수도인 오르가(Urga: 당시 몽골의 수도)에서 벡드칸이 자치정부의 수반으로 등극하였다. 이는 거의 전적으로 몽골에서 활동하고 있던 차르(Tsar-러시아 최초의 차르)의 외교관들이 선동한 결과였다. 게다가 그 자치정부는 러시아의 독재까지 받아들였다. 제정 러시아는 19세기 중반 이후 이 지역에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었는데, 1911년 중국의 내부 혼란은 그러한 의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주었다.”¹⁷⁷⁾ 이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머피의 견해는 한 마디로, 소련이 오래전부터 몽골에 대한 침략을 계획해 왔고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서 몽골의 지배층을 이간질하여 청나라로부터 이탈하게 하였다는 중국 연구자들의 견해를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신생 몽골 정부가 제정 러시아의 독재까지 본받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중국 연구자들보다 한발 앞서갈 정도인데, 비판적으로는 미국의 글로벌리스트의 시각을 지니고 있었던 그의 생각이 중국인의 시각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점은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이유는 아마도 영국의 몽골사 연구자인 보든(Bawden)이 지적한 것처럼 “몽골 독립 문제를 몽골 역사의 자체 발전 과정이라는 측면이 아니고 국제 관계사의 관점에서 바라본 결과로 보인다.”¹⁷⁸⁾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중국의 쑨원(Sun Wen) 신정부는 몽골의 독립을 거부하고 중국의 영역으로 남아있을 것을 요구하였다. 1912년 몽골에 대표를 보내 3번의 협정을 시도하였다.¹⁷⁹⁾

하지만 몽골은 할하 지역 네 개 아이막(aimag-province), 내몽골 지역의 여섯 개 아이막, 49개 호쇼(khushuu), 훌른보이르(Khulenbuir), 이흐술룬(Ikhshuluun), 바르가(Barga), 울드(Uld), 오로친(Urchin), 오리양하이(Urainkhai), 카자크(Khazak), 다리강가(Darigang), 차하르(Tsahar), 투메드(Tumed)까지 자치국의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⁸⁰⁾

177) G.Murphy, (Berkeley, 1966), p.98.

178) C.R.Bawden, “The Modern History of Mongolia”, (London, 1968), p.165.

179) Thomas Ewing, “Ch’ing Policies in Outer Mongolia: 1900-1911”, *Modern Asian Studies*, Vol.14, (Bloomington, 1980), p.82.

중국 대표는 “외몽골 자치 구역은 이전 청나라의 후레 판사 대신, 울리아스타이(Ulaistai) 장군, 호브드(Khovd) 참찬 대신 관할 지역으로 제한한다.”¹⁸¹⁾ 라고 규정한 북경성명 부칙 제4조를 근거로 외몽골의 경계를 할하 지역 네 개 아이막과 호브드로 제한하고, 동쪽 경계는 홀른보이르, 남쪽 경계는 다리강가 및 실린골(Shillin gol) 아이막과 올란차브(Ulaantsav) 아이막으로 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몽골 대표는 알타이(Altai) 지역이 호브드의 관할 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외몽골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⁸²⁾ 이처럼 팽팽히 맞서고 있었던 양측 대표단은 상세한 몽골 지도에 관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경계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해당 사안을 다음 회의로 미루자는 러시아의 제안을 수용하여 최종 결정을 뒤로 미뤘다.

1915년 2월 19일에 열린 제32차 회의에서 중국 대표는 북경성명 부칙 제4조에 이미 외몽골 자치 구역에 관한 지도가 없다고 명시한 것을 근거로, 다시 경계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몽·중 대표를 파견하여 공동 실사하여 경계를 확정하자고 제안하였다. 경계확정을 위한 대표단에는 러시아 측도 참여할 것을 주장하자 몽골과 중국 양국은 이에 동의를 표했다. 1915년 2월 26일에 개최된 제33차 회의에서 몽골과 중국 대표들은 단위까지 망라한 외몽골의 경계에 관한 각자의 의견을 담은 문서를 제출하였다.¹⁸³⁾ 먼저 몽골 측이 ‘외몽골 경계에 관한 자신들의 의견은 모든 지도를 종합하여 작성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중국 측은 “현재 외몽골 자치 구역에 관한 상세한 지도는 존재하지 않는다.”¹⁸⁴⁾라고 한 북경성명 부칙 제4조를 언급한 뒤, 자신들이 제출한 경계에 관한 문서는 공공 기관에서 간행한 몽골에 관해 기술한 문헌을 인용했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몽골 측은 중국 측이 이용한 문헌 자료를 여행기라고 정의를 내림과 동시에 이를 국경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의 근거 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180) Sh.Sandag, “Foreign relations of Mongolia: 1850-1919”, (Ulaanbaatar, 1971), p.36.

181) S.Kuzmin, “Centenary of the Kyakhta Agreement”, (Moscow, 2015), pp.60-63.

182) O.Batsaikhan, (Ulaanbaatar, 2008), pp.290-293.

183) 위의 책, pp.300-303.

184) 위의 책, pp.310-321.

이와 함께 몽골 측은 자신들이 이용한 여러 가지의 지도는 해당 지역에 오래 거주하여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한두 차례 몽골을 여행한 사람들이 작성한 것보다 훨씬 신빙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양측은 자신들이 활용한 옛 지도와 문헌의 신빙성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1915년 3월 4일 열린 제34차 회의에서는 먼저 제33차 회의에서 러시아가 제기한 문제, 즉 외몽골과 러시아의 국경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논의하지 않고 의사록에도 기록하지 말자는 제안을 논란 끝에 중국 측이 이를 수용하였다.¹⁸⁵⁾ 이어서 몽·중 대표들은 외몽골과 중국 경계를 어디로 할 것인지를 놓고 대립하였다. 동쪽은 다리강가의 귀속 문제, 서쪽은 알타이, 구체적으로 차강통호(Tsagaantunkh)의 귀속 문제가 쟁점이었다. 다리강가 귀속과 관련해서 몽골 측은 다리강가 땅이 할하의 세첸한(Setsen Khan)과 투시예트한(Tusheet Khan) 아이막 사이에 위치하고, 후레에 있는 옛 기록에 따르면 해당 지역이 두 아이막으로부터 떼어낸 땅이고, 차하르에 파견된 차하르 몽골인만을 관할했을 뿐, 목장 자체를 관리하지 않았다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 대표는 이전처럼 북경성명 부칙 제4조와 차하르 예하라는 과거의 행정 편제를 들어 양측의 주장을 거부하였다.

이처럼 몽골과 중국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외몽골 경계를 북경성명 부칙 제4조를 근거로 들며 반복적으로 주장하게 된다.

그러한 와중에, 1917년 10월에 소련에서 혁명이 성공한 후, 중국은 몽골에서의 세력을 다시 증대시켰다.

1919년 11월 22일에 북경 정부는 대총통령으로 정식으로 몽골의 자치 철폐를 선포하였다.¹⁸⁶⁾ 1919년 12월 1일에 쉬수정의 서북 주변사 공관이 후레에 개설되었으며, 후레도호사 공관의 사무를 모두 이관시켰다.¹⁸⁷⁾ 이때 몽골 군대는 무장이 해제되었으며 몽골인은 만여 명의 중국 군대를 위한 보급품의 공급을 책임져야 하였다. 쉬수정이¹⁸⁸⁾ 몽골의

185) 위의 책, pp.330-334.

186) Thomas Ewing, "Russia, China and the Origins of Monfolian People's Republic: 1911-1921", *A Reappraisal, The Slavonic and East European Review*, (London, 1980), pp.407-408.

187) Thomas Ewing, (London, 1980), p.502.

188) Chen Chungzu, "A Modern History of Mongolia", (Shanghai, 1926), p.11.

군대를 해산하여 무기를 회수하고, 5부를 폐지하여 관인을 회수하는 한편, 벡드칸에게 중화민국 대통령의 사진에 머리를 조아리게 하고 몽골의 자치권을 박탈하는 거창한 행사를 거행하였다. 당시 벡드칸은 50여세의 비대하고 실명한 노인이었으며, 행동이 매우 불편함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였다. 한편 쉬수정이 몽골의 행정 체제를 개편하면서 재정 문제를 가장 중요시하였다. 그는 후레에 설립한 중국은행 분점이 규모가 너무 작다는 이유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변업 은행을 설립했으며, 후레에 변업 은행의 분점을 설립하고 지폐를 발행하여 몽골 상공업에 투자하였다. 쉬수정이 후레에서 여기저기를 다니며 세 번씩이나 절하라고 한 것은 실로 고문이나 다름없었다. 쉬수정이 취한 행동은 모욕과 망동에 가까운 것으로 몽골인의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던 민족의식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따라서 그로 인해 몽골이 독립을 선포한 이래 몽골의 재정경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다시 중국의 수중에 들어갔다.¹⁸⁹⁾ 당시 쉬수정의 강경한 수단은 몽골인들을 분노케 하였고 다시금 독립을 이루어 내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일깨워 주었다.

1920년대 후반, 몽골 시장에서 중국 무역업자들을 밀어붙이는 정책에 답답하고 싫어했던 상황 속에서 몽골에 있었던 중국인들은 과거의 세력을 재차 활성화하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한, 일본과 협력 관계를 맺기 시작했으며 일본 정보기관의 간첩으로서 활동했다.

1926년에 중국의 리하이핑(Lee-Hai Ping)은 일본의 정보기관 인원이었던 코지마(Kojima)의 지원을 받았다. 코지마 박사는 1923년부터 1931년까지 몽골인민공화국의 일본인 간첩으로 중국 기업과 연루되어 있었고, 결국 중국인 리하이핑(Lee-Hai Pin) 1929년에 간첩죄로 추방되고 일본인 코지마도 1930년에 몽골에서 간첩죄로 추방되었다.¹⁹⁰⁾

당시 중국은 항일투쟁과 국공내전의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몽골에 대해 신경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슬슬 몽골에 대한 힘과 관심이 약해진 기회로 1945년 2월 얄타 회담에서 몽골에 대

189) 위의 책, p.30.

190) B.Baabar, (Ulaanbaatar, 1999), p.140.

한 현상유지가 합의되고 같은 해 8월 ‘중소우호 동맹조약’에서 중국의 ‘몽골 정치적 독립과 영토 존중’을 약속받았다.

결론적으로, 사실 당시의 중국으로서는 역사적 혼란기에 몽골을 잃은 것이 뼈아픈 일이었다고 볼 수 있다. 몽골은 4,676 킬로미터의 긴 국경을 중국과 맞대고 있었으며 한반도의 7배가 넘는(1,564,160제곱 킬로미터), 세계에서 17번째로 넓은 면적에 인구가 적고 석탄, 구리, 텅스텐, 주석 등 다량의 지하자원으로 세계 8대 자원 국으로 부상하였기에 중국으로서는 큰 대가를 치러서라도 몽골은 삼키고야 만 했던 목에 걸린 가시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다.

III. 1946년 초이발상의 몽골 독립 전략

1. 초이발상 및 몽골의 정치 세력들

초이발상¹⁹¹⁾은 몽골의 가장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역사를 만든 독재자였거니와 또한, 다른 시선으로 본다면 그러한 역사적 시기에 맞추어 태어났는지 인물이기도 했다. 그의 삶은 몽골인들에게 몽골 역사상 큰 변혁기를 보여주었다. 그는 벡드칸 정부에서 결정한 젊은이들을 외국으로 교육 보낸 기회로 러시아에서 공부하고 중국을 몰아낸 몽골의 혁명과 집단의 구성원, 공산주의 폭력배하고 공식적으로 인정된 독립의 주인, 크렘린(Kremlin)에 의해 살해된 몽골 지도자들의 조직에 참여했었다. 또한, 다른 편으로는 소년 라마 승려에서 몽골의 실제 사회 상황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여 갑작스럽게 권력의 핵심 지위를 장악하였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험의 부족한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냈다. 또한, 그는 러시아와 같은 큰 정치 세력에 의해 정치적으로는 손 다리가 되어 묶여있는 운명에서 처해 있었다. 하지만 몽골의 20세기 첫 50년

191) 허렐러깅 초이발상(Khorloogiin Choibalsan, 1895년 2월 8일-1952년 1월 26일).

의 역사는 초이발상의 존재가 없이는 진행될 수가 없었음도 인정해야 한다.

오늘의 몽골독립을 벅드칸, 담비자, 남나수렝, 한다더리지, 체렝치멧, 카이산, 바담덜지, 온게른, 나이당 왕조, 제벵 리더, 막사르잡, 단장, 버더, 렌치너, 잠스라너, 담바덜지, 스탈린, 겐텡, 데민, 보로실로프, 몰로토프, 아마르 등 많은 역사 인물들의 참여와 노력이 들어가 있지만 역시 제일 많은 판단을 내린 초이발상 만이 최종 결승선에 도착하였다.

초이발상은 1929년에서 1930년 사이의 몽골의 국가 원수였다. 1934년까지는 초이발상은 몽골에서 그다지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다. 당시 몽골은 코민테른의 실험적 땅이었으며 1932년부터 스탈린이 몽골을 지도하기 시작하여 몽골을 중국과 일본을 방어하는 독립 국가로서 필요성을 부각했다. 바로 이때부터 몽골은 실험의 땅이 아닌 큰 세력 국가들의 지정학적 경쟁으로 타격을 입기 시작했다. 스탈린에게 필요했던 독립 국가는 단순히 방어적 역할을 넘어 소련과 똑같은 이념을 가진 소련의 전략을 남들 나라에 광고할 수 있으며 또한, 소련의 말을 잘 듣는 위성국으로서의 몽골이 필요하였다. 스탈린은 이러한 논리를 겐텡과 아마르에게 전달해 주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스탈린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로써 초이발상이 선택된 것이다. 1939년에서 1952년 사이의 몽골 총리로, 몽골인민공화국의 지도자였던¹⁹²⁾ 초이발상은 스탈린의 의사를 완전히 이해한 것보다는 오히려 스탈린에게 정치적으로 납치를 당한 것이다.

초이발상은 1895년 2월 8일에 동부 몽골 더르너드(Dornod) 아이막에서 가난한 미혼모 허털러(Khorloo)의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났다. 형 샤랍(Sharav: 1885-1946), 누나 네렝(Neren: 1887-1944), 셋째는 태어나자마자 요절하였다. 그 후 초이발상은 집안의 넷째로 태어났고 잠츠(Jamts)의 아들로 도가르(Dugar)라는 이름으로 삶을 시작하였다.

3살까지 할머니 산과 델게레흐(Delgereh)에게 입양되었고 그 후 이무 네렝(Neren)의 집에서 양치기 소년으로서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13살까지 평범한 유목민 가족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다.¹⁹³⁾

192) B.Baabar, *Vol.I*, (Ulaanbaatar, 2015), p.7.

당시 몽골인들의 삶이 어려웠기에 쉽게 식량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수도원으로 보내는 방식뿐이었다. 또는 당시 사회에서는 한 가족에서 자식 3명 중 1명을 꼭 라마 승려로 수도원에 보내는 것은 보편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도가르는 초이발상(뜻: Tibet's religious name)이라는 이름을 스님으로부터 받아 상-베이싱 후레(San Beysin khuree: local Buddhist monastery)로 갔었다. 하지만 그는 사찰에서 별 이유 없이 자주 심각한 처벌을 받았고 어둡고 의미 없는 삶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삶에 지친 그는 3년 뒤 16세의 나이로 사원에서 도망쳐 10일 동안을 걸어서 수도 후레로 갔다고 한다. 초이발상은 자기의 짧은 전기(傳記) 중에서 후레에 관하여 서술할 때: “친척이나 아는 사람 없었기 때문에 밖에서 자고 시장에서 고기를 배달한 일을 한 달 동안 한 후 바트멍흐(Batmunkh)이라는 얼굴만 아는 사람을 만나 궁전 수호자 일을 하러 떠나게 되었다. 그때 날씨가 추어지면 가까운 곳에 있는 홀로 사는 할머니 집에서 따뜻해지고 지내고 있었다. 어느 날 그 할머니는 집 안일을 도와준다면서 밥을 챙겨 주었고 따뜻한 옷과 구두를 주셨는데 그 후로는 삶이 좀 나아졌고 친구들도 만들고 여러 곳을 방문하기 시작했다.”¹⁹⁴⁾라고 전했다.

후레에서 부리야트 출신 러시아 선생 니콜라이 타라서비치 단치노프(Nikolai Tarasovich Danchinov)를 만나 그의 도움으로 이르쿠츠크(Irkutsk)에서 자담바(N.Jadamba), 구르센(Ts.Gursed), 바트-어치르(Bat-Ochir) 등 학생들과 함께 1914년부터 1917년까지 3년 동안 러시아어 전문학교에서 통역 과정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¹⁹⁵⁾ 페르신(D.P.Perishin)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동안 몽골 유학생들을 돌봐주고 있었으며 그는 초이발상 대해서: “그는 조용하고 관심과 열정이 결여했지만 항상 말을 잘 듣는 젊은이였다.”라고 적었다.¹⁹⁶⁾

초이발상이 아직 유학생이었을 때 1917년 10월 러시아에서 10월 혁명, 혹은 볼셰비키 혁명이라고도 부르는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

193) 위의 책, p.20.

194) 위의 책, pp.53-54.

195) 위의 책, pp.55-60.

196) 위의 책, p.68.

다.¹⁹⁷⁾ 초이발상은 이르쿠츠크에서 공부했던 시기 대해서: “당시 소련의 사회 상황은 세계대전 때문에 사회 모순이 극심했고 혁명이 일어날 준비들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1917년 2월에 ‘왕을 없애기’라는 플래카드와 깃발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을 보고 상황을 전혀 이해 못하고 지내가고 있었다는 기억이 난다”라고 서술하였다.¹⁹⁸⁾

러시아에서 많은 상황이 격변해 가는 모습을 보고 그는 처음으로 공산주의 사상을 접하게 되었다. 초이발상이 몽골로 귀국한 후 버더라는 사람이 집 없는 초이발상의 러시아어 능력을 높이 사 그와 같이 살기로 하고 그를 자신의 집에 초대하였다. 그는 라마 승려였고 유창하게 몽골어, 티베트어, 만주어 실력이 요구된 비서, 선생, 발표자, 시사평론가였다. 버더는 초이발상의 미래에 큰 영향을 주었다. 버더는 당시 볼셰비키였던 겐벨쩍스키(Gemberjevski), 츠브타랍 (Tsibiktarov), 코체렌커(Kucherenko)들과 친구 사이였다.¹⁹⁹⁾ 러시아어를 모르는 버더는 초이발상의 통역을 거쳐서 중요한 러시아의 볼셰비키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많다고 한다. 이처럼 버더를 통해 초이발상을 러시아인들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고 버더 또한 초이발상의 러시아어 통역을 걸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와 동시에, 소련의 국내 상황이 심각해질수록 중국은 더욱 몽골에 지배 야욕을 노출해 가고 있었다. 몽골의 사회는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아주 긴급한 상황이었다.

1918년에 당시 후레에서 반-중국 비밀 조직이 독립 투쟁을 하고 있었는데 초이발상은 영사관파(Consular Hill, 몽골어로:Konsulyn denj)라는 비밀 조직에 가담하였다.²⁰⁰⁾

197) 위의 책, p.69.

198) 위의 책, pp.69-70.

199) 위의 책, p.91. 온게른을 후레에서 풀어주고 있을 때 그들을 살해하였다.

200) I.Lomakina, “The Capital City of Mongolia, Old and New”, (Moscow, 2006), p.64. 본문 중에 비밀 소조, 비밀 집단, 혁명 집단 등 단어들은 몽골 혁명세력의 발전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정의한 것이다. 비밀 소조는 시간상으로는 영사관파와 후레파 두 소조가 창립된 1919년 초부터 두 소조가 합병한 1919년11월11일까지이다. 비밀집단은 위 두 비밀 소조가 합병한 후 1920년6월25일 몽골인민당 창립까지이다. 혁명집단은 몽골인민당의 창립부터 1921년3월1일 카흐타에서 개최한 몽골인민당 제1차 대표대회까지이다. 이 혁명집단의 7인의 핵심 인물들이 각각 모스크바와 이르쿠츠크, 후레 등 지역에서 혁명의 역량을 확대해나갔다. 이 기간에 소련으로부터 지원을 승낙 받았으며, 카흐타에서 당의 대회를 개최하였다.

1919년 초이발상이 가입한 비밀 조직과 같은 목적을 가진 동쪽 후레파(East Urga 몽골어로: Zuun khuree)²⁰¹⁾를 만났다. 두 혁명 그룹은 공동 회의를 개최하고 조직을 합병하게 되었다.

젊은 초이발상은 그 이후로부터 몽골인민공화국을 세우는 일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여 1929년부터 스탈린의 관여로 몽골의 지도자로 선출되었다. 초이발상은 소련 영향력의 영도하에서 독립을 도모하기 위해 소련에 대한 의존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몽골의 레닌이라는 이름을 가진 수흐바타르는 신해혁명으로 몽골이 독립하자 군에 입대하여 기관총 부대의 소대장이 되었다. 1917년 러시아에서 공산 혁명이 일어나자 자극받은 그는 1920년 초이발상과 함께 몽골인민당을 만들어 정부를 세우기 위한 투쟁에 들어갔다. 그때 초이발상은 소련의 지원을 얻어내고 독립군의 유력한 실력자이자 몽골의 혁명의 아버지라 불리는 군인, 정치인이었던 수흐바타르 장군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고 그를 스승처럼 모시면서 따랐다.

<그림 3-1> 1921년, 수흐바타르가 초이발상과 함께



201) B.Lkhagvasuren, "Mongolian IR, independence history", (Ulaanbaatar, 1995), p.37. 영사관파에는 버더, 초이발상, 차드르잡, 러설 등이 있었으며 후레파에는 수흐바타르, 단장, 덕섬 등이 활약하고 있었다.

1929년부터 1932년까지 몽골 정부는 극심한 종교 탄압과 사유 재산 몰수, 유목의 강제적인 집단화 등 급진적 사회주의 정책을 실행하고 대숙청(Great Purge)을 시작했다. 몽골 내 각 부 장관을 지낸 사람을 포함한 많은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반혁명이나 간첩 혐의로 처형되었다.²⁰²⁾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바로 몽골의 스탈린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위대한 독재자로 거듭나게 되었다.²⁰³⁾ 몽골인들의 많은 눈물과 피를 흘려 얻은 토지와 가축을 모두 몰수한 후 소작인들에게 재분배하였다.²⁰⁴⁾

1939년 할힌골 전쟁으로 일본군을 격퇴하고 결과적으로는 소련과 일본이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되었다.²⁰⁵⁾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는 소련과의 상호원조 및 협조의 의무에 따라 그는 몽골군을 전쟁에 파견하여 소련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소련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당시 소련에 300kg의 금, 100,000달러, 현금 250만 투그릭(몽골 돈)을 지원하였고, 몽골 혁명군이라는 53대의 탱크를 가진 탱크 부대와 몽골 전투기 부대를 전선으로 보냈다. 또한, 485,000마리의 가축을 판매하고, 32,000마리를 기증했으며, 236대의 차량으로 네 차례 식품과 옷을 원

<그림 3-2> 1942년, 11북서국경군대에게 몽골대표단이 선물 전달.



202) B.Baabar, *Vol.II*, (Ulaanbaatar, 2015), p.102.

203) 위의 책, p.118.

204) R.Rupen, (California, 1979), p.46.

205) Larry Moses, "Soviet-Japanese Confrontation in Outer Mongolia: The Battle of Nomanhan-Khalkhin Gol", (Indiana University, 1967), p.78.

조물자로 보냈다.²⁰⁶⁾ 또한, 세계대전 말기에는 내몽골과 중국 동부 지역으로 진격하였다.²⁰⁷⁾

1941년 중반에 개최된 몽골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의 총회에서는, “독일 나치스에 저항한 소련의 올바른 대애국전쟁은 몽골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위한 것이며 기본적으로는 모든 인류의 자유를 위한 전쟁이다.”라고 언급했다. 독일 파시스트 투쟁을 용감하게 응징하는 소련을 전방위적으로 도와야 하는 것은 몽골의 주요 목표였다. 왜냐하면 세계의 인류를 모두 노예로 만들려고 전쟁을 도발한 히틀러를 징벌하지 않는다면, 몽골은 앞으로 자유롭고 또한 성공적으로 성장을 할 수 없다고 모든 회의 결정에서 강조하였다.

몽골의 노동자들은 “모든 것을 전방으로, 모든 것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표어를 만들었다. 수도 울란바타르에서 산업 공장 노동자와 근무자, 수공업자 등 모든 분야의 팀들은 주말과 야간에도 일하고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 군인들에게 따뜻한 의류 및 기타 필요한 제품을 만들라는 명령을 몽골 정부로부터 받아 명령을 충실히 실행해 나가고 있었다. 당시 국무총리 대리 룽상(S.Luvsan)은 특별위원회를 담당하여 붉은 군대를 위한 식량을 위해 사냥꾼을 국내적으로 관리하여 야생 영양과 돼지고기를 준비하는 일을 도맡았다. 사냥꾼들은 고기 준비 계획 목표를 항상 초과 달성하고 있었다. 여성들도 똑같이 열심히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거의 모든 지방의 여성들은 직물 학원에 다니며 목표를 이루고자 결심하고 배우고 있었으며, 배우고 난 후에는 바로 생산에 투입하고 소련에 수제 셔츠, 따뜻한 재킷, 장갑과 양말 등을 제공하였다. 이토록 당시 몽골의 많은 이들은 소련의 전쟁 승리를 돕는 자발적인 기부자가 되었다.

1943년 2월 2일에 크렘린에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대접하는 만찬회가 열릴 때 초이발상이 일어서면서 “전쟁 첫날부터 몽골 인민들은 있는 힘을 다해 붉은 군대를 지원해 왔다. 몽골인들은 소련이 승리할 것을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²⁰⁸⁾고 말했다. 이처럼 초이발상은 중

206) M.Sanjdor, “XX-th Century's Mongolia”, (Ulaanbaatar, 1998), p.65.

207) G.Murphy, (Berkeley, 1966), p.74.

국보다 소련에 더욱 의지하고 소련을 믿으면서 노력한 끝에, 1945년 승리를 앞둔 연합국이 1945년 2월 4일 얄타회담(Yalta Conference)을 개최하였는데, 소련 측에서 몽골의 현상유지를 제시하고, 승전 강대국 대표들은 몽골의 현상 유지(status quo)를 승인함과 동시에 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 동맹국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동맹국의 승리를 이루어낸 데에 큰 역할을 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였다.²⁰⁹⁾

초이발상은 1945년 7월 4일 특별하게 소련에서 보내 준 더글라스(Duglas) 비행기로 모스크바에 도착해 브노킵(Vnukov) 공항에서 내릴 때 처음으로 독립 국가의 지도자로서 인정받게 되었다. 세계가 바라보고 있을 때 제1부 수상 겸 외상으로 소련 외교를 전담하다가 독소전쟁이 발발한 후에는 국가방위위원회 부의장이 된 몰로토프(V.M.Molotov), 내무부 상급 공무원 메를루코프(V.N.Merlukov) 그리고 스탈린 등이 초이발상을 만났다.²¹⁰⁾ 결국, 중국의 장제스(Chiang Kaishek) 정부도 몽골 총선을 조건으로 독립을 수용하게 되었고 1945년 8월에 몽골의 독립을 인정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몽골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²¹¹⁾ 바로 그때 내몽골을 중국의 자치구로 넘기고,²¹²⁾ 또한, 교육 체계가 크게 변경되어 전통 몽골문자(uigar)에서 키릴문자(cyrillic alphabet)로 변경하였다.²¹³⁾ 1945년 10월 20일, 몽골에서 국민투표를 시행되어 총 유권자의 98.4%에 해당하는 487,285명이 투표하여 100% 몽골 인민공화국의 독립에 찬성표를 던졌다.²¹⁴⁾ 중국 국민당 정부는 투표 결과를 1946년 1월 5일에 발표하였고,²¹⁵⁾ 1946년 2월 5일에 중국과 처음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²¹⁶⁾ 1946년 2월 27일, 몽골은 소련과 ‘우호 관계와 상호원조’ 및 ‘경제문화 협력

208) B.Baabar, *Vol.II*, (Ulaanbaatar, 2015), p.110.

209) G.Murphy, (Berkeley University, 1966), p.152.

210) C.Bawden, "Modern history of Mongolia", (London, 2005), p.188.

211) M.Sanjdorj, (Ulaanbaatar, 1998), p.73.

212) Hiroaki Kuromiya, "The Voices of the dead: Stalin's Great Terror", (Yale Univ, 2007), p.39.

213) V.Rogovin, "1937: Stalin's year of terror", Book I, (Moscow, 2003), p.94.

214) M.Sanjdorj, (Ulaanbaatar, 1998), p.106.

215) 위의 책, p.128.

216) B.Baabar, *Vol.II*, (Ulaanbaatar, 2015), p.135.

에 관한 협정'²¹⁷⁾을 각각 체결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제적 이념 체제의 새로운 상황 속에서 몽골인민공화국의 외교적 입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를 유엔(United Nation)이라고 생각하고 몽골 정부는 1946년 6월 21일에 유엔에 회원가입 신청서를 처음으로 제출하게 된다.²¹⁸⁾

몽골은 스탈린 및 초이발산의 정책을 따라 전쟁을 열심히 한 결과, 1946년 이후로부터는 발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몽골에서 병원, 몽골국립대학교, 스탈린과 레닌의 교육을 받은 '나이람달(Nairamdal)' 소년단(пионеры-피어네르), 결혼 궁전, 박물관, 건물, 철도 등이 건설되었고 항공의 시대가 열리었다. 그리고 농지 개간 사업에 기술을 제공하고, 재정을 보조하고, 기술자를 파견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시베리아, 카자흐스탄 등 지역에서 농지 개간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 300명을 파견하였다. 또한, 토양을 조사하여 농사에 적합한 170만 헥타르의 땅을 찾아내어 활용할 농지와 이양할 농지를 구분하였다. 그 밖에도 토양을 개량하고, 농업 기술을 개선하고, 대량의 농업 기술자들을 양성했다.²¹⁹⁾

초이발산의 욕심은 몽골의 독립만이 아니었고 최종적으로 내몽골과 외몽골을 통일하는 것이었다.²²⁰⁾ 하지만 스탈린에게 있어 몽골은 지리적인 정치 게임 참가자의 일부분이었다. 1946년 2월에 모스크바에서 초이발산이 스탈린을 만났을 때, 스탈린은 초이발산이 여전히 몽골 민족의 통일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국민당)은 초이발산의 이러한 단상에 매우 반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시에 잘 알고 있었다.²²¹⁾ 1945년 가을 일본의 항복 후 국민당은 불만을 품고 모스크바에서 몽골의 움직임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²²²⁾

217) B.Baabar, *Vol.II*, (Ulaanbaatar, 2015), p.138.

218) S.Radchenko, "Carving up the Steppes: Borders, Territory and Nationalism in Mongolia: 1943-1949", (Moscow, 2001), p.79.

219) B.Baabar, *Vol.II*, (Ulaanbaatar, 2015), p.140.

220) S.Radchenko, (Moscow, 2001), p.81.

221) B.Baabar, *Vol.II*, (Ulaanbaatar, 2015), p.143.

222) Christopher Bellamy and Joseph Lahnstein, "The new Soviet Defence Policy: Khalkhin gol 1939" (Alexandria VA, 1990), p.24.

이 시기 몽골은 냉전기 수행되었던 ‘한쪽으로 기울기’ 전략에서,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를 동일하게 설정하는 ‘중립’ 전략으로 몽골의 대외정책지향을 전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내용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면, 1946년에 초이발상의 영도하에서 몽골이 소련과 중국의 경쟁 사이에서 소련에 대해 적극적으로 편승한 전략은 사건(event)이 아니라 역동적인 과정(process)이라는 형식으로 발생하였다. 이러한 대 소련 정책을 통해 바라던 독립을 쟁취하였고 안보를 보장 받았으며, 경제 지원을 획득하여 기본적인 국가 발전을 이룩하였다. 또한, 중국 및 소련의 분쟁이라는 격화된 경쟁 시기에 중국이 소련 때문에 경쟁적으로 몽골을 지원하게 되면서 상당한 이득을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이득과 동시에 영토 상실, 국내의 정치적 및 사회적 혼란도 겪어야 했다. 이 시기 몽골의 전략, 다시 말해서 초이발상의 지도 정책전략은, 강대국 사이에 처한 운명을 가진 몽골이 힘겹게 독립을 쟁취한 했으나, 중립 정책을 고수할 만한 국력이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그 시기 최우선으로 되는 외교 정책 목표는 무엇보다 국가안보의 문제인 생존, 즉 독립의 유지 문제였다. 만약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만한 국력이 없는 상태에서 중립 정책을 고수하였다면 독립을 쟁취할 수도 없었을 것이며, 독립이 되었다 하더라도 양측의 경쟁 속에서 독립을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대 소련의 대한 정책은 상당한 부작용이 있긴 하였지만 주어진 여건 하에서 초이발상의 최선의 정책이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의 일생은 강대국의 다툼에 좌우되었던 몽골의 국제적 지위의 불안정성을 개변하려는 뜻을 가지고 투쟁을 시작한 결과, 몽골 민족의 독립 염원 실현하였다. 또한, 내몽골과 외몽골의 통일을 기대했던 민족주의의 흥기와 좌절, 그리고 몽골을 둘러싼 국제 관계에서의 이해관계의 거의 모든 부분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초이발상의 인생 역정에 대한 해명은 동 시기 몽골의 역사와 주변 정세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그가 활동하던 1921년부터 그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었고, 이러한 일련의 연구에 비롯하여 그의

인생과 행적이 상당히 상세하게 밝혀졌다. 이로써 그의 행적 중, 1946년에 있었던 그의 인생의 역정에 대한 평가를 해보았다.

몽골 민중의 감사 및 증오를 받은 정치가 초이발상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기에 그는 실로 참기 어려운 시기에 몽골을 영도한 혁명가, 군인, 영웅이었다. 당시 몽골은 독립을 위해 정치 및 군사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소련뿐이었고 초이발상이 1952년 1월 26일에 모스크바에서 사망할 때까지 그는 몽골과 소련 사이의 연결 다리였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중국이나 소련에 어느 나라에도 귀속되지 않고 외몽골과 내몽골을 하나로 통합하여 대몽골을 수립하여 독립시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두 강대국 사이에 낀 운명을 가진 몽골로써는 눈앞에 존재하고 있는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으로부터 영토와 주권을 수호하고, 약한 국력을 가진 내륙 국가라는 지정학적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한쪽에 의존하기(leaning to one side)’, 즉 소련의 힘을 이용한 것은 어찌 보면 초이발상에게 있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

2. 몽골 독립에 관한 소련의 입장

1945년 7월 2일 소련 중국 우호협정을 체결하는 회의에서 스탈린이 “어떤 나라들은 외몽골을 통해서 소련의 극동 지역 세력권을 박탈하려고 한다. 외몽골이 없으면 소련이 극동 지역 영토를 보호할 수 없다. 외몽골은 중화민국과 통합되는 것을 거부하고, 소련과 통합되는 것도 거부한다. 그러므로 독립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뿐만 아니라 외몽골의 어떤 인사들이 내몽골을 부추겨서 대몽골국을 건국할 희망을 품고 있다. 만일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북중국이 위협에 빠질 것이다.”²²³⁾라고 했을 때 송쯔웡(Sung Tzu-Weng) 중국 대표가 “중화민국 정부는 절대로 영토를 포기할 수 없다. 중화민국은 국민에게 외몽골을 포함한

223) D.Narantsetseg, D.Ulziidolgor, “Mongolian Independence: 1945-1961”, *Mongolica An International Annual of Mongol Studies*, Vol.17, (Ulaanbaatar, 2006), p.115.

모든 영토를 보전한다고 약속해 왔다.”라고 주장하면서 몽골의 독립을 거부했다.²²⁴⁾

1945년 7월 7일 개최된 소련 중국 간의 회담에서는 중국 대표는 “알타 회담에서 외몽골의 현상유지를 결정했을 뿐, 외몽골의 독립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라고 하자, 스탈린은 “외몽골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으면 소련은 일본과의 전투를 위해 중국과 연합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²²⁵⁾ 이에 중국 측은 소련의 의사가 변하기 힘든 것으로 짐작하고, 몽골 독립 문제를 담보로 가능하면 많은 것을 얻어내기로 전략을 바꾸었다.

따라서 중국은 첫째로는, 외몽골의 독립 문제를 중국의 국토 보전이 회복된 후에 재차 논의하고 둘째로는, 소련이 만주 지역 안전을 보장하고, 공산당을 지원하지 않으며 셋째로는, 신장 위그르 지역에서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넷째로는 외몽골에서 중국으로부터의 독립 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몽골에서 국민투표를 실행한다면 중국 정부는 외몽골의 독립을 승인하고 두 나라의 국경은 현재의 상태로 하겠다고 하였다. 결국, 소련이 이를 수락하여 중국과 각서를 교환하였다.²²⁶⁾

1945년 10월 20일에 실시한 몽골 국민투표에서 총 유권자의 98.4%에 해당하는 487,285명이 참가하여 100% 몽골인민공화국의 독립에 찬성표를 던졌다. 중국 국민당 정부 대표들이 투표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몽골 인민공화국 국가 사회의 의장단은 1945년 11월 10일에 투표 결과를 1946년 1월 5일에 승인하고, 1946년 2월 5일에 양국 사이에 외교 관계가 수립되었다.²²⁷⁾

세계 2차 대전에서 소련 동맹국으로 활동하고 승리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을 스탈린이 이렇게 높이 평가하였다. 몽골의 독립에 소련의 역할이 아주 컸으며, 중국에서 오는 거대한 저항을 물리치고 중국으로

224) 위의 책, p.117.

225) 위의 책, pp.117-118.

226) 위의 책, p.118.

227) Ш.Сандагдорж, “БНМАУ-ын гадаад харилцааны баримт бичгүүдийн эмхтгэл боть. Sh.Sandagdorj, “International relations documents of Mongolia/몽골인민공화국의 외교 문서편집”, (Ulaanbaatar, 1980), p.125.

부터 독립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스탈린의 전략과 일치하여 몽골이 현상을 유지하는 데 원동력이 되어 준 것이다.

이렇게 몽골은 중국부터 승인을 받아 초이발상의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지만 안타깝게 또는 어쩔 수 없이 외몽골과 내몽골이 통합해 완전한 독립을 이루고 싶었던 그의 염원은 수포로 되었다.

독립 나라가 되었지만 15개의 연방구성공화국들을 논외로 하면 아시아에서 유일한 소련의 완충국이자 위성국으로 여겨졌다. 냉전기 소련과의 긴밀한 후견국-위성국 관계로 인해 심지어 ‘16번째 구성공화국’이라는 별칭을 갖기도 했다. 그러나 몽골의 소련에 대한 종속을 일반적인 것으로 볼 수만은 없다. 눈앞에 존재하는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영토와 주권을 수호하고, 약한 국력을 가진 내륙국이라는 지정학적 한계를 극복하는데 있어 ‘한쪽으로 기울기’는 어찌면 불가피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 소련 역시 극동에서 중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완충국이 필요했다.

소련은 1921년 중국의 지배에서 독립한 타누-투바인민공화국을 1944년 자국이 편입시켰지만, 중국과의 완충지대라는 지정학적 가치를 고려하여 외몽골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병합을 시도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몽골의 중국에 대한 강한 적대감 표출이 소련에게 더 많은 경제 원조를 얻어내기 위한 카드였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이와 함께, 러시아의 문화적 영향력도 몽골에서 눈에 띄게 강화되고 있었다. 러시아어는 제1외국어의 독점적 지위를 잡게 되었고 러시아어 가능자 비율은 다른 세대와 비교할 수 없이 높았다. 교육과 문화가 닮아갈수록 소련 편에서 몽골에 대한 전략은 쉬어지고 편한 분위기를 만들어지고도 있었다.

또한 요소는 러시아의 지난 200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 모두 세 번의 큰 침략을 당했는데, 그것은 모두 서쪽으로부터 왔다. 러시아인들이 ‘조국전쟁’이라 부르는 1812년 나폴레옹의 러시아원정에서는 모스크바를 프랑스 육군의 수중에 내주어야 했고, 1차 세계대전에서는 독일 육군에 의해 심대한 타격을 입고 짜르체제가 붕괴했으며, 1941년 ‘대조국전쟁’에서는 약 2천만 명의 소련 인민들이 목숨을 잃는 역사상 가장

큰 손실을 입었다. 따라서 러시아가 2차 대전 직후 동유럽에 위성-완충국들의 고리를 조성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지정전략이었다.

매킨더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13-15세기 240년간 몽골-타타르의 러시아 지배와 20세기 초 일본의 러시아 극동 점령이 보여주듯이 예니세이 강 너머 대평야의 남동쪽에도 역시 지정학적 취약성이 존재해왔다. 따라서 이 지역에 러시아는 극동공화국, 몽골 등의 완충국을 설정하는 전략을 취했다.²²⁸⁾

결론적으로, 몽골은 ‘중국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만’ 러시아를 이용하려고 했다는 것이었으며 러시아는 몽골에서 공산주의 확산, 경제적인 발전, 지리적인 전략에 이용 등 흥미를 보였다는 점에서 양국의 시선 차이는 잘 드러난다. 이러한 차이는 몽골 지도자들에 대한 태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3. 몽골 독립에 관한 중국의 입장

몽골 독립이 갖는 중요성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독립을 둘러싼 제반 문제가 상당히 상세하게 밝혀져 있다. 그럼에도 특정 문제에 있어서 자국의 정치적 입장에 얽매어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심한 견해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독립의 배경에 관한 문제인데, 몽골이 중국에서 과연 어떻게 하여 독립을 이룩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다. 몽골 연구자들과 중국 연구자들은 이에 대하여 정반대의 평가를 시사하고 있다.

몽골 연구자들은 기본적으로 청나라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진행된 반청투쟁의 결과로 이해하고 있는 것에 반해, 중국 연구자들은 이를 시종일관하게 제정 소련의 연출에 의한 타율적인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다.²²⁹⁾

228) Halford J. Mackinder, "The Round World and the Winning of the Peace", *Foreign Affairs* 21-4, (Essay, 1943), p.599.

229) Sh. Sandagdorj, (Ulaanbaatar, 1980), p.133.

몽골의 독립에 이르는 역사 과정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몽골과 중국 연구자들의 관점 모두 그렇게 주장할 만한 근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몽골 독립은 제정 러시아, 또는 소비에트 러시아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사건이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청나라 지배 이후, 특히 19세기 말기 이래 보여준 몽골의 반중 투쟁과 이에 대한 몽골 지배층의 대응을 놓고 보면 모든 사건이 몽골의 주체적인 노력의 산물이라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중국 연구자들이 독립에 연관된 사건을 집요하게 제정 소련의 연출이라고 기록하고, 몽골 측 연구에 대하여 매우 예민하게 대응하는 것은 역사의 진실과는 별개로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예를 들면, “중국 연구자들은 몽골 중국 관계사 및 몽골 역사를 임의대로 기술하는 등 몽골 역사를 왜곡해 왔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몽골 역사를 중국 역사의 일부로 편입시키고, 몽골족을 중화민족의 한 부분으로 편입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연구자 나랑²³⁰⁾의 지적에서 드러나듯이, 이 문제는 단순히 역사적 사건에 대한 평가의 차원을 넘어 사실상 몽골과 중국의 정치 현안이 되어 있다. 심지어 일부 몽골 연구자들은 독립 문제에 관한 중국학자들의 연구를 평가하여 “오늘날까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몽골의 독립 시기인 1911년부터를 중화인민공화국에 편입시키려는 중국의 국가 전략을 이루기 위한 것”²³¹⁾이라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하고 있다. 또한 “중국 측에서 외몽골을 풀어줌으로써 원나라의 역사를 중국화하려는 동북 공정에 큰 결함이 생긴 것은 물론이고 석탄, 금, 은, 희토류 등 수많은 자원이 대량으로 묻혀 있어 몽골은 경제적으로 매우 가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라고 연구자 산닥도르지²³²⁾는 언급하고 있다.

지나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중국이 1946년 이후까지도 몽골을 중국으로 편입시키기 위하여 끈질기게 노력했던 중국 정부의 정책을 살펴보면, 이러한 주장을 그 현실적 합리성을 잘 들어내게 된다.

230) D.Naran, “History of China, XX Century”, (Ulaanbaatar, 2002), p.175.

231) 위의 책, pp.175-177.

232) Sh.Sandadorj, (Ulaanbaatar, 1980). p.138.

물론 몽골 연구자들은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생각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학술적인 차원을 넘어 현재의 몽골과 중국 간 외교 관계 및 중국의 대몽골 정책과도 맞물려 사실상 정치적인 양상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양국 연구자들은 어떤 식으로도 자국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따라서 객관성도 보장받기도 힘들다.

따라서 일본과 영어권을 비롯한 제3국 연구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몽골과 중국 양측의 주장 가운데 어느 쪽이 사실에 가까운가를 판단할 수 있다. 위에서 제기된 중국 연구자들의 평가 가운데서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몽골 연구자들이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문제는 이른바 제정 러시아의 사주론에 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미국 연구자 머피의 견해이다. 그는 1966년에 출간된 저서의 한 항목인 ‘소비에트의 몽골’에서 외몽골 독립을 다음과 같이 러시아의 사주 내지는 선동으로 단정하고 있다.

중국 역사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실제로는 유물론적 역사관에 입각해 ‘통제된 역사 해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원나라라는 왕조는 몽골제국의 일부로서 중국을 통치한 것이지 중국이 몽골 제국을 통치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몽골 고원을 마치 중국의 영토인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이어서 중화인민공화국 초기에는 몽골의 약탈과 정복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하였는데, 이제는 몽골의 파괴가 약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회 경제 전반이 회복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중국은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보고 싶은 대로 재해석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몽골 및 중국의 학자들 양측의 견해가 충돌하게 된다.

몽골은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승인받은 후, 1946년 6월에 유엔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중국 대표가 ‘몽골은 인접 두 국가와만 교류해 왔고, 다른 국가들과 교류한 역사가 없으므로 독립국가로서의 역량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몽골과 관련된 사항을 최소 1년으로 보류시킬 제안을 했다.²³³⁾

이 상황만 보면 중국은 몽골 독립과 안전을 여러 의미로 위협하고 있었으며, 마지못해 독립을 인정하면서도 소련과 협의하여 몽골을 중국 국토에 통합시키는 야욕을 가지고 있었기에 중국에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던 몽골에게 더욱 신뢰를 잃게 되었다.

IV. 1946년 세계의 상황

1. 몽골에 미치는 영향

인구가 적은 몽골이 소련이 제공해 주는 보호의 손 밑에서 안보를 받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현황에 별 영향을 받지 않았고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소련붕괴까지는 어느 정도 발전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다.

소련 시절 건설되었던 ‘화력발전소’, ‘울란바타로 철도’, 또는 울란바타르의 도시 광장²³⁴⁾ 및 주변에 유럽식 건물들로 둘러싸여 지어졌었다.

<그림 4-1> 1932년 2월, 몽골의 첫 화력발전소.



233) G.Murphy, (Berkeley University, 1966), p.170.

234) 1946년 7월 11일에 혁명 25주년을 기념하여 유명한 조각가 초임발(S.Choimbal)과 잠바(N.Jambaa)가 8명의 팀으로 4m ‘수흐바타르의 말 탄 모습’을 청동동상으로 제작되었다.

<그림 4-2> 1938년, 울란바타르 철도.²³⁵⁾



그 건축물 중 외무부²³⁶⁾, 국립 대학교²³⁷⁾, 오페라 발레 극장²³⁸⁾, 서커스²³⁹⁾, 병원²⁴⁰⁾등이 건설했다. 그들의 이오니아식의 기둥, 머리, 코린트 양식 기둥과 벽들이 널리 사용되었다. 건물 건축 분야만 아니라 교육, 문화, 경제, 정치, 군사 등 이념적으로 밀접한 유대관계를 맺게 된 것을 보면 소련이 몽골에 가져다준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이 시기의 문화 분야에서 일어나 변화와 개혁은 청나라의 식민 지배의 폐해로 생긴 생활 및 사고의 낙후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초석을 놓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개혁 조치는 선진국의 사례를 통하여 국

235) 몽골의 철도 역사는 1938년 울란바타르(Ulaanbaatar)와 날라이흐(Nalaih) 사이에 750mm 협궤 및 43km 길이의 철로가 건설된 것이 시작이었다.

236) 1932년7월1일에 건설했다.1946년12월-1947년10월 사이에 현재 있는 건물로 이사했다.

237) 몽골국립대학교가 1942년10월5일에 설립되어 교원, 전문의, 전문 수의사, 축산 전문가 등을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잇달아 국립사법대학, 농축산대학 등이 설립되어 몽골에 현대적인 교육제도가 형성되었다.

238) 1931년에 건설했다.

239) 1935년에 건설했다.

240) 1931년11월1일에 2room 8침대, 1검사실, 1명 의사와 시작했다. 첫1년에 약100명이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가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다양한 지식과 학문을 습득하려는 희망에서 비롯되었다.

교육적 성과만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는, 정부에서 국가 학교를 설립했으며 교육 문제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을 개설하고 공식 교육에 관한 규칙과 교육 기관과 교육제도가 공식적으로 형성되었다. 둘째로는, 가정교육의 역할과 비중이 높았다. 셋째로는, 러시아에서 부리아트인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가 교육 상업을 맡긴 것이 러시아의 교육모델, 교육경험을 ‘수입’할 전제 조건이 되었다.

몽골 정부는 종교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교육기관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외무부가 교육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1912년 해당 부서 산하에 최초로 47명 정원의 소학교를 설립하였다. 그 외에도 각 도시 및 아이막과 호쇼²⁴¹⁾에 학교를 60여개 신설하였다. 이렇게 하여 청나라 지배시기에 시행하였던 만주어 몽골어 서기 양성이라는 제한적 목표의 교육을 폐지하고, 민족의 언어, 수학, 지리, 자연 과학, 역사, 체육 등 다양한 지식과 학문의 기초를 가르치는 일반 학교가 생겨났다. 또한 러시아 어문 학교가 세워져 러시아에서 온 교원이 학생들을 가르쳤다. 특히 몽골 정부는 이르쿠츠크 등 제정러시아의 여러 도시로 학생들을 보내 유학시켰는데, 이는 근대 문화와 교육이 몽골에 전파되고 진보 사상을 가진 지식인들이 배출되는 기초가 되었다.

<그림 4-3> 1926년, 독일 및 프랑스로 유학한 몽골학생들.²⁴²⁾



241) 몽골의 행정 구역은 21개의 아이막(aimag)과 그 하위 분류 단위인 315개의 쉼(sum)으로 나뉜다.

242) 독일출업자 몽골학생 공동체 회담. 2016년5월9일 발표내용: “1926년4월25일 당시 공부 일등 35명을 교육시키려 보냈었다. 1926년부터1930년까지 공부를 하고 들어왔었다.

1924년에는 인민교육부가 설립되어 문화 및 과학 분야에서 정부의 정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1925년에는 최초로 교원총회를 개최하여 교육의 질과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교원들의 의견과 제안을 수렴하여 이를 정부정책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1926년 소집된 몽골 인민혁명당 제5차 당 대회 및 몽골인민공화국 제3차 국가 대회에서는 문화와 교육발전 10년 계획을 논의하고 문화 분야에 배정하는 국가 예산을 증액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수가 증가하여 1927년에 도시와 지방의 초·중등학교 수가 100여 개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인민이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중행사와 교육활동을 실시했다. 이와 같이 민족·민주주의 발전 노선을 시행한 결과 국가 경제와 문화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1930년대 몽골 정부는 문화 분야의 발전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고 특히 문맹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예를 들어, 1935년에는 전체 인구의 5.8퍼센트 정도가 글을 읽을 줄 알았는데 ‘스스로 배워 남을 가르친다.’는 구호 아래 문맹 퇴치 운동을 벌인 결과 1941년 3월 25일에 MPRP의 중앙위원회 및 인민회의 협의회에 체덴발²⁴³⁾이 “키릴 문자를 쓰기”라는 발표를 했다. 1941-1942학년도부터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의 모든 수업을 키릴 글자로 진행을 시작했다. 1945년에 “당시 총인구의 20.8퍼센트만 배우었다는 조사단 결과 바탕으로 새 글자를 배우는 과정이 느리고 부족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1946년 1월 1일부터 국가의 모든 어른과 국장을 키릴로 변경해야 한다는 법령이 몽골민족에 내려왔다.

이와 함께 기술 전문학교가 설립되어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술자를 국내에서 양성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소련의 대학 및 기술 전문학

243) 욤자깅 체덴발(Yumjaagiin Tsedenbal, 1916년9월17일-1991년4월20일). 1952년 초이발상의 죽음 이후, 총리직을 승계하였다. 1940-1954년 몽골 인민혁명당 서기장, 1947-1984년 몽골 인민대회의 간부회 의장이었다. 스탈린 격하 운동의 영향으로 초이발상과 칭기스칸을 비판하였으며, 1950년대 후반-1960년대 초반 정적들을 성공적으로 숙청하였다.(1958-1959년 Dashiin Damba, 1962년 Daramyn Tumor-Ochir, 1963년 Luvsantserengiin Tsend, 1964년12월 “반당 집단”으로 불리는 Lookhuuz-Nyambuul-Surmaayav).

교에 젊은이들을 유학 보냈다. 그 결과 민족 인재, 그 중에서도 민족 지식인 계층이 생겨나 향후 국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결에서 보면 몽골은 헌팅턴이 주장한 것처럼²⁴⁴⁾ 양쪽에 있는 동양과 서양 문명의 충돌로 인해 그들에게 의존적이고 언젠가 중국에 동화될 예민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랫동안 러시아나 중국 문화와는 상이한 특유의 유목 문화를 끈질 있게 유지해 왔었다는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다.

2. 소련의 상황

1차 대전 당시 소련은 독일과 휴전을 통해 전쟁에서 빠져나왔으며, 프랑스가 주도한 베르사유 체제에도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소련이 중앙유럽의 예전 영토를 회복하려 하자, 프랑스는 거기에 반대하였다.

이로 인해 1920년대 소련의 외교정책은 친 프랑스적이기보다는 친독일적인 색채를 가지게 되었다. 1933년 5월에는 베를린 조약 연장되었으며, 이로써 적어도 문서상으로는 두 나라 사이의 라팔로 체제가 계속되게 되었다. 하지만 히틀러가 집권한 이후 독일이 중앙유럽과 소련의 영토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자, 이러한 정책은 변화하게 되었다.

1935년 5월에는 프랑스와 소련이 독일의 위협에 대처하여 체결한 상호원조조약을(불소상호원조조약) 맺었다. 또한 코민테른을 통해 파시즘에 대항하는 인민전선 전략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소련에 대한 이념적 적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소련 역시 독일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생각은 없었다. 또한 프랑스의 방어적인 군사 전략으로 인해 상호원조 조약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1936년부터는 스페인 내전이 발발한다. 소련은 스페인의 공화국 정부를 구원하기 위해 인적, 물적 원조를 보냈다. 독일, 이탈리아와 같

244) Samuel P.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 and the remarking of world order", (New York, 1996). p.153.

은 파시스트 국가들은 프랑코 측에 적극적인 지원을 보냈다. 반면에 영국, 프랑스와 같은 1차 대전의 연합군들은 독일과의 관계를 우려하여 스페인 내전에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았다. 소련 역시 독일만큼 적극적으로 내전에 참여하지는 않은 가운데 스페인 내전은 결국 프랑코 반란군의 승리로 막을 내린다.

스페인 내전 이후 나치 독일은 일본 제국, 이탈리아 왕국 그리고 기타 군소 국가들과 함께 방공 협정을 맺었으며, 이 협정을 맺은 국가들은 자국의 공산주의 운동을 억압하는 한편, 소련에 대항하는 동맹을 추구하였다. 이후 독일은 체코슬로바키아를 침략하여 점령하였다. 체코슬로바키아는 앞서 언급된 것처럼 소련과 상호원조 조약을 맺었지만, 양국 사이에 있는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불 협조로 인해 소련으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다.

결국 소련은 스페인 내전의 과정 동안 기존 연합군 측에 대한 환상도 깨져 버렸으며, 독일과의 관계도 틀어져버리는 결과만 낳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유럽 대륙에는 불안한 전쟁의 기운이 감돌았으며, 소련 역시 어느 세력과 동맹할 것인지를 결정해야만 했다. 1939년 4월 스탈린은 영국, 프랑스와의 군사 동맹을 추진하는 동시에 베를린에 대사를 파견해 나치 독일과의 협상에 나섰다. 점증하고 있는 나치의 압력에 대한 문제인식은 공유하고 있었지만, 공산주의 국가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높았던 영국과 프랑스는 소련에게 만족할 만한 아무런 대답을 주지 못했다. 반면에 독일과의 협상은 빠르게 구체화되었다.

독일과의 동맹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같은 해 8월에는 상호불가침 조약인 몰로토프-리벤트로프 조약이 체결되었으며, 무역 협정도 같이 체결되었다. 또한 여기에는 폴란드 중심부를 기점으로 동유럽을 동서로 분할하는 비밀 조약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로써 소련은 동유럽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잠재적인 독일의 침략에 대비한 완충 지대를 얻게 되었다. 협정 체결 후 9월 1일에 독일은 폴란드를 침공하였으며, 조약에 따라 소련도 9월 17일에 폴란드에 침공하였다. 소련은 폴란드의 저항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처형을 실시한 것은 물론, 많은 반소련주의자들을 시베리아 유형 길로 보낸다.

소련은 독일과의 불가침조약을 믿고 1940년 들어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를 병합하였다. 같은 해 6월에 소련은 루마니아 대사에게 최후통첩의 뜻을 전하며 베사라비아(Bessarabia)와 부코비나(Bukovina) 일부 지역의 양도를 요구하였다. 독일과 이탈리아 역시 루마니아가 소련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다. 영국, 프랑스 측으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가운데, 루마니아는 소련의 뜻을 받아들였다.

소련의 2차 세계대전은 1941년 6월 22일 독일군의 침공으로 시작되었다. 사실 스탈린은 스파이를 통해 나치 독일의 침공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또한 윈스턴 처칠도 이러한 사태를 경고하였지만, 역시 무시되었다. 스탈린은 독일의 공격이 있으리라는 짐작은 했지만 이처럼 신속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스탈린의 실수에 힘입어 독일군은 초기에 준비되지 않은 소련군에게 큰 군사적 성공을 거두었다.

당시 소련군은 대숙청의 여파로 장교 층이 대거 교체된 상태였다. 기존과 같은 지휘체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했다. 또한 독일군의 침공 시점까지 소련은 군사 동원령도 내리지 않은 상태였다. 리처드 오버리와 같은 역사가들은 스탈린이 불가침조약을 굳게 믿고 있었으며, 첩자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독일군의 침공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에 발견된 자료에 따르면 스탈린은 바체슬라프 몰로토프(외무성 인민위원), 세몬 티모셴코(국방성 인민위원), 게오르기 주코프(적군 총사령관), 니콜라이 쿠즈네초프(발트, 북코카서스 사령관), 보리스 샤포슈니코프(국방성 인민부위원) 등과 함께 회의를 열었다. 공격이 시작된 날 스탈린은 정부, 군부의 각 요인들과 끊임없이 회의를 열었다. 반면에 주코프의 회상록에 따르면, 스탈린은 전쟁이 시작되고 두문불출하다가 3일째 되는 날에서야 겨우 집무를 보러 나왔다.

독일군은 쾌속 진격하여 1941년 겨울에 모스크바의 근교까지 다다랐으나 모스크바 점령에는 실패하였다. 소련은 독일의 전격전에 맞서 신속하게 자신의 주요 기간시설을 후방으로 이동시켰으며, 빠르게 군을 재 조직화하였다. 이어 백여만 명이 넘는 희생자를 남긴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소련은 처음으로 전쟁의 주도권을 쥐게 된다. 이어 동시베

리아 전선에 있던 병력이 합류하고, 후방에서 빠르게 군수물자 생산이 회복되면서 점점 소련에게 유리한 전세가 만들어졌다. 스탈린그라드 이후 결정적 전투였던 쿠르스크 전투에서 소련군은 대승을 거두고 이후 소련군의 서진이 시작되었다.

주코프와 이반 코네프는 즉시 국경을 넘어 독일의 국경으로 침범해 들어갔으며, 1945년 5월 2일 베를린에 남아있던 마지막 독일군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냈다.

전체적으로 소련은 2차 대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서부 전선은 전쟁 말기에 가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을 뿐이다. 나치 독일의 '바르바로사 작전'으로 인하여 소련은 총 2천 8백만에 달하는 인적 손실을 보았다. 퇴각하는 소련군은 초토화 작전으로 독일군의 진격을 저지하려 했으며, 뒤이어 들어온 나치는 점령한 도시들에서 시민들을 학살하는 데 거리낌이 없었다. 많은 러시아인들이 유대인처럼 슬라브인을 인간 이하로 보는 나치의 이념에 희생되었다.

1946년 3월, 소련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전쟁으로 인해 총 7백만 명의 러시아인이 죽었다. 니키타 흐루쇼프 정권 때인 1956년에 이 수치는 2천만 명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1980년 소련의 국가통계위원회(고스콤스타트)는 2천 6~7백만 명 정도가 희생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통계수치가 나와 있으나, 2/3 이상이 민간인 희생자라는 점에서는 모두 의견이 일치한다.

전쟁기간 중에 독일과 내통하고 있다고 여겨진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특히 소련의 통일성을 해칠 민족주의 활동가들이 많이 처벌을 받았다. 폴란드, 라트비아, 그루지야, 우크라이나 등지의 민족주의 운동가들이 굴락에 보내졌다. 이들이 나중에 정치적으로 복권되었으나, 일부는 끝까지 기존의 자치구로 돌아오지 못했다. 또한 독일군에게 포로가 된 소련군의 많은 수가 시베리아의 강제 노역소로 보내졌다. 이는 스탈린이 독일과의 접촉에서 반-소련적인 기질이 형성되었을 것을 우려한 때문이다.

2차 대전의 결과, 소련은 중앙유럽에 자신의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성공한다. 이러한 움직임을 러시아 제국 정책의 연

장선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1918년의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으로 인해 상실된 영토들(발트해 지역, 폴란드 동부 등)은 2차 대전 이후 다시 병합되었다.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은 독일로부터 프로이센의 동북부(지금의 칼리닌그라드 주)를 획득했으며,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슬로바키아로부터 지금의 자카르파타 주를 획득하였다. 또한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루마니아의 지역인 북부코비나에 이주하였다.

1940년대 말엽이 되면 친 소련적인 공산주의 정당들이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에서 정권을 잡았다. 이들은 모두 소련의 예를 따라 스탈린주의식의 독재 체제를 구축하였다. 한편 서방 국가들은 이 나라들에서 치러진 선거가 조작된 것으로 주장하며 공산당 정부를 합법 정부로 인정하지 않았다. 냉전 기간 동안 이들 국가들은 소련의 위성 국가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론적으로 그들은 독립 국가였으나, 실질적으로 이 지역의 공산당 정부들은 대체로 소련 공산당의 방침에 따라 움직였다.

3. 중국의 상황

제2차 세계 대전종전 직후부터 장개석이 이끄는 난징 국민정부와 공산당은 전후의 중화민국 정부의 방향을 둘러싸고 견해 차이를 드러냈다. 1945년 11월 2일 중국공산당군(중국 인민 해방군)의 대공세를 시작으로 각지에서 무력 충돌이 빈발했다. 미국의 휴전 중재에도 불구하고, 1946년에는 국공 내전이 발발한다. 당초 국민당 미국의 군사 원조를 바탕으로 공세를 벌였지만, 소련의 스파이 활동 등을 통해 중국 내에서 중국 공산당에 동조하는 무리가 증가했고, 미국 정부도 대일본 지배에 열중하여 국민당에 대한 원조는 중단되었다. 그러자 소련에서 대규모 군사지원을 받은 공산당군이 반격을 시작하여 국민정부군은 곳곳에서 대패배를 당하기 시작했다. 이때 국민정부는 중화민국 헌법을 제정(1947년)하여 이에 근거하여 장제스 총통을 국가 원수로 하는 헌정 정부를 수립

(1948년)하여 중앙 정부의 정통성을 보여 주려 시도하였다. 그러나 군사적 열세를 만회할 수 없어 국민당의 내전 패배는 결정된다. 장제스는 1949년 1월 총통을 사직하고, 총통 대행을 맡은 리쑹런이 공산당과의 평화 협상을 벌였지만, 같은 해 4월 23일 수도 난징을 공산당에 점령당하였다. 이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은 국내 여러 정치 세력을 결집하여 중앙 정부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1949년 10월 1일에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을 선언했다.

공산당의 승리로 반공주의적인 많은 중국인들이 공산당의 통치를 피해 타이완으로 이주하였으며, 이외에도 대한민국의 인천에 정착하는 부류, 일본의 나가사키에 정착하는 부류로 나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영국령 홍콩, 포르투갈령 마카오,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국 등의 나라로 망명하였다.

1943년 말, 카이로 선언 이후 타이완을 포함한 일본이 점령했던 모든 중국 영토는 중화민국에 반환될 예정이었다. 이 선언은 1945년 포츠담 선언에서도 반복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수용하여 조건 없이 포기를 했다. 연합군의 총사령관은 타이완에 있는 일본군이 중화민국 정부에 항복하도록 명령했다. 1945년에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장제스가 이끄는 난징 국민정부는 1943년 카이로 회담의 조항을 근거로 타이완 섬 일대를 중화민국의 영토로 편입했다. 국민 정부군은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 타이완 섬을 포함한 일대에 상륙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타이완에 있는 일본군에게 일반명령제1호로 장제스 총통에게 항복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중화민국은 천이를 타이완 총사령관으로 임명했다. 그는 1945년 10월 24일 타이완에 도착하여 마지막 총통인 안도 리키치를 받아들였다. 1945년 10월 25일 타이베이 중산 당에서 타이베이에 남아있던 일본 총독부는 중화민국의 대표인 천이에게 항복했다. 그 선언의 유효에 관해서는 많은 논쟁이 따랐으며,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는 이들은 그것이 무효이며, 그 날은 단순히 중화민국의 군정 시작일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V. 결론

소련과 중국은 서로를 바라볼 ‘창문’이 필요했었다. 몽골은 운명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치명적 단점이 있었지만, 지리적 위치를 활용해서 양 강대국 사이의 물류 수송 시스템을 발전시키면서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소련과 중국 사이의 관계 변화는 몽골이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었다. 당시 몽골 지도자들은 두 나라 중 하나의 축인 소련을 선택했으며 국내적으로 정신이 없었던 중국은 몽골의 독립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으로는 중국도 몽골이라는 창문이 절실하게 필요했었다.

소련은 몽골의 지하자원 탐색용 지도를 최초로 만들었다. 그 당시 내부적 문제가 많았던 중국은 사회주의의 아버지이자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인 소련과 마주치기를 두려워하여 몽골을 소련과 통하는 창문으로 사용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창문을 통해서 이웃과 소통한다. 창문을 통해서 서로를 바라보고, 이야기를 나누며 관심을 가지게 되고, 더 나아가 문제가 있으면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이와 같은 이치로 몽골은 다른 나라들보다 러시아와 중국 양국과 친구이든 적이든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가 생기게 되면, 가장 먼저 그 문제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함께 해결하여 나아가야 할 상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몽골과 소련 그리고 중국 이 세 나라의 한가운데 있는 몽골이 러시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몽골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는 선택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 이유를 몽골의 1911년부터 1991년 사이의 역사에서 잘 볼 수 있다. 이 80년을 한마디로 말하면, 몽골은 독립을 위하여 자체적인 노력을 하였으며 동시에 소련이 몽골 독립에 큰 도움과 지원을 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희생과 피해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사실 몽골과 소련의 관계에서 모든 면이 완벽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긴밀하고 절실한 상호이익 관계가 존재했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러한 80년 동안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1946년을 한

시점으로 정하고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다.

1911-1946년 사이에 있는 역사를 소련과 몽골의 관계, 몽골이 독립을 위한 투쟁 또는 국토를 지키기 위한 역사단계 부분으로 구성할 수 있다.

1946-1991년 사이에 있는 역사는 높은 대가와 오랫동안 걸친 결과로서 찾은 독립을 확립하고, 소련으로부터 문화 및 교육의 영향을 받아, 가축 유목 생활에서 산업 및 도시개발을 완성한 국가로 전환할 정도로 변화를 가져왔다. 또는, 국가 경제발전의 기반을 세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다른 말로는 몽골의 국제적인 활동에 맞추어 스스로 같이 걸어갈 그 바탕을 튼튼하게 만들어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946년은 몽골에 정말로 남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수 있고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키포인트와 같은 시기였다. 그때 당시 몽골의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강대국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 기타 나라들과도 접근했던 자료들을 볼 수 있다. 아쉽지만 20세기 초기에 60만 인구밖에 없었던 신생 몽골을 기타 나라들은 거부하고 본국의 신문에 “죽어가고 있는 나라, 민족”이라고 판단적으로 쓰고 있었을 때에도, 오직 소련만이 반대로 몽골에 도우며 주었다. 그 예로 소련은 여러 모로 부족한 몽골에 마음을 열고 문화방면으로부터 시작하여 병원, 어린이들을 위한 캠프, 어린이집, 학교, 대학교, 젊은 가족들을 위한 결혼식 궁전, 신식 건축물 등 여러 분야에서 몽골의 발전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도록 도움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내린 결론은 몽골과 러시아의 관계를 살펴보면 마지막 20여 년간 양국이 협력한 모든 분야에서 더 이상의 발전이 없이 멈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양국 관계가 점점 멀어져 가고 부족한 결점들만 찾아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과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을 감출 수 없다. “New deel²⁴⁵⁾s are nice, yet old friends are nicer”이라는 몽골 속담처럼 1946년 몽골과 소련 관계를 한번 되돌아보며 기억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지금까지 본 연구는 20세기 전기 몽골의 인식, 특히 그중에서도 1911년 몽골의 독립, 1921년 인민혁명, 1924년 공산주의 나라, 1946년

245) 몽골전통 옷을 ‘델’이라고 한다.

대 몽골 자치운동에 소련의 영향 및 몽골이 소련을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했는지를 고찰하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몽골의 대외정책은 소련 및 사회주의 국가와 우호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사회 제도가 다른 나라와는 평화적 공존의 기초 위에서 외교 관계를 발전시키고, 국제기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특히, 몽골 정부는 무엇보다도 소련과의 우호와 협력을 모든 분야에서 중진 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역사적 분석을 통해 몽골이 독립한 시기로부터 1946년까지 어떠한 외교 정책을 추진해 나갔는지를 알아보고, 이와 동시에 1946년의 몽골과 소련의 외교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우선, 몽골은 지정학적 관점에 따라 생존을 위하여 소련과의 외교 정책을 유지해 왔다. 몽골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인접국들과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해야 했었다.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의지하거나 어느 한쪽을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균형을 이루면서 외교를 진행해야만 소련과 중국 중에 어느 한 나라가 몽골을 위협할 경우 이를 저지할 동맹국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몽골은 지리적으로 패쇄된 상태이며, 몽골에 도착하려면 반드시 양국을 통해서만 가능하듯이 제3의 강대국에 몽골은 그다지 유용한 군사적 동맹국이 아니었다. 즉, 몽골이 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제3의 국가와 군사 동맹을 맺으려는 전략은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이 보편적이 전망이다.

둘째, 몽골 안보에 중요한 것은 독립을 통해 양국 간의 호의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하기 위한 첫 번째 목표를 전통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소련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독립을 얻어 중국과 소련 어느 한 나라를 일방적으로 따르지 않고 균형 있는 정책을 견지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셋째, 이데올로기적 면에서 1911년부터 1946년까지 몽골에서 마르크스주의 이념이 작용함으로써 대외정책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이 역사적인 시기에서 몽골은 약소국이라는 현실적 지위를 항상 상기해야 하며 이웃하고 있는 두 강대국의 관심 혹은 적대심을 끄는 행동을 자제하고 평화를 선호하는 외교적 제안을 활용해야 한다는 외교 노선을 증명하였다.

넷째, 문화적 측면에서 몽골 유목민의 특성의 하나는 ‘자유’에 대한 감각이었다. 넓은 초원에서 서로 멀리 떨어져 살고 사계절 동안 자연과 어울려 살았기 때문에 인간관계보다 자연과의 관계가 더욱 깊은 의미가 있는 민족이었다. 그러므로 법률에 통치되는 것을 싫어하는 한편 자립적이고 독립적이며 여유 있는 생활을 좋아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이데올로기든 자연스럽게 받아드리는 밑바탕이 구축되어 있었다.

다섯째, 국내 문제 측면에서도 역시 영향이 있었다. 어쩌면 다른 나라의 침략보다 더욱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 국내 문제임을 대숙청을 통해 알아보았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몽골의 지도자들은 국제사회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국제사회라는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끊임없이 적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본질과 그것이 작동하는 원칙들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국제정치라는 바다를 항해할 때 유용해 조절할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1946년까지 초이발상의 지도 전략이 몽골의 독립을 가져온 결과로는 성공적인 정책으로서 자리매김하여왔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시기 국제체제의 변화, 몽골에서 일어난 정치 개혁에 따라 몽골과 소련의 외교 정책 결정에 끼친 주요한 마르크스주의 등으로 과거 몽골 지식인들의 소련에 대한 인식 중 일부가 지금까지 답습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었다. 향후 몽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아가서 대몽골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몽골은 자국의 안보, 더 나아가 지역적 안보를 확보하고자 외교 정책에 일관되게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독립을 중요시하는 정책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자 한다.

1946년 몽골이 직면하였던 상황이 오늘날에도 몽골이 외교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바탕이 될 것이고 아직도 주변국으로부터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몽골의 외교 정책은 동북아의 번영과 평화 유지에 기여 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몽골은 강대국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몽골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러시아가 몽골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였으며, 특히 경제 지원 및 경제협력 등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또는 강대국 사이에 위치하는 약소국으로서의 과거 경험에 따라

비핵지대를 선언하고 있다. 현재 몽골 외교 정책의 기본 목표는 세계 여러 나라와 우호 관계를 강화하고, 몽골 발전에 긍정적인 대외 여건을 조성하여 나라의 독립과 주권을 보장하는 데에 두고 있다. 국제 외교의 일반적인 기준을 준수하고 평등과 호혜 그리고 협력은 몽골 외교 정책의 주요 목표가 되었다. 몽골은 민족의 이익을 존중하고 국제법적 표준을 준수 및 이행하고, 평화를 숭상하는 나라와 부딪치지 않고, 어떠한 군사 동맹에도 가입하지 않으며, 외국 군대의 군내 주둔을 허용하지 않은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1차 자료>

- B. Baabar. 1996. "Twentieth Century of Mongolia." Ulaanbaatar.
- B. Baabar. 1996. "Movement-stability, losses-profits." Ulaanbaatar.
- B. Baabar. 1999. "History of Mongolia: From World Power to Soviet Satellite." Cambridge: White Horse Press.
- B. Baabar. 2015. "Khorloogiin Choibalsan", *Volume I*. Ulaanbaatar.
- B. Baabar. 2015. "Khorloogiin Choibalsan", *Volume II*. Ulaanbaatar.
- S. Baatar. 2008. "Buriatian's punishment." Ulaanbaatar.
- B. Baldoo. 2003. "Mongolian foreign relation." Ulaanbaatar.
- Ts. Balhaajav. 1997. "An old portrait & memory." Ulaanbaatar.
- Ts. Batbayar. 1990. "Mongolian-Russian relations in the past decades", *Asian Survey, Vol.43, No.6*. Ulaanbaatar.
- Ts. Batbayar. 1998. "Open Mongolia, Mongol-Russian relations", Ulaanbaatar.
- Ts. Batbayar. 1998. "Mongolia-Japan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Ub.
- L. Bat-Ochir. 1985. "MPRP Organized People for the fight against fascism and militarism during 1941-1945." Ulaanbaatar.
- L. Bat-Ochir. 1996. "Search for historical truth." Ulaanbaatar.
- Lu. Bat-Ochir. 1977. "Issues in the establishment of the RPP." Ulaanbaatar.
- Lu. Bat-Ochir. 1996. "The political process in Mongolia in the 20th century." Ub.
- O. Batsaikhan. 1997. "Mongolia's development path." Ulaanbaatar.
- O. Batsaikhan. 2003. "An Issue of Small State's Independent." Ulaanbaatar.
- O. Batsaikhan. 2009. "Bogdo, the last king of Mongolia." Ulaanbaatar.
- O. Batsaikhan. 2013. "Mongolia: becoming a nation-state:1911-1952." Ub.
- S. Battogtokh. 1991. "Secret collusion's hidden immorality." Ulaanbaatar.
- D. Bayarkhuu. 2000. "International Relations & Geopolitical Interests." Deli.
- B. Bayarsaikhan, B. Battulga, B.Lhagvajav, M.Sukhbaatar. 2008. "A Brief historical account of the Development of Mongolia's laws and regulations: 1911-2008." Ulaanbaatar.
- Ch. Buyanbadrakh. 2012. "Information of Mongolia." Ulaanbaatar.
- Kh. Choibalsan, D.Losol, G.Demid. 1930. "A brief history of the Mongolian People's National Revolution establishment." Ub.
- Kh. Choibalsan. 1942. "People's hero Magsarjav." Ulaanbaatar.
- Kh. Choibalsan. 1951. "Reports and speeches:1938-1940." Ub.

- S. Dambadarjaa. 1999. "Mongolian fire of independence is burning in the British Isles." Ub.
- D. Dash. 1972. "Leader power of the People's Revolution." Ub.
- L. Dendev. 1934. "Brief history of Mongolia." Ulaanbaatar.
- S. Gangaanyam. 1993. "Mongolian fight to defend independence:1911-1921." Ub.
- S. Ichinnorov. 1973. "The Revolution Organization which is called MPP." Ub.
- N. Jambalsuren. 2000. "from Yu.Tsedenbal to P.Ochirbat." Ulaanbaatar.
- L. Jamsaran. 1992. "The beginnig of the renewal: 1911-1913." Ulaanbaatar.
- D. Jamsranjav. 1991. "Outer Mongolian's political remembrance." Ulaanbaatar.
- B. Jargalsaikhan. 1997. "Narrative of the long term." Ulaanbaatar.
- B. Lkhagvasuren. 1995. "Mongolian IR, independence history." Ulaanbaatar.
- B. Lkhamsuren. 1998. "Mongolia's external environment, state independence." Ulb.
- G. Lkhamsuren. 1977. "Some issues pertaining to the strategies and tactics of the MPRP's during the People's Revolution."Ub.
- Kh. Magsarjav. 1979. "MPRP's expansion and strengthening during:1921-1924." Ub.
- N. Magsarjav. 1994. "New History of the Mongol State." Ulaanbaatar.
- N. Naidan. 1999. "The Mongol's Mission in 1915." Ulaanbaatar.
- D. Naran. 2002. "History of China, XX Century." Ulaanbaatar.
- D. Narantsetseg. 2006. "Mongolian Independence: 1945-1961". Ulaanbaatar.
- Ts. Nasanbaljir. 1956. "The MPR's Struggle for Non-Capitalist Development, Documents: 1925-1940." Ub.
- Sh. Natsagdorj. 1943. "Sukhbaatar's biography." Ulaanbaatar.
- G. Navaannamjil. 1942. "Choibalsan's childhood." Ulaanbaatar.
- Kh. Nyambu. 1993. "Widely proclaimed Mongolian state morale, ceremony." Ub.
- S. Odiga. 1998. "Russo-Mongol relations." Ulaanbaatar.
- Ts. Puntsagnorov. 1955. "History of Mongolia in the autonomous period." Ub.
- O. Purev. 1979. "Lands where D.Sukhbaatar was living and active."Ub.
- Sh. Sandag. 1971. "Foreign relations of Mongolia:1850-1919." Ub.
- Sh. Sandag. 1971. "Mongolia's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Ulaanbaatar.
- Sh. Sandagdorj. 1980. "International relations documents of Mongolia." Ub.
- M. Sanjdor. 1998. "XX-th Century's Mongolia." Ulaanbaatar.
- L. Sanjaa. 1967. "About MPRP's programmes." Ulaanbaatar.
- B. Sanjmyatav. 1991. "Truth about Kyakht Treaty". Ulaanbaatar.
- B. Shirendev. 1956. "The People's Revolution in Mongolia and the formation of the MPR." Moscow.
- B. Shirendev. 1996. "Revival of Mongolian independence." Ulaanbaatar.
- B. Sumya. 1970. "V.I. Lenin-MP's great teacher, close friend." Ulaanbaatar.
- Na. Sukhbaatar. 2000. "Historical overview of the socio-political development of the West/early 20th century to 1930s/." Ulaanbaatar.
- S. Tsedendamba, 2009. "Brief history of Mongolian Monasteries." Ulaanbaatar.

B. Tseden-ish. 2011. "History of Mongolian border formation." Ulaanbaatar.
 Ts. Tsedenjav. 1942. "Partizan Khasbaatar." Ulaanbaatar.
 B. Tsibikov. 1947. "The story of Ungerns defeat." Ulan-Ude.
 D. Tumur-Ochir. 1955. "A brief history of MPRP." Ulaanbaatar.
 J. Urangoo. 1997. "Innovation in the early 20th century of Outer Mongolia." Ub.

Collection of documents 1900-1914. 1982. Ulaanbaatar.
 History of the Mongolian People's Republic. 1968. Ulaanbaatar.

<2차 자료>

Baldeiv, R.L. 1971. "National educations in the MNR." Moscow.
 Darevskay, I.M. 1997. "Three portraits-three fates", Moscow.
 Gatallina, L.M. 1969. "Mongolian National Republic in the socialist commonwealth." Moscow.
 Gol'man, M.I. 1999. "Mongolian studies in the West." Moscow.
 Graivoronskii, V.V. 1996. "Modern Christians of Mongolia: problems of social development during 1980-1995." Moscow.
 Sablin, Ivan. 2016. "Governing Post- Imperial Siberia and Mongolia, 1911-1924: Buddhism, Socialism and nationalism in state and autonomy building." Moscow.
 Kallinikov, A. 1925. "Revolutionary Mongolia." Moscow.
 Kapitsa, M.S. 1965. "Friendship, won from struggles." Moscow.
 Kondartiev, V. 2002. "Battle of Khalkhiin gol". Moscow.
 Kuzmin, S. 2015. "Centenary of the Kyakhta Agreement." Moscow.
 Lomakina, I. 2006. "The Capital City of Mongolia, Old and New." Moscow.
 Luzyanin, S. 1995. "Mongolia: between China and Russia 1920-1924". Moscow.
 Maisk, I.M, 1959. "Mongolia on the eve of the revolution." Moscow.
 Maleev, E. 1974. "The Joint Palentological Expedition of Sciences." Moskow.
 Matieva, G.S. 1965. "People's democracy and the construction of socialism in the MPR." Moscow.
 Mihailov, G.I. 1957. "Cultural construction in the MNR", *historical essays*, Moscow.
 Osipov, A.A. 1963. "Foreign policy of the MNP." Moscow.
 Radchenko, S. 2001. "Carving up the Steppes: Borders, Territory and Nationalism in Mongolia: 1943-1949." Moscow.
 Rogovin, V. 2003. "1937: Stalin's year of terror." *Book I*. Moscow.
 Roshin, S.K. 1998. "Socialist structure in the economy." Moscow.
 Roshin, S.K. 1998. "Political history of Mongolia during:1921-1940." Moscow.

Ulimjiev, D.B. 1998. "Russian Mongol studies; The second half of the 19th century and the early 20th century", Moscow.
Yaskina, G.S. 1994. "Mongolia: a change in the development model political and economic reforms." Moscow.

"Notes on scholarly works of V.L.Kotvich." 1923. *Reports of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s, 6series, 7th.* Moscow.
Collection of Diplomatic Documents on the issue of Mongolia. 1914. St.Peterburg.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Age of Imperialism, seriya 2, t20, Ch2, Documents from the Archives of the Tsarist and Provisional Governments: 1878-1917.
"New Time." *Novoe Vremya*. 8 September 1912. *News paper.* Moscow.

<3차 자료>

Bawden, R C. 2005. "The Modern History of Mongolia." London.
Benn, David W. 2011. "Russian historians defend the Molotov-Ribbentrop pact", *Vol 87, Number3*.
Bellamy, Christopher. D, Lahnstein Joseph . 1990. "The new Soviet Defence Policy: Khalkhin gol 1939." Alexandria.
Elleman, Bruce. A. 1997. "Diplomacy and Deception: The Secret History of Sino-Soviet Diplomatic Relations: 1917-1927". NY.
Ewing, Thomas E. 1978. "Revolution on the Chinese Frontier: Outer Mongolia in 1911", *Journal of Asian history.Vol.12*. Bloomington.
Ewing, Thomas E. 1980 "Ch'ing Policies in Outer Mongolia: 1900-1911", *Modern Asian Studies, Vol.14*, Bloomington.
Ewing, Thomas E. 1980. "Between the Hammer and Anvil: Chinese and Russian Policies in Outer Mongolia: 1911-1921", *Research Institute for Inner Asian Studies*. Indiana Univ. Press.
Ewing, Thomas E. 1980 "Russia, China and the Origins of Mongolian People's Republic: 1911-1921", *A Reappraisal, The Slavonic and East European Review*. London.
Fairbank, John K. 1978.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 Volume 10, Late Ch'ing 1800-1911, Part 1. New York: Cambridge Univ. Press.
- Fritters, Gerard M. 1949. "Outer Mongolia and its International Position". Baltimore.
- Fritters, Gerard M. 1949. "Outer Mongolia and its International Position." London.
- Ginsburg, Tom 1995. "Between Russia and China: Political Reform in Mongolia", *Asian Survey*, Vol. 35, No. 5. Cambridge Univ. Press.
- Huntington, Samuel P. 1996. "The clash of civilization and the remarking of world order." New York.
- Jansen, Marc. 2002. "Stalin's Loyal Executioner: People's Commissar Nikolai Ezhov, 1895-1940." Hoover Institution Press.
- Kaplonski, Christopher. 2002. "Historical injustice and democratic transition." London.
- Kaplonski, Christopher. 2002. "Thirty thousand bullets: remembering political repression in Mongolia". London.
- Kotkin, Stephan and Elliman, Bruce A. Armonk. 1999. "Mongolia in the Twentieth Century. Landlocked Cosmopolitan." NY.
- Lattimore, Owen. 1962. "Nomads and Commissars: Mongolia." NY.
- Mackinder, Halford J. 1943. "The Round World and the Winning of the Peace", *Foreign Affairs* 21-4, Essay.
- Moses, Larry. 1967. "Soviet-Japanese Confrontation in Outer Mongolia: The Battle of Nomanhan-Khalkhin Gol." Indiana University Press.
- Murphy, G. 1957. "The economy development of outer Mongolian economy in recent times", *Ann Arbor, Michigan University Microfilms*. New York.
- Murphy, G. 1966. "Soviet Mongolia", *A study of the oldest political satellite*, Berkeley, Los Angeles.
- Palmer, James . 2008. "The Bloody white Baron". London.
- Rosenberg, Daniel. 1981. "The Collectivization of Mongolia's Pastoral Production", *Newsletter of the Commission on Nomadic Peoples*, No. 9.
- Rupen, R. 1964. "Mongols of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 Rupen, R. 1979. "How Mongolia is really ruled. A political history of the MPR 1900-1978." California.
- Sanders, Alan J.K. 1987. "Mongolia: Politics, Economics and Society." London.
- Sanders, Alan J.K. 2010. "UN: relations with Mongolia". *III-th Edit*. London.

Wade, Rex. 2001. "The Bolshevik Revolution and Russia Civil War". Greenwood Press.

Chen Chungzu. 1926. "A Modern History of Mongolia." Shanghai.
Kuromiya H. 2007. The Voices of the dead: Stalin's Great Terror." Yale University.
Legrand J. 1975. "Le Choix Mongol de la Féodalité en Socialisme." Paris.
Shi Bozhubian. 1965. "Recent History of Outer Mongolia." Beijing.
Stolupine A. 1971. "La Mongolie entre Moscou et Peking." Paris.

김성환. 2010. "러시아 10월 혁명의 그날." 서울.
박환영. 2005. "몽골의 유목문화와 민속." 서울.
이평래. 2011. "1911년 몽골 독립과 하이산."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웹사이트

www.archives.gov.mn (몽골국립기록보관소).
www.historynet.com (Mongolia-Stalin's Shrewd Opening Act).
www.mongoltoli.mn. (Textbook archival institute)
www.populstat.info. (Population growth).

Abstract

A study on the causes of Mongolian subordination to the USSR in 1946

Munkhtsolmon Enkhbold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Major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y research will attempt to analyse the period of time from the first Mongolian independence movement in 1911 until 1946, when the roots for becoming a satellite state of the USSR started due to the political tactics of Choibalsan, the leader at the time. This time period consists of the Mongolian independence process and the

reasons for domestic political changes.

Due to its landlocked location, wedged between two great powers, Mongolia was destined to endlessly endure, even now.

In 1911, Mongolia's only desire was to be independent but this was very difficult because of the country's weakness with a population of only 800,000 and the tumultuous global political climate. Mongolia needed to survive in that situation but could only choose to align itself with one of two countries, China or the USSR. Eventually, Mongolia chose the USSR, a choice that was made by the leader, Choibalsan.

It was a decision that couldn't be reversed and in needing to secure national safety, he closed his eyes and aimed to achieve his goal. Instead of that, Mongolians were forced to attend every war of Stalin's USSR and as we know there is no success without sacrifice and risk. After a lot of blood, sweat and tears Mongolia gained independence in 1946.

It's fair to say that until 1991 Mongolia was one of USSR's satellite states because of non-recognition globally even though it was an independent country. However, in 1946, after the fourth attempt Mongolia became an independent country. Therefore through to 1946 we can see how Mongolia tried so hard to be independent from others. That is why this timing is so meaningful and important.

To conclude, Mongolia, under the initiative of Choibalsan, chose the Soviet Union as the strategy of choice while the competition between the Chinese and the USSR was playing out. Also that period of time was a dynamic process, not merely a single event. The strategy of Mongolia at this time was Choibalsan's strategies and guiding policies. This was a struggle for gaining independence despite its destiny being intertwined with the two great powers. There were no neutral powers that could help. Therefore the

first priority of their foreign policy was the survival of the nation's security, that is, maintaining its independence. If it were to maintain its neutrality without the strength to do so, then it would not have become independent. Even if it became independent, it would have been almost impossible to maintain it in the competing interests of the great powers. Therefore, the policy of selecting the Soviet Union rather than China had considerable side effects, but it could be regarded as the best policy under the given circumstances.

Key words : 1946 Mongolia, Mongolian independence, MNPR-USSR, Choibalsan-Stalin
Student Number : 2009-23821